

碩士學位論文

初等學校 歷史教育에서
4·3 學習 方案

指導教授 金 東 栓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歷史教育專攻

康 淳 文

2002年 2月

初等學校 歷史教育에서
4·3 學習 方案

指導教授 金 東 栓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1년 월 일



提出者 康 淳 文

康淳文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1년 12월 일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국문초록>

初等學校 歷史 教育에서 4·3 學習 方案

康 淳 文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歷史教育專攻

指導教授 金 東 栓

4·3은 광복에서 정부수립을 거쳐 한국전쟁 종식까지 분단고착화 과정에서 제주도에
서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적게는 3만에서 많게는 8만의 인명 피해
가 있었음이 연구 결과 드러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아직도 제주도민들은 상처를 안고 살
아가고 있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4·3 교육은 매우 소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
3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통하여 초등학생을 위한 교육방안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의 중심과제인 초등학생을 위한 교육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과 관련 단원을 통한 부분적 접근 방안을 마련하였다.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사회과 관련 단원에 5회 투입이 가능하였다. 학습지도안과 투입자료를 마련하고 투
입시기를 배정하였다. 향토사 단원에서 3회 투입이 되는데 3학년에서 4·3 연구소가 소개
되고, 4학년에서 4·3 위령탑과 백조일손지모 등 4·3 유적이 2회 소개된다. 또한 한국사
통사 단원에서 2회 투입되는데 6학년에서 정부수립과정의 한 사건으로 4·3을 다루고,한
국전쟁 영향으로 인한 피해 사례로 첫알오름 예비검속자 희생사건을 다룬다.

둘째, 4·3을 특설단원으로 설정하여 주제접근법에 의한 교육방안을 마련하였다. 한국
사의 대략적 학습이 이루어진 6학년 2학기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
여 2차시 분량으로 4·3의 개요와 유적 학습을 조직하였는데 역사적 사실로서의 4·3, 용
서와 화합을 전제로 한 4·3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여기에는 다양한 투입자료를 첨부하
여 학습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현장학습을 통한 답사교육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주요 유적지를 대규모 학살
과 관련한 유적 7곳, 도민의 수난과 관련한 유적 4곳, 잃어버린 마을 유적 6곳, 유격대의
활동과 관련한 유적 5곳 등 총 22 곳을 4 가지 주제로 묶어 정리하였다. 이 중에서 초등
학생이 학습자임을 염두에 두고, 관련 단원에서 부분적 접근에 의한 분절 투입과 특설단

원에서 주제접근법에 의한 전체적 접근 학습에 자료로 유용한 유적을 골라 두 개의 지역으로 묶어 현장학습 코스를 마련하였다. 하나는 제주 서부지역과 대정읍 일대의 유적으로 백조일손지묘 외 5곳을, 또 다른 하나는 동부지역 유적으로 낙선동 성터 외 4곳을 각각 하루 일정의 코스로 묶어 소개하였다. 현장학습임을 감안하여 4·3 관련 내용 외에도 아이들에게 알려 줄만한 내용은 같이 설명해 놓았다.

그러나 4·3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여기서 제시한 것 외에 더 다양한 방법과 자료가 마련되고, 현장 교사들의 의지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이 그 과정에 조그만 물꼬가 되길 소박하게 기대한다.



* 본 논문은 2002년 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석사학위 논문임.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3
II. 4·3의 역사성과 교육	5
1. 4·3의 배경	5
2. 4·3의 전개 과정	9
3. 4·3의 성격	20
4. 4·3 교육의 필요성	23
III. 관련 단위에서의 학습	27
1. 초등학교 사회과 4·3 관련 단위	27
2. 분산적 접근법에 의한 4·3 학습	28
IV. 4·3을 주제로 한 특설단원 학습	38
1. 주제접근법에 의한 4·3 학습	39
2. 4·3 관련 인물 학습 자료	47
V. 4·3 유적과 현장 학습	56
1. 4·3과 관련한 유적	57
2. 제주 서부 지역 4·3 현장 학습	65
3. 제주 동부 지역 4·3 현장 학습	69
VI. 요약 및 결론	76
참고문헌	79
부록: 4·3 연표	85
<ABSTRACT>	97

표 목 차

<표1> 지역별 사망자 피해 접수 현황	23
<표2> 가해자 유형별 사망자 수	23
<표3> 초등학교에서 4·3 자료 활용 단위	27

도 목 차

<지도1> 4·3 관련 유적 지도	57
<지도2> 첫알오름 지도	66
<지도3> 백조일손지묘 지도	67
<지도4> 무등이왓 지도	68
<지도5> 낙선동 성터 지도	70
<지도6> 의귀 현의합장묘 지도	71
<지도7> 표선백사장 지도	72
<지도8> 다랑쉬 마을과 다랑쉬 굴 지도	73
<지도9> 북촌 음광밭 지도	7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주 4·3¹⁾이 발발한지 벌써 반세기가 지났다. 한국 현대사의 서막(序幕)을 여는 과정에서 제주도 전역을 뒤흔들고 엄청난 인명이 희생당하였음에도 오랫동안 논의조차 금기되어 피해 당사자들도 입을 열 수 없었다. 발발 후 40여 년 동안 정부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어 왔다. ‘공산계열의 사주에 의한 폭동(暴動)’으로 규정하고 더 이상의 논의를 제한해 왔다.²⁾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재일교포와 미국인 학자에 의해 논문이 발표되었으나³⁾ 그마저도 관심이 있는 소수의 국내 연구자들만이 이를 접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폭발한 민주의식의 성장으로 4·3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와 연구가 일부 전개되어 몇 편의 석사학위 논문이 발표되었고⁴⁾ 제주 4·3 연구소의 발족과 제민일보 취재부에 의해 『4·3은 말한다』가 발간됨으로써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밝히는 데에는 일정 부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1) 4·3이란 명칭은 한시적인 것이다. 실상과 성격 규명이 이루어져 그 성과가 축적되어 이에 걸맞은 이름을 갖기까지 잠정적인 이름이다. 지금까지는 ‘폭동’, ‘사태’, ‘사건’, ‘난동’, ‘무장봉기’, ‘항쟁’ 등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항쟁’의 관점을 취한다. 4·3은 발발 1년 여 만에 사실상 종식되었지만 한국전쟁을 관통하면서 1953년까지 지속되었다. 단선, 분단국가수립, 여순 사건, 한국전쟁의 발발과 종결,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해방 전후사의 한복판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4·3은 현재진행형이다.

2) 제민일보 취재부(1998), 『4·3은 말한다』 2권, P. 50.

3) 김봉현, 김민주(1963), 『濟州島 人民들의 武裝鬪爭史』, 대관 문우사.

김봉현(1978), 『濟州島 血의 歷史』, 대관 도서관행회.

John Merrill(1980), “The Chejudo Rebellion”, Journal of Korea Studies Vol 3.

4) 정민혜(1985), “남로당의 적화 전략에 대한 연구 : 4·3과 관련하여”, 제주대.

박명립(1988), “제주도 4·3 민중항쟁 연구”, 고려대.

양한권(1988), “제주도 4·3 폭동에 대한 연구”, 서울대.

양정심(1995), “제주 4·3 항쟁에 대한 연구 :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김대근(1996), “제주도 4·3 사건의 정치적 배경에 관한 연구”, 동의대.

박진순(1996), “제주도 4·3 항쟁 연구 : 배경 및 성격을 중심으로”, 성신여대.

그간의 연구 성과와 도민의 4·3 규명을 위한 의지를 바탕으로 2000 년에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공포되기에 이르렀다. 정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4·3 피해를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추모 공원을 만들고, 위령탑을 세우는 등 활발한 사업의 전개가 예상되는 데 이는 정부가 그간에 갖고 있던 이념적 시각을 바꾸어 용서와 화해를 바탕으로 한 4·3 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도민의 요구를 들어 준 것이다. 특별법 제정으로 많은 자료들이 공개되고, 밝혀지지 않았던 피해 사례도 드러나는 등 사실 규명 작업은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 결과 지금에 이르러서는 '항쟁(抗爭)'이란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4·3에 대한 교육 문제는 매우 소홀히 취급되어 왔다. 특별법 제정과 진실에 접근한 가시적인 연구의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4·3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아직도 최근의 연구성과를 도외시키고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교란작전의 하나'로 기술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집필을 담당한 학자들이 90년대 이후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는 데 게을리 했거나 한 쪽의 시각을 일방적으로 기술했을 가능성 때문일 것이다.⁶⁾ 심지어 4·3 관련 학위 논문이 발표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다. 더구나 초등학교인 경우는 4·3 관련 내용을 교과서나 향토자료 어디에서도 아예 다루지 않고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작 보급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제주도 교육청이 2001년 발간한 『제주체험학습 프로그램』에 극히 일부의 유적이 소개되었고, 제주 사랑 역사교사 모임에서 전교조(全教組)의 후원으로 만든 4·3 관련 CD 자료가 나와 있는 정도이다. 제주는 물론 한국 현대사에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제주 지역사 단원이 설정되어 있는 초등학교 향토사 단원에서도 일절 언급이 없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념과 우파적(右派的) 이데올로기 시각으로 4·3을 이해하려는 그간의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전혀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반세기 동안 전혀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았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4·3을 이념적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50여 년 전 제주에

5) 양정심(1999), “주도세력을 통해 본 제주 4·3의 배경”, 『제주 4·3연구』, 역사연구소 외, p.51.

6) 제민일보 취재부(1998), 『4·3은 말한다』 2권, p.p 409~415에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과 집필진과의 인터뷰 내용이 실려 있다.

서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만 다루더라도 공교육에 담아낼 수 있다.

4·3을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은 처절한 수난과 아비규환의 비명과 인간의 잔혹함과 만나는 길이며 그 간의 불의(不義)에 숨죽여 있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르치는 일이다. 그래서 4·3을 교육한다는 것은 정의를 살리는 길이며 인간성을 회복하는 길이다.

학교에서 4·3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른이 되어서야 비밀스럽게 학습하고 개인적 성향에 따라 편협 되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는 또 다른 불행의 싹을 키우는 것이다. 이제 4·3은 묻혀진 역사가 아니라 아이들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드러난 역사이다. 그래서 균형적 시각에서 그 간의 연구와 밝혀진 사실에 바탕을 두고 올바른 이해를 위해 공교육에서 이를 가르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 특히 향토사 단원이 설정된 초등학교에서는 이를 수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그 방안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과정을 마련하여 초등학생들이 4·3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교육방안을 만드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향토 이해 교육과정과 역사단원이 편성된 3학년 이상 고학년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수준에 맞는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였다. 즉 한국사 학습과 관련하여 부분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분절 투입용 지도안을 작성하였으며, 한국사 통사에 대한 개략적 이해가 이루어진 6학년 2학기에 특설단원을 설정하여 주제접근법으로 4·3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였다. 나아가 현장체험 학습을 위한 4·3관련 유적 답사 프로그램도 제시하였다. 또한 전체적인 시각에서 4·3의 이해를 돕기 위해 4·3의 대략적 개요를 살피고 현장답사를 용이하도록 4·3과 관련한 유적을 안내하여 성격별로 묶어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작업의 주요 관심은 4·3을 초등학교에서 교육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있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4·3의 배경과 전개과정, 성격, 피해사례 등은 기존의 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정리하고 필요한 부분을 인용하여 4·3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그 결과 새로운 사실이나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대략적인 이해의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4·3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교육과정 편성에는 4·3의 성격에 관한 내용은 가능한 배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4·3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배경과 전개과정은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였다.

둘째, 4·3 관련 유적은 직접 현장을 답사하여 현재의 보존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유적에 관한 내용은 본 연구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그들의 수준에 맞추기보다는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에서 설명하려고 했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칠 때는 일정 부분 각색하여 지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답사가 가능한 유적을 성격별로 분류하여 제시함으로써 현장체험 학습 계획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여기에 제시된 것 이외에도 관련 유적은 많이 있으나 22 곳으로 한정하였다.

셋째, 4·3과 관련한 교수-학습과정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으나 세 가지 학습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사 단원과 관련한 분산적 접근법에 의한 분절투입용 과정안과 학습자료를 부분적으로 제시하였고, 주제접근법에 의한 학습을 위해 4·3을 특설단원으로 설정하여 2차시 정도의 범위에서 대략적 이해가 가능하도록 내용을 조절하였다. 또한 현장답사 학습을 위해서 답사 가능한 유적을 소개하였으나 실지 프로그램에서는 초등학생이 답사가 용이한 곳을 선정하여 2개의 지역으로 묶어 제시하였고, 나머지 유적에 대해서는 가족 단위나 지역 단위에서 개별 답사가 가능하도록 따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 제시한 현장학습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들의 단체 답사를 위한 것이고 개별 답사 프로그램은 더 다양하게 마련할 수 있다.

Ⅱ. 4·3의 역사성과 교육

1. 4·3의 배경

4·3의 배경(背景)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제주도가 갖고 있던 역사적 전통과 2차 세계 대전 종식 후 미국과 소련으로 분할된 냉전(冷戰)의 상황으로 인한 한반도 정세, 광복 공간에서의 제주도의 정치·경제·사회상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제주도의 역사적 전통을 살펴보면, 제주도는 역사적으로 민중(民衆)들의 항쟁이 많았다. 중앙정부의 통제가 약한 탓도 있었지만 혜택보다는 가혹한 경제적 수탈(收奪)이 많았으며, 중앙정부에 의해 크게 차별대우를 받았음에 그 원인이 있었다. 따라서 제주인들은 중앙에서 과견되는 지방관료의 탄압과 수탈을 견디지 못해 이들과 갈등이 빈번하게 빚어졌다. 다시 말해, 중앙과 지방의 대립구도는 제주인으로 하여금 제주인과 비(非) 제주인으로 구분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하였다. 19세기에 여섯 차례나 발생했던 대규모 민란(民亂)⁷⁾의 원인이 수탈과 폭정(暴政)에 대한 항거였음은 이를 여실히 증명한다.⁸⁾

제주도 민란의 두드러진 특징은 중앙정부와 분리 독립적인 경향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었으나 일신의 영달이나 정치적 야심보다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이었고 장렬한 저항이었다. 항쟁의 지도자가 목을 내놓고 장두(狀頭)⁹⁾가 된 것이나 민란의 원인이 대부분 과중한 세금 부담과 관리들의 폭정에 있었음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수 차례의 민란 후 도민에게 돌아 온 것은 문제의 해결이나

7) 19세기에 들어 세도정치에 따른 정치적 혼란으로 전정(田政)·군정(軍政)·환곡(還穀) 등 3정의 문란과 화전세(火田稅)의 남장(濫徵) 등 제주도의 경제적 폐단과 지방관과 토착지배층에 의한 공납의 자의적 수탈로 여섯 차례의 민란이 발생한다. 양재해(梁齋海) 모변(1813년), 강제검(姜悌儉)의 난(1862년), 김지(金志)의 난(1890년), 강유석(姜瑜奭)의 난(1896년), 방성칠(房星七)의 난(1898년), 이재수(李在守)의 난(1901년) 등이다.

8) J. Merrill(1980), *op. cit.*, p.7.

9) 장두는 상소문을 올리거나 민란을 피할 때 연명부 맨 앞에 이름을 올리는 대표자 또는 주모자라 할 수 있다. 민란의 경우에는 민란의 성패 여부에 관계없이 죽임을 당했다. 1901년 신축민란을 이재수의 난이라 하는 것도 이재수가 장두였기 때문이다.

상황의 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되는 탄압이었다. 따라서 도민들은 어설픈 감정에서 벗어나 무장투쟁이 중앙정부의 수탈과 섬의 억압적 질서를 깨는데 효과적임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¹⁰⁾ 따라서 민란이 더해 갈수록 유희화 되고 거세어진다. 민란의 역사에서 의미 있는 것은 반외세(反外勢) 사상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점이다.¹¹⁾ 1901년 이재수의 난에서 외세제거를 표방한 것은 4·3과 관련지어 볼 때 음미할 만 하다.

또한 일제통치 기간 중에 있었던 수 차례의 도민 저항을¹²⁾ 통해 보더라도 언제고 생존을 위협하는 부당한 힘에 대해서는 굴복하지 않고 크건 작건 즐기차게 저항해온 역사적 경험이 제주도민들에게 자리하고 있었다. 이러한 저항의 역사는 광복에서 분단 고착에 이르는 과정에 4·3을 자리하게 하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다음으로 당시 한반도의 정세를 살펴보면,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자 한반도 문제에 주도권을 가진 미국과 소련은 그들의 대 세계정책과 관련하여 한반도에 진주한다. 이미 냉전 시대의 서막이 열리는 가운데 소련은 태평양과 극동의 진출을 위한 디딤돌로, 미국은 공산주의에 대한 방벽(防壁)을 구축하려는 의도로¹³⁾ 한국민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각각 38선을 경계로 한반도의 남과 북으로 나누어 진주한다.

한국민에 있어서 광복 후 최대 과제는 한반도 전역을 통괄하는 통일정부의 수립이었다. 그러나 한반도의 상황은 한국민의 의도와는 다르게 전개된다. 남한에서는 김구(金九) 중심의 반탁운동(反託運動)과 통일정부수립 노력까지 미군정(美軍政)과 이승만(李承晩)의 반공노선에 흡수되어 미국은 그들의 의도대로 대한반도 정책을 수행할 수 있었다.¹⁴⁾ 반탁운동은 좌익진영(左翼陣營)을 궁지에 몰

10) J. Merill(1980), *op. cit.*, p.148.

11) 양한권(1988), 앞의 논문, p.p 35~36.

J. Meril(1980)l, *op. cit.*, p.p 144~148.

12) 일제하 제주도에서는 어느 지역보다 저항운동이 활발했다. 1921년의 반역자 구락부, 1925년 신인회와 5·1회, 제주청년연합회를 시작으로 저항의 물꼬를 텃으며, 1927년 조선공산당 제주 야체이카가 결성되어 항일운동을 전개한다. 그 후 전개된 항일운동으로 가장 빛나는 것은 1932년에 있었던 제주 해녀의 항일 운동이다. 구좌읍을 중심으로 전개된 이 항일투쟁은 연인원 1만 7천 명이 동원된 한국독립운동사에 최대규모의 어민운동이었다. 이후로도 학생들에 의한 저항운동이 수 차례 일어나고, 1932년에서 1934년에 걸친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이 벌어진다.

13) 양한권(1988), 앞의 논문, p.65.

14) 양한권(1988), 앞의 논문, p.67.

리게 하고 미국은 한반도를 소련의 지배로부터 막는다는 구실로 좌익 소탕의 강화와 남한 단독정부수립 정책을 더욱 공고히 한다. 38선 이북의 상황도 이남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소련의 한반도 정책과 김일성의 정치적 야심이 맞물려 분단의 기운은 점차 고착화된다.

이러한 한반도의 상황은 외세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을 필연적으로 불러오게 한다. 특히 남한에 있어서 점령군으로 진주한 미군정의 대(對) 한반도 정책은 한국민의 이해보다는 그들의 의도하는 ‘공산주의에 대한 방벽 구축’한다는 것으로 일관되었다. 이에 대해 일제로부터의 광복에 국제적 명분¹⁵⁾이 약한 한국은 강대국의 야욕을 물리치기에는 물리력이나 외교력 모두 열세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한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주독립을 저해하는 외세와 이에 결탁한 무리들에 대한 저항이었다. 특히 제주도와 같은 상황에서는 그것이 더 가열차게 전개된다.

끝으로, 광복 후 제주도의 상황이다. 본토와 고립무원(孤立無援)한 화산섬인 제주도는 토질이 척박하고 지형조건이 불리하여 협소한 공간에 혈연적인 집단으로 취락(聚落)이 구성되고, 식수 등의 문제로 해안가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은 농민의 계층분화(階層分化)가 일어나는데 장애가 되었다. 계층분화가 일어나지 않음으로써 제주도에서 발생한 민란은 지주(地主)와 농민간의 봉건적(封建的) 대립이 아니라, 중앙정부와의 대립이었다. 이는 공동체적 연대감이 강했음을 의미하며 이념이나 사상보다는 혈연이나 지연적 요인이 집단행동을 하는데 크게 영향을 끼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경향은 일제시대와 광복공간에서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이를 봉쇄하는 데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¹⁶⁾ 또한 당시 인민위원회(人民委員會) 활동의 확산이나 4·3 당시 토벌과정에서 선무공작(宣撫工作)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도 이러한 요인에 힘입은 바 크다.

이와 같은 사회상에서 광복을 맞아 급격하게 불어난 인구¹⁷⁾, 사회주의(社會主

15) 김구가 일본 패망 소식을 접하고도 크게 우려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일본의 패망에 한국민의 기여도가 낮아 한반도의 미래가 한국민의 의도보다는 연합군의 의도대로 진행될 것에 대한 깊은 우려였다. 김구의 판단이 옳았음이 그 후의 상황으로 증명된다. 실지로 임시정부의 광복군은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그것도 시기를 놓쳐 버렸다. 따라서 연합군은 한반도를 2차 대전 승리의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16) 김점곤(1983), 『한국전쟁과 노동당 전략』, 서울, 박영사, p.143.

義) 사상을 공부한 출타인(出他人)들의 유입, 어느 지역보다 지지를 얻고 있었던 인민위원회의 활동에 따른 도민들의 연대감의 형성은 자체적인 항쟁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제주도에 있어서의 투쟁이나 저항은 이념이나 사상에 동조하여 휩쓸리거나 물리적인 힘의 강약에 편승하여 나서기보다는 생존과 공동체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삶의 방식에 의해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제주도의 사회상은 광복공간에서 친일파(親日派)의 재등용, 3·1절 사태¹⁸⁾를 계기로 한 미군정과 도민의 반목, 단독정부 수립의 정치적 상황, 우익단체(右翼團體)들의 만행, 미군정의 곡물수집정책(穀物收集政策)¹⁹⁾으로 인한 갈등 등의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도민의 항쟁을 불러오게 된다.

제주도의 역사적 전통은 학정에 항거하는 빛나는 민중의식(民衆意識)을 만들었으며 광복 후 한반도 상황은 통일조국의 자주독립(自主獨立)이라는 명분을 제공하여 미군정에 대한 저항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광복 후 제주도의 상황은 생존과 공동체 집단의 보호를 위한 항쟁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배경이 된다. 이러한 제주도민의 저항의식(抵抗意識)과 역량이 남로당(南勞黨) 제주도지부의 전술과 결합하여 무력투쟁(武力鬪爭)의 길로 나서나 빨갱이 섬이라는 토벌 명분을 제공한다.

17) 양한권(1988), 앞의 논문, pp.57~58.

광복 후 제주도의 인구 증가율은 전국 2위에 해당하는 25%였으며, 숫자로는 6만 명에 이른다. 당시 제주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급증하는 인구의 문제였다. 또한 이들은 군인, 군속, 징용 노무자, 중국에서의 의용군, 팔로군에 속해 있던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어, 후에 도민들의 정치의식을 일깨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18) 3·1절 시위 사태는 4·3의 발발에 결정적인 계기로 보는 연구자들이 많다. 1947년 3월 1일 미군정에 의해 집회가 금지된 가운데 전국적으로 기념식이 열렸는데 이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내었다. 제주도에서도 오전 8시 경 오현중학교에서 수천 명이 군중이 모여 기념식을 갖는데 경찰은 기마대까지 동원하며 저지했으나 참가자들의 완강한 저항에 밀렸다. 집회 후에 군중들은 가두 시위를 벌이는데 심지어 군정청 직원들까지도 동참하였다. 이를 진압하는 가운데 시위를 구경하던 어린 아이를 포함하여 여러 명이 죽고, 수십 명의 부상을 당하는 불상사가 생겼다. 이로 인하여 미군정과 도민들 사이의 대립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19) 양한권(1988), 앞의 논문, pp. 59~61.

미군정에서는 과거 일제가 행했던 곡물수집정책을 부활하였는데, 제주도민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와 초기에는 할당량의 5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도민들은 곡물수집 관리를 구타하는 등 완강히 저항했고 관리들은 종종 폭력적 방식으로 곡물을 수집하였다.

2. 4·3의 전개 과정

4·3의 전개과정(展開過程)은 연구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다.²⁰⁾ 그러나 여기에서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제주도민의 항쟁의식(抗爭意識)의 성숙,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를 상대로 제주도민의 대응과 이에 따른 탄압의 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섯 단계로 구분하였다.

첫째, 자주독립의 염원(念願)이 좌절되어 반미 감정과 도민의 저항의식이 성장하는 광복 후부터 1947년 3·1절 시위사태 이전까지의 긴장기(緊張期),

둘째, 3·1절 시위사태를 계기로 미군정과 경찰, 서북청년단(西北靑年團) 등 우익단체와 도민들 간의 무력 충돌이 야기되고 감정이 대립하여 항쟁의 기운이 고조되어 1948년 4월 3일 무장대가 지서와 우익단체를 습격하여 무장봉기(武裝蜂起)를 일으키기 전까지의 고조기(高潮期),

셋째, 1948년 4월 3일 무장봉기로부터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대가 항쟁의 주도권을 잡고 기선을 제압했으나 경비대의 토벌참여로 점차 대중과 유리되고, 단독정부가 수립되는 1948년 8월 15일 이전까지의 폭발기(爆發期),

넷째, 1948년 8월 15일 단독정부 수립에 이어 남로당 지도부가 해주 인민대회(人民大會) 참석을 위해 섬을 빠져나감으로서 무장대의 조직이 약화되고 토벌대의 무자비한 강경작전(強硬作戰)으로 수많은 인명의 희생을 낳고 실질적인 저항이 종료되어 제주도 지구 전투사령부가 해체되는 1949년 5월 15일까지의 수난기(受難期),

다섯째, 실질적인 무력항쟁은 소멸되고 한국전쟁의 발발과 이에 편승한 산발적인 저항을 일으키나 무지개부대의 진압으로 토벌이 마무리되는 1953년 5월까지의 이완기(弛緩期)이다.

20) 4·3의 전개과정을 구분하는 여러 시각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양한권은 1948년 4·3발발을 시점으로 1953년 6월말까지를 게릴라의 공세와 그것에 대응하는 미군정 경찰 및 군의 게릴라 작전의 변화를 고려하여 6기로 구분하고 있으며(앞의 논문, p. 8.), 박명림은 4·3 발발 이전을 미군정의 점령정책과 제주 민족운동 세력의 대응을 양측으로 하여 4기, 4·3 발발 후를 항쟁의 양상에 따라 5기, 총 9기로 세분하였으며(앞의 논문, p.37. p.95.), 제민일보 취재부는 4·3 발발 이전을 2기, 발발 후를 8기, 총 10기로 세분하여(앞의 책, pp. 8-12.) 설명하고 있다.

1) 제1기 : 긴장기(광복 ~ 1947. 2. 28)

항쟁의 의식이 성숙한 광복 후 3·1절 시위 사태까지의 약 1년 반에 걸친 시기이다.

광복이 되었지만 제주도는 여전히 일본군이 위세를 떨치고 있었다. 그들은 무기를 소지하고 숫자도 많아 물리적인 힘을 갖고 있었고 도민에게는 위협적인 존재였다. 게다가 일제시대 행정관리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항복을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제주도는 광복을 맞지 못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도민은 인민위원회²¹⁾와 건국준비위원회(建國準備委員會)를 각 행정단위로 조직하여 자주적 독립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한편 남한에 진주한 미군은 광복 한 달이 지난 9월 29일 제주도에 미군정을 설치하나 일본의 통치기관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그 자리에 친일본자들을 재등용함으로써 도민의 반감을 샀다. 이런 와중에 자생 청년 조직이었던 한라단(漢拏團)이 도인민위원회를 습격하는데²²⁾ 미군정 경찰은 한라단의 편을 들어 150여 명의 인민위원회 간부를 구속하였다. 또한 곡물 수집과 관련한 수 차례의 충돌로 도민이 미군정에 대한 불만은 매우 고조되었다.

도민의 반미 감정이 고조되어 긴장상태에 놓여 있는데도 미군정은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자생적 조직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그들이 지지하는 우익단체인 독립촉성회(獨立促成會) 제주도지부를 결성한다. 미군정이 인민위원회에 대한 탄압은 정판사 위조사건을 계기로 강화되어 행정구역 단위로 조직되었던 인민위원회의 활동은 점차 위축되어 지하로 들어가고 도민의 반미감정은 더욱 깊어진다. 이 시기의 도민들의 반미감정의 정도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이를 증명한다. 미군

21) 당시 제주도 인민위원회의 성격을 요약하면, 제주도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자치기구였고, 항일운동가들이 주도했으며, 비교적 온건했다는 것과, 전국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활동했으며, 미군정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했고, 중앙당이나 전남도당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일정부분 독자적인 노선을 견지했다는 점이다.

22) 제민일보취재반(1998), 앞의 책, p.p 147~151.

한라단은 해방 후 결성된 도내 청년 단체로서 1945년 11월 5일 인민위원회를 습격하여 충돌을 빚음. 미군정은 이 사건을 인민위원회 보안대원 154명을 연행하여 처벌하고 통금을 실시함. 한라단은 이 사건 이후 종적을 감춤. 한라단의 이념적 성격에 대해선 확실히 드러나지 않고 지금도 의견이 분분함.

들은 제주도에 와서 양과자를 적선하듯 나누어주었는데 이를 먹은 사람들 중에 설사하는 사람이 많아서 도민들은 미군이 사람을 죽인다고 양과자 먹지 말고 양담배나 미제 상품을 사지 말자는 운동이 벌어진다.²³⁾

이러한 반미감정(反美感情)은 학생들의 시위로 확산되는데 오현중학교, 제주 농업중학교와 농업고등학교의 맹휴(盟休)를 비롯하여 제주시내 중고생들의 대규모 반미시위가 2차에 걸쳐 일어난다.²⁴⁾ 미군정은 도민의 반미감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친미단체들을 강화하는데 46년 7월 이후 대한독립촉성회, 비상국민회의, 서북청년단 조직을 적극 지원하고 한라단의 조직을 강화하여 광복청년단(光復靑年團)으로 개편한다.²⁵⁾

도민의 반미의식의 성장과 이를 무마하기 위한 미군정의 압투가 계속되는 가운데 1946년 8월 1일 제주도(濟州島)가 도제(道制)로 승격²⁶⁾되고 이어 제주경찰서가 감찰청(監察廳)으로 바뀐다. 또한 국방경비대 9연대가 창설되어 행정조직이 미군정 체제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인민위원회는 극심한 탄압과 활동의 제약을 받게 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중조직으로서 남조선 노동당이 결성되면서 제주인민위원회도 남로당 제주지부로 개편된다.

남한을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의 기지로 만들려는 미국의 의도는 남한의 모든 좌익세력과 그들의 의도에 상충하는 모든 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표출된다. 1946년 12월에 들어 전국적으로 좌익에 대한 일제 소탕령을 내리고, 친미단체의 강화를 위해 여러 단체들을 모아 대동청년단(大同靑年團)으로 통합하고 경계강화령이 전국의 경찰을 대상으로 내려지는 등 강압적 정책이 그 예이다. 이에 제주도 전역이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제주도민은 3·1절 집회를 준비하고 미군정은 이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서 대립은 극에 달한다.

광복 후 1947년 3월 1일까지의 이 시기는 제주도민의 자생기구인 인민위원회와 점령군으로 진주한 미군정과의 불신과 대립이 점차 고조되면서 반미의식이

23) 아라리 연구소(1988), 『제주민중항쟁 1』, 서울, 소나무. p.128.

24) 아라리연구소(1988), 앞의 책, p.p 129~130.

25) 제민일보취재반(1998), 앞의 책, p.p 147~151.

26) 박명림(1988), 앞의 논문, p. 52에서 정리. 제주도의 도 승격은 단순한 행정적 의미만 지니는 일이 아니었다. 물리력 수준이 군 수준에서 도 수준으로 강화됨을 의미한다. 좌익 견제를 위한 것이었으며, 인민위원회에 협조적이었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인민위원회의 활동을 제지하기 시작한 것도 이 때부터였다.

성숙하고 미군정은 행정력과 우익단체들을 이용하여 도민의 반미의식을 말살하기 위한 저강도(低強度) 정책을 수행한 시기이다.

2) 제2기 : 고조기(1947. 3. 1 ~ 1948. 4. 2)

미군정과 제주도민간의 불화와 대립이 1947년 3·1절 시위사건을 계기로 극도로 악화되어 미군정의 강경 진압 작전과 도민의 저항이 충돌을 야기하고 남로당 제주도지부 조직을 중심으로 무장봉기를 준비하는 시기이다.

미군정에 의해 3·1절 집회가 금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국적으로 민주주의 민족전선(民主主義民族戰線) 주최로 3·1절 집회가 열린다. 제주에서 열린 3·1절 집회에서는 수십 명의 사상자(死傷者)를 내는 불상사가 발생한다.

일부 4·3 연구자들은 3·1절 시위 사건을 이듬해 4·3 무장봉기의 계기²⁷⁾로 보는데 어쨌거나 이 사건은 미군정과 도민들 사이의 감정의 충돌을 야기 시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했다. 미군정은 민전 간부들에 대한 탄압과 검거를 시작하고 이에 분노한 도민들은 3월 10일 파업투쟁(罷業鬪爭)에 적극 참여한다. 3월 12일 군정청을 비롯한 행정기관과 일부 경찰까지 가세한 파업²⁸⁾으로 인해 제주도 행정력이 마비되고 급기야 조병옥(趙炳玉)이 병력을 인솔하고 내도(來道)하여²⁹⁾ 수백 명의 파업 주동자를 검거함으로써 사태는 더욱 악화된다. 이러한 경찰의 무리한 파업 주동자 색출은 3·1절 시위 주동자나 파업에 참여했던 많은 도민들이 경찰의 검거를 피해 입산(入山)하는 계기가 되어 무장봉기의 기운을 무르익게 한다. 특히 3월 15일 중문면 시위에서 한 명의 청년이 경찰의 총에 죽고 시위와 파업에 관련된 2,500여 명의 구속자 가운데 세 명의 고문치사자가 발생, 시체를 몰래 버리려다 발각되는 사건³⁰⁾이 벌어져 경찰과 우익단체에 대한 도민

27) 제민일보 취재반, 양한권, 박명립, 김봉현, J. Merrill 등이 있다.

28) 3월 10일 총파업에는 도청을 비롯한 관공서, 은행, 회사, 학교, 통신기관 등 156개 단체가 참여하고 심지어는 경찰들도 파업에 동참하였다. 상점은 철시되고 학생들은 동맹 휴학에 들어갔다.

29) 도 감찰청장은 ‘발포는 유감’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경찰의 과오를 인정하였으나 조병옥이 경찰 300여 명을 데리고 들어와 주동자를 검거하여 328명을 재판에 회부하고 떠나면서는 총파업의 배경과 원인은 무시한 채 ‘남로당의 선동에 의해 파업이 조장되었다.’고 발표한다.

의 반감은 극에 달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미군정은 무력 강경 진압 방식을 계속 고집하여 대다수의 도민이 미군정에 등을 돌리게 되었다.

6월에 들어서 도민들에 의해 경찰을 살상하고 폭행한 사건이 일어난다. 구좌읍 종달리에서 개최된 민애청(民愛靑)대회를 저지하기 위해 기습한 수십 명의 경찰과 우익청년들에게 주민들이 폭행을 가해 세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³¹⁾ 이를 계기로 경찰을 포함한 우익단체와 주민들 간에는 간헐적으로 물리적 충돌이 이어졌다. 남로당 조직은 도민의 불만에 편승하여 지서를 습격하고 경찰에 테러를 감행하였으며 미군정은 경찰과 우익단체를 동원하여 이에 강경 대응함으로써 무력 충돌 양상은 점점 심화되어 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민들의 절대 다수는 경찰과 우익단체에 등을 돌린다. 이에 기세를 올린 남로당 제주도지부는 48년 2월 7일 미제축출(美帝逐出)과 남한 단독선거에 반대하는 구국(救國)투쟁을 전개한다.³²⁾ 이 시기에 일부 도민들은 일본군이 남긴 무기들로 무장하여 각 행정구역별로 자위대(自衛隊)를 편성한다. 행정력을 잃은 미군정은 서북청년단³³⁾ 대동청년단 등의 우익단체³⁴⁾가 주민들을 상대로 벌이는 만행을 목인하여 치안 부재상태가 발생하고 도민들은 경찰뿐만 아니라 우익단체와의 충돌도 불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한편 행정구역별로 편성된 자위대는 산 속에 거점을 확보하고 무장봉기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 훈련을 개시하고, 국방경비대 내에서 김달삼(金達三), 조몽구(趙蒙九), 문상길(文相吉) 등이 모여 4·3 무장 봉기 계획을 수립함³⁵⁾으로

30) 양한권(1988), 앞의 책, p.p 84~85.

아라리연구소(1988), 앞의 책, p. 136.

31) 제주도에서는 '6·6 사건'으로 불린다. 경찰은 관련자 30여 명을 체포하여 구금하였다.

32) 제민일보 취재반(1998), 앞의 책, p. 538.

33) 도민들의 서북청년단에 대한 인식은 '악독한 이북내기'라는 부르는 한마디에 함축되어 있고'(박명림(1988), 앞의 책 p. 64), '서북청년단이라면 울던 아이도 눈을 크게 뜨고 숨을 죽일 정도'로 공포의 대상(김석범(1988), 화산도 제1권, 실천문학사, p. 23.)이었다.

또한 자신들 스스로도 '피비린내 나는 살상, 바로 그 연속이 서청의 역사였다. (문봉제;서북청년단 2대위원장, "서북청년회", 중앙일보,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1972. 12. 21.)고 기록하고 있다.

서북청년단에 대해서는 '제주 4·3 항쟁과 우익청년단', 『제주 4·3연구』 역사연구소 외, 앞의 책, pp 205~237 참조.

34) 당시 제주도의 우익단체의 구성과 활동에 대해서는 제민일보 취재부의 『4·3은 말한다』 1권 p.p 147~ 151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35) 김점곤(1983), 앞의 책, p. 144.

서 바야흐로 제주도 전역은 긴장에 휩싸인다.

3) 제3기 : 폭발기(1948. 4. 3 ~ 1948. 8. 14)

무장자위대가 무장봉기를 일으켜 미군정과 우익단체에 타격을 가하고 5·10 단독선거를 저지하는데 성공하나 관망하던 경비대(警備隊)가 5월 이후 토벌에 참가하고 무장자위대가 주민들에게도 행동수칙을 준수하지 못해 민심이 이반(離反)되어 가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4월 3일부터 5·10 선거를 전후하여 유격대의 공세가 성공하고 단독선거를 저지시킨 전기(前期), 경비대가 토벌에 참여하고 유격대와 대중이 분리되기 시작한 5월 이후의 후기(後期)로 나누어 살펴 볼 수도 있다.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를 기해 무장대(武裝隊)가 도처의 오름에서 봉화를 올리고 일어나 14개 지서를 습격하고 관공서 및 서북청년단, 대동청년단 등 우익 단체들에 대해 기습을 감행함으로써 산발적으로 벌어지던 무력충돌은 도 전역에 걸쳐 전면전의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반미, 단독선거 반대,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며 동시에 일어난 무장봉기(武裝蜂起)는 일단 공세에 성공하고 도민의 지지를 획득한다. 남로당 제주도당은 4월 15일 도당대회를 통하여 자위대를 해체하고 인민유격대³⁶⁾로 편성하여 당(黨)과 유격대(遊擊隊), 대중(大衆)으로 분리하여 효율적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5·10 선거를 저지하는데는 성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편은 유격대가 대중과 분리되고 투쟁과정에서 도민들의 생존을 지켜내지 못하고 주민들에 대해서도 숙청을 감행하여 민심이 이반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아라리연구소(1988), 앞의 책, p. 154.

양정심(1999), '주도세력을 통해 본 4·3 항쟁의 배경', 『제주 4·3 연구』, 역사연구소 외 p.p. 90~95에서 정리.

당시 남로당에서도 무장봉기 계획이 수립되는데 48년 2월 중 구좌면과 조천면 지역을 오가면서 약 보름동안의 회의를 거쳤고, 신촌에서 최종회의가 열렸는데 무장투쟁의 시점을 둘러싼 강경파(김용관, 김달삼, 강규찬, 김대진 등)와 온건파(안세훈, 조몽구, 김용해 등) 간의 노선 갈등이 있었다.

36) 인민유격대는 3·1 지대(제주, 조천, 구좌-지대장 이덕구), 2·7 지대(애월, 한림, 대정, 안덕, 중문-지대장 김봉천), 4·3 지대(서귀, 남원, 성산, 표선-지대장 조몽구) 등 3개 연대와 경찰을 담당하는 특공대, 자위대 내부의 기강확립을 담당하는 특경대, 사상교양을 담당하는 정치소조 등 3개 독립대로 편성하였다.

토벌대(討伐隊)와 유격대간의 싸움을 경찰과 주민과의 대립이란 생각으로 토벌에 참가하지 않던 경비대³⁷⁾는 김익렬(金益烈) 연대장과 김달삼 간의 4·28 회담³⁸⁾을 통해 세 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하고 평화적인 사태의 해결을 모색한다. 그러나 경찰의 방해로 결렬되어 항쟁의 유혈사태(流血事態)는 필연적으로 도래하게 되었다.

1948년 4월 28일 구억국민학교에서 있었던 4·28 회담에서부터 5월 6일 김익렬 연대장의 해임에 이르는 9일간은 4·3의 유혈화를 결정 짓는 중요한 일들이 일어난다. 4월 29일 딘(W.F.Dean) 군정장관(軍政長官)이 내도하여 평화적 해결보다는 토벌로 정책이 선회되고, 5월 1일 우익단체들에 의해 오라리 방화사건³⁹⁾이 일어난다. 이어 5월 3일 4·28 회담의 합의 사항에 의해 미군과 경비대의 인솔 아래 산에서 내려오던 귀순자 대열을 향해 경찰이 중기관총으로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여⁴⁰⁾ 회담은 깨어지고 만다. 5월 4일 제주에 내려왔다 귀경한 경무부

37) 장창국, “육사동기생들~4·3 폭동”, 중앙일보, 1983. 1. 14~ 1. 21 연재.

김점곤(1983), 앞의 책, p.164.

J. Merill(1980), *op. cit.*, p. 161.

박명립(1988), 앞의 논문, p. 93.

38) 4·28 평화회담에 대한 것은 당시 회담에 직접 참여했던 김익렬 유고록이나 부관으로 호위했던 이윤락의 증언을 바탕으로 상황이 정리되고 있다. 장창국의 기술이나 제민일보 취재부의 조사, 여러 논문에서의 설명도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무장대 책임자와 경비대 최고 수뇌간의 이 평화회담에서는 첫째, 72시간 내에 전투를 중지하되 산발적인 충돌은 연락이 미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할 것, 둘째, 점차적으로 무장을 해제하되 이를 어기면 즉각 전투에 돌입, 셋째, 앞의 합의 사항이 이루어지면 주도자들의 신변보장 약속 등 세 가지 합의를 이끌었다. 회담에 참여했던 이윤락 부관(당시 중위)은 제민일보 취재반과 함께 한 현장답사에서 이 회담의 합의사항이 지켜졌다면 대규모 유혈사태는 없었을 것이라 증언하고 있다.

김익렬 유고록은 제민일보 취재반의 앞의 책 2권 p.p 111~147에 원문 그대로 실려 있어 상세히 살펴 볼 수 있다.

39) 오라리 방화사건은 4·28 평화회담 직후인 5월 1일 대동청년단에 의해 오라리 마을이 모두 방화된 사건을 말한다. 그런데 미군은 이날 방화사건이 날 것을 미리 알았는지 미군 헬기에 의해 공중 촬영하여 4·3 기록 영화(May Day in Cheju)의 주요부분을 채운다. 당시 미군정에서는 우익단체의 소행이라는 경비대의 조사결과를 묵살하고 무장대의 소행이라는 경찰의 거짓보고를 수용하는데 주민들의 증언이나 상황은 경비대 측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음을 말해준다.

40) 5·3 기습사건은 4·28 회담의 약속 이행을 위해 9연대 소속 병사 7명과 미군 병사 2명의 인솔하에 산에서 귀순하는 무장대를 향해 정체 불명의 괴한들이 총기로 난사하여 사상자를 발생시킨 사건. 이 사건으로 회담은 완전히 결렬되고 다시 습격과 테러가 재개됨. 당시 상황을 경비대 측에서는 경찰과 서청의 소행으로(김익렬 유고) 조사하여 보고했으나 미군정은 무장대의 소행으로 파악함. 정황으로는 김익렬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음. 자세한 내용은 김익렬의 유고나 제민일보취재부의 앞의 책 2권 p.p 184~188

공보실장 김대봉(金大峰)이 폭동을 일으킨 자들은 외부 세력이 아닌 제주도민임을 분명히 밝히는 기자회견⁴¹⁾을 하였으며, 5월 5일 딘 장관의 주제로 9인 수뇌회의(首腦會議)⁴²⁾가 열리고 여기에서 무력토벌이 결정된다.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던 김익렬 연대장은 5월 6일 해임되고 한 달 남짓 후에 부하에게 피살되는 박진경(朴珍景) 중령이 후임 연대장이 된다.

박진경 연대장이 부임으로 토벌의 주도권은 경찰에서 경비대로 옮겨가고⁴³⁾ 경비대와 교전을 피하려던 유격대는 박진경 연대장을 암살⁴⁴⁾하는데 성공하나 이 결과로 경비대에 있는 지지세력이 숙군작업(肅軍作業)으로⁴⁵⁾ 소멸되어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된다. 더군다나 8월에 들어서는 김달삼을 비롯한 유격대 지도부가 해주 인민대회(人民大會)⁴⁶⁾ 참석을 이유로 섬을 빠져나감으로서 유격대의 조직력이 약화되고 유격대는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싸움도 힘에 부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참고할 것.

41) 조선일보 1948. 5. 6 : 제민일보(1998), 전계서, 2권 p.94에서 재인용.

기자회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폭동에 팔로군이 참가하였다는니 기관총을 갖고 있었다는니 하는 풍설이 있으나 그것은 전혀 낭설이고 폭도들은 제주도민이고 그 수효는 약 300~400 명으로 추측된다.’

42) 4·28 회담 후 불과 일주일만에 열린 이 회의는 4·3의 전개과정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평화적 해결보다는 강경 진압으로 토벌 방향이 바뀌었으며 김익렬과 조병옥이 다툼으로 김익렬이 해임되고 미군정의 의도대로 강경 진압을 수행할 박진경이 연대장으로 부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수뇌회의에는 군정장관 딘 소장, 민정장관 안재홍, 경무부장 조병옥, 경비대 사령관 송호성, 제주군정장관 맨스필드 대령, 제주도지사 유해진, 9연대장 김익렬, 제주감찰청장 최천, 통역관 김모 씨 등 제주도 사태를 결정할 수 있는 최고위급들이 모두 참여했다. 이 회의에서 조병옥은 강력하게 강경 진압을 주장함으로써 미군정의 정책에 따라 4·3을 유혈의 사태로 몰고 가는데 앞장선다.

43) 박명립(1988), 앞의 논문, p. 121.

44) 박진경 암살 사건은 김익렬의 후임으로 9연대장이 된 박진경이 무자비한 대토벌의 공로로 대령으로 승진한 뒤 축하연에서 만취상태로 돌아와 숙소에서 잠을 자다 당번병에 의해 사살된 사건. 박진경의 강경 진압작전 수행에 흡족한 딘 소장은 친히 내려와 대령 계급장을 달아 주었음. 9연대 내 문상길 중위의 계획에 의해 저질러진 사건으로 이들의 재판 기록이 공개되었음. 자세한 내용은 제민일보 앞의 책 참고.

45) 제민일보취재부(1998), 앞의 책 4권, p.p 121~132.

숙군작업은 경비대 내에 있던 좌익세력을 소탕하기 위한 명분으로 여수 14연대의 반란 이후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제주에서는 송요찬 연대장이 이를 주도했는데 제주 출신 군인들이 많이 희생되었고, 옥석을 가리지 않고 무모하게 진행되었으며 죄도 모른 채 죽어간 군인들이 많았음이 생환자의 증언을 통해 밝혀졌다.

46) 해주대회는 남한의 단독정부수립에 대해 인공을 창설하기로 하고 국회의원 격인 최고인민위원회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대회로서 1948. 8.21부터 8월 27일까지 일주일간 열렸다. 남한에서는 1,080 명이 참여 예정이었으나 1,002 명이 참가하였고 제주도에서는 안세훈, 김달삼, 강규찬, 이정숙, 고진희, 문등용 등 6 명이 참가하였다.

4·3 무력항쟁은 이 때에 들어서는 산에 올라간 유격대와 이에 동조하는 주민들의 비조직적인 형태의 투쟁으로 전개된다. 유격대와 주민들간의 괴리(乖離)도 생겨 주민들은 군과 경찰, 서북청년단 등 우익단체 뿐만 아니라 유격대로부터도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어려운 지경에 봉착한다.

이 시기는 도민의 불만과 불안, 극도로 악화된 미군정과 우익단체들에 대한 저항의식이 남로당의 조직과 결부되어 전면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한 시기이다. 그러나 유격대는 도민의 생존을 지켜주지 못했으며 핵심 간부들마저 중요한 시기에 빠져나감으로서 주민들의 지지를 점차 상실하고, 경비대가 토벌대의 주축으로 전면에 나서는 시기이다.

4) 제4기 : 수난기(1948. 8.15 ~ 1949. 5. 15)

4·3 항쟁 기간 중 처참한 학살과 테러가 자행되고 무고한 양민들이 많은 인명 피해를 낳은 시기이다.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지만 단독정부라는 결함을 안고 출범한 이승만 정부는 반공의 이념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고 토벌작전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 이에 유격대는 산으로 올라가 주로 밤에 활동하고 토벌대는 낮에 토벌을 감행함으로써, 주민들은 낮에는 토벌대에게 밤에는 유격대에게 시달리면서 긴 질곡의 수난기로 접어든다.

48년 9월에 들어서 대중의 지지가 약화된 유격대의 수는 불과 수백 명 정도였는데⁴⁷⁾ 이승만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토벌을 감행한다. 빨갱이 소탕이란 미명 하에 해안부락을 제외한 중산간 부락에 소개령(疏開令)⁴⁸⁾이 내려

47) 아라리연구소(1988), 앞의 책, p. 166

48) 중산간 마을은 산으로 올라간 유격대들의 식량과 옷 등의 보급처가 되어 소탕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한 토벌대는 이미 48년 5월 경부터 중산간 마을에 대한 소탕작전을 전개했으며 한라산을 동서로 관통하는 작전을 전개하기도 한다. 동년 10월 17일 당시 송요찬 9연대장은 해안에서 5km 이상 지역에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자는 사살해도 좋다는 포고문을 발표한다. 이는 제주도 중산간 부락 거의 모두 해당하며 전 시에도 극한 경우나 발동하는 즉결심판권을 토벌대원에게 부여한 것이다.

소개령이 언제 내려졌느냐에 대한 논란은 있다. 대부분의 공식기록(제주연감 창간호를 인용)에는 1949년 2월 11일에 내려진 것으로 되어 있으나 중산간 부락의 리지, 마을지, 향토지들은 자기 마을에 소개령이 내려진 시기를 48년 10월부터 각각 다르게 기록하고

지고 295개의 자연부락 1만 여 가옥이 약 6개월에 걸쳐 불에 타 없어지고 지금도 확실하게 그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억울하게 죽어간다. 소위 삼광작전(三光作戰) 또는 삼진작전(三盡作戰)⁴⁹⁾이 이 시기에 펼쳐지는데 이와 같은 무모하리 만치 강경한 진압은 필연적으로 억울한 인명의 피해를 불러오게 되었다. 한 마을이 낮에는 토벌대, 밤에는 유격대에 시달리면서 주민들은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고 스스로 생명을 보전할 수밖에 없었다. 48년 10월 18일 해안 봉쇄령(封鎖令), 10월 19일 제주에 파견하려던 여수 14연대에서의 반란사건⁵⁰⁾, 11월 17일의 계엄 선포⁵¹⁾ 등으로 흔히 초토화작전(焦土化作戰)⁵²⁾으로 불리는 토벌작전이 전개된다. 군과 경찰에 의해 저질러진 학살의 잔혹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다만, 수만 명이 죽게된 것은 그만큼 국제적으로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집단학살이 이 시기에 많았다는 증거이다.⁵³⁾

한편 유격대는 토벌대의 강압적 진압과 선무공작에 의해 점차 고립되어가고 무기창고와 탄약보급고 등이 발견되면서 무력투쟁역량이 약화되어 산발적인 기습공격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토벌대가 상황의 주도권을 쥐게 됨에 따라 도민들은 살아남기 위해 서북청년단원에게 딸을 시집보내거나 서북부녀자(西北婦女子)들에게 채소, 무 등 농산물을 싸게 파는 경우도 생겼다.⁵⁴⁾

있고, 이미 48년 11월부터 많은 마을이 불타 없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49년 2월에 소개령이 내려진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미 48년 11월부터 중산간 마을이 소개되고 있었던 것이다.

49) 삼진작전은 태워서 없애고, 빼앗아서 없애고, 죽여서 없애는 초토화 작전이다. 무장대의 근거지가 될만한 것은 모두 불태워졌고, 무장대에게 도움될 물건은 다 빼앗았고, 중산간 지대에서 배회하는 자는 폭도배로 인정하여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살하는 무차별 작전이다.

50) 제민일보취재부(1998), 앞의 책, 4권, p.p 57~67에서 정리.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 제 1대대가 제주 4·3 진압을 위해 증파 명령을 받는데 동족을 살상하는 제주도 파견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이다. 이로 인해 대대적 숙군작업이 이뤄지고, 제주도 진압작전을 더욱 더 잔혹스럽게 만든 한 요인이 된다.

51) 김순태(1999), ‘제주 4·3 당시 계엄의 불법성’: 역사연구소의 앞의 책, p.p 177~179

당시 계엄령은 불법이었는데 이승만은 계엄법이 없는 상태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선포하고 12월 31일 해제하였다.

52) 초토화 작전은 공식적인 이름이 아니다. 48년 10월 이후 제주에서 벌어진 소개령, 해안봉쇄령, 삼진작전 등의 강경진압, 심지어는 한라산을 모두 불태워서라도 공비를 소탕하겠다는 식의 무차별 토벌작전과 대규모 학살을 통칭하여 연구자들이 후에 붙인 이름이다.

53) 서중석, ‘4·3의 역사적 의미’, 역사연구소 외, 앞의 책, p. 123

54) J. Merrill(1980), *op. cit.*, p. 185.

해를 넘겨 1949년이 되자 이승만 정부는 육·해·공 연합작전을 실시하여 제주전역을 토끼몰이 식으로 진압한다. 선무공작에 의해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도 토벌대에 의해 빨갱이로 몰려 많이 죽어 온전하게 남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은 토벌대에 대해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게 하고 산에 올라간 사람들의 가족들은 물론 많은 주민들이 토벌을 피해 다시 산으로 올라가게 한다.

2월에 들어서서는 각 마을마다 성을 쌓아 전략촌(戰略村)을 건설하고 한라산 수목의 벌채, 방화 등 유격대의 근거지를 없애 식량난에 허덕이게 만들었다. 3월에는 특수부대로 편성된 제주도 전투사령부(戰鬪司令部)가 설치되면서 유격대에 대한 토벌작전은 마무리로 치닫는다. 이에 유격대는 공세에 밀려 완전히 산으로 숨고 제주도 치안은 평정을 점차 회복하고 이승만이 제주도를 방문하여 항쟁이 진압되었음을 내외에 과시한다.⁵⁵⁾ 5월 10일 재선거(再選舉)가 이루어지고 5월 15일 전투사령부가 해체됨으로서 강경 진압 작전은 끝을 맺고 주민들을 상대로 한 재판과 처벌을 진행한다.

5) 제5기 : 이완기(1949. 5. 16 ~ 1953. 5월말)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유격대의 무력항거는 종식을 고하고 제주도민의 저항 의식은 안으로 삭여 가시적 항쟁이 종료되는 시기이다.

물론 이 시기에도 부분적인 무력 저항은 일어난다. 그러나 제주지구 유격대장이덕구(李德九)⁵⁶⁾, 성산 표선지구 조몽구⁵⁷⁾, 도유격대장 김성규(金成奎)가 처형 또는 살해됨으로서 유격대의 기세는 꺾인다. 정부의 선무 공작과 ‘유격대가 가는 곳마다 피를 흘린다’⁵⁸⁾는 피해 의식이 확산되면서 산에 올라갔던 양민들이 하산하고 잔여 유격대만이 고립되어 산에 남는다.

아라리연구소(1988), 앞의 책, p. 191.

55) 박명립(1988), 앞의 책, p. 169.

56) 초기 군사총책이었던 김달삼이 해주대회에 참석했다가 돌아오지 않음으로써 이덕구가 그 뒤를 이어 무장대 총사령관이 된다.

57) 조몽구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분분하다. 4·3 이후에도 살아있어 부산에 거주하다 51년 9월 체포되었다는 설도 있고, 당시에 처형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으며, 70년대까지 표선에서 살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필자는 이를 어디에서도 정확히 확인 할 수 없었다.

5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1967), 『한국전쟁사;해방과 건군』, p.449.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유격대가 경찰서와 서귀포 방송국을 습격하여 잠시 기세를 올리나 1951년 모슬포 육군 훈련소의 창설되고 경찰에 의해 전투사령부가 다시 편성되는 등 치안력의 강화로 성과 없이 끝나고 1953년 무지개부대⁵⁹⁾의 진압으로 잔여 유격대까지 소탕되어 무력적 항거는 완전 소멸된다. 유격대는 1957년 4월 2일 마지막 유격대원 오원권이 생포될 때까지 남아 있었다.

3. 4·3의 성격

제주도의 산야(山野)가 초토화되고 수만의 인명 피해를 낳으면서 제주도민은 왜 무엇 때문에 저항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이 4·3의 성격을 규정짓는 단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이 물음에 명쾌한 답을 내지 못한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연구 결과와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다음의 세 가지 정도는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4·3은 광복 공간에서의 반통일(反統一) 세력에 대한 저항이다.⁶⁰⁾ 이는 다시 말하면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지지했던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과 그것을 수행한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단독정부수립론(單獨政府樹立論)에 대한 저항이다. 이와 같은 성격은 봉기 구호를 통해서 명확히 드러난다.⁶¹⁾ 물론 당시 많은 제주

59) 무지개부대는 1953년 3월 2일부터 5월 말까지 약 3개월 간 잔여 유격대 소탕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는데 연대급 이상의 부대가 주둔한 것처럼 보이게 했으나 실지로는 80명 정도의 병력이었다. 무지개부대는 진압작전 종료 후 완전진압이 장기화된 가장 중요한 요인을 다음과 같이 들었다. 첫째, 경찰의 강압적 치안으로 인한 대민감정이 악화로 많은 입산자를 속출하게 하고 공비에 동조하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둘째, 서북청년단의 무차별 행동으로 양민을 공산분자로 만들었으며 셋째, 주둔부대의 문란한 군기 및 풍기로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한 것에 그 이유를 들었다.

60) 4·3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당시 제주도민 다수는 통일국가가 머지 않아 올 것이라 낙관하였고, 이것은 대다수 한국민의 정서였다. 심지어 이승만조차 그러한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다녔다. 당시 제주도민들이 바라던 통일은 소련과 김일성이 노리는 적화전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박한 민족적 당위성에 의한 차원이었다.

61) 제민일보취재반(1998), 앞의 책, 2권, p.p 91~94.
무장봉기의의 슬로건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경찰과 우익의 탄압에 저항하겠다. 둘째, 단선을 반대하고 조국의 통일 조국을 건설한다. 셋째, 미국의 진후 점령정

도민들이 이와 같은 정치 의식을 가지고 참여한 것은 아니다. 일상 생활 속에서 미군정과 단독정부 세력에 대한 강한 반발심과 주민 자치로 조직된 인민위원회에 대한 신뢰가 쌓였고 이를 바탕으로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옳은 일이란 것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있었다. 광복 후 우리 민족이 과제가 통일조국 건설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제시한 항쟁의 지도부를 지지한 것이다.

둘째, 4·3은 경찰과 우익단체의 만행과 폭거(暴擧)로부터 생존을 지키기 위한 항거이다. 이 점이 4·3을 민중항쟁이라 규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 점은 당시 토벌에 참여했던 대원이나 검찰청장이었던 이인(李仁)⁶²⁾, 종군기자였던 조덕송(趙德松)의 증언⁶³⁾이 뒷받침하고 있다. 광복 후 제주도에서 벌어진 상황, 특히 3·1절 시위사건 후 수천 명이 구속되는 상황은 혈연적 집단의식이 강한 제주도민이 항쟁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음을 말해준다. 또한 이 시기에 벌어진 경찰과 서청에 의한 만행은 도민들로 하여금 항쟁의 길로 나서게 강요하였다. 간혹 남로당 중앙당의 지시에 의해 무장 봉기가 발발했다고 인식하는 주장⁶⁴⁾들이 있으나 이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항쟁의 지도부가 자신들의 성과를 자랑하기 위해 해주 인민대회에 참여한 점, 제주도민 대다수가 인민위원회에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는 점⁶⁵⁾, 제주도의 지리적 공간과 본토와의 거리,

책에 대한 반미구국 투쟁이다.

62) 새한민보(1948) 2권 13호, p.11.

당시 미군정 검찰총장이었던 이인은 '시정방침에 신축성이 없다는 것과 관공리가 부패하였다.'는 것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았으며 '관공리의 인적 개편을 단행'함이 사건 해결의 열쇠로 보았다. 그의 이런 상황 인식은 사태를 비교적 바르게 파악한 것이다.

63) 조덕송(1948), '유혈의 제주도', 『신천지』 3권 6호, p.p 87~90.

4·3 초기 진압군 총사령관이었던 브라운 대령은 '사건의 원인에는 흥미 없다. 나의 사명은 진압뿐이다.'라고 언명하였다. '사건도 본관의 계획대로 간다면 약 2주일이면 평정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고 전해진다.

64) 당시 남로당 지하 총책이었던 박갑동의 주장으로 그동안 정부측에 의해 자주 인용되었다. 박갑동은 4·3을 다룬 저작자 가운데 유일하게 '남로당 중앙당의 폭동지령에 의해 4·3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1973년 중앙일보 연재물 '남기고 싶은 이야기'에서 다루었으며 책자로도 출간되었다. 당시 그의 위치 때문에 매우 신빙성 있게 전해졌고 교과서 기술의 근거로도 활용되었다. 그러나 그 후(1990. 6) 그는 입장을 바꿔 이를 부인한다. 제민일보 취재부와의 인터뷰에서 외부의 압력에 의해 그렇게 쓴 것임을 고백하였다.

제민일보취재부(1998), 앞의 책 2권, p.p 402~404에 그의 인터뷰 내용이 실려있다.

65) 당시 제주 인민위원회는 좌우 합작의 형태로 매우 온건하여 미군정 초기에는 서로 협조적이었다. 당시 도민이 80% 이상이 인민위원회를 지지하고 있었음이 대다수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당시 남로당의 투쟁노선(鬪爭路線)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설득력이 약하다.⁶⁶⁾

셋째, 4·3은 참혹한 수난사(受難史)이다. 특히 48년 5월과 6월 그리고 10월 이후에 벌어진 이른바 초토화 작전으로 인한 도민의 수난⁶⁷⁾은 글로 다할 수 없다. 4·3에 대한 피해는 인명과 재산 등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들에게는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가져왔다. 이웃끼리의 대립, 빨갱이로 몰린 억울함,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갈등과 반목(反目)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4·3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아직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⁶⁸⁾. 제주도의 회에서 반세기가 지난 다음에야 신고접수를 받고 있으나 이를 통해서 모두 밝혀지기는 무리이다. 무연고자(無緣故者), 레드 콤플렉스, 연고자 가족의 해외 탈출 등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그러나 일단 이 자료를 통해 미루어 생각해 보면 진상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표에서 보듯이 엄청난 희생, 그것도 대부분이 양민이라는 점과 4·3 발발 당시 정부기관의 보고에도 고작 400여 명⁶⁹⁾으로 보고된 무장 게릴라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최소 3만에서 8만까지 추정되는 인명의 피해를 어찌 설명할 것인가? 물론 유격대에 의한 희생자도 있었지만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더라도 희생자의 84%가 토벌대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⁷⁰⁾ 다시 말하면 정부군에 의한 희생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남로당 제주도지부를 중심으로 한 당시 지도부의 무모한 무장투쟁노선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나 그로 인하여 강압적 진압으로 사태를 악화시켜 대량학살을 자행한 세력에 대한 책임을 함

66) 김점곤(1983), 앞의 책, p. 142.

67) 비인간, 반인륜적인 만행의 사례의 예를 하나 들면, 48년 5월말 도두동에서 시아버지를 엎드리게 한 뒤 며느리에게 말타기를 시켰으며 시어머니도 엎드리게 한 뒤 다시 말타기를 시켰다.(홍문규의 증언, 제민일보 전계서, p. 33에서 재인용.)

68) 4·3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주한 미군사령부 1949년 4월 1일자 G~2(정보)보고서에는 1만 5천명이 살해당했고, 가옥이 1/3이 파괴되었다고 나와 있고, 김점곤의 『한국전쟁과 노동당 전략』에는 6만 명으로, 김봉현·김민주 공편의 『제주도 인민들의 무장 투쟁사』에는 7만 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박용후의 『제주도지』에는 4만 명으로, 제주도경찰국의 『제주경찰사』에는 27,719 명으로, J. Merill의 논문에는 3만 명 이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최소한 3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69) J. Merill(1980), *op. cit.*, p. 118.

역사연구소 외(1999), 앞의 책, p. 134.

70) 제주도의회 특별위원회(1997), 『제주도 4·3 피해 조사 보고서 : 수정 보완판』, p.27.

계 매몰되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

표1. 지역별 사망자 접수 현황⁷¹⁾

지역별 피해	피해조사 현황			지역별 피해	피해조사현황				
	신고자 수(명)	미신고자 수(명)	계 (명)		신고자 수	미신고자 수	계		
제주시	3,384	699	4,083	서귀포시	1,197	165	1,362		
북제주군	구좌읍	710	223	933	남제주군	대정읍	546	98	644
	조천읍	1,611	344	1,955		안덕면	635	132	767
	애월읍	1,258	333	1,591		남원읍	866	236	1,102
	한림읍	567	66	633		표선면	693	192	885
	한경면	375	66	441		성산읍	393	44	437
	추자면		1	1		계	12,243	2,601	14,844
	우도면		2	2					

*미신고자 수는 파악은 되고 있으나 유족으로부터 접수가 안된 경우임.

표2. 가해자 유형별 사망자 수⁷²⁾

계	토벌대	무장대	기타	분류불능	토벌대/계
12,243	10,277	1,353	209	404	83.94 %

당시 제주도민은 항쟁을 통해 통일정부를 갈망하는 민중의 의지를 대변해 주었고, 이 점에서 4·3은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것이다.⁷³⁾

4. 4·3 교육의 필요성

초등학교 어린이들도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4·3을 접하고 있다. 해마다 4월이 되면 주변에서 4·3과 관련한 이야기를 듣고 행사에도 참여하기도 한다. 4·3

71)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2000), 『제주도 4·3 피해조사 보고서』 2차 수정 보완판을 토대로 필자가 정리한 것임.

72)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2000), 앞의 책에서 정리.

73) 양정심(1995), 앞의 논문, P. 96.

은 이미 학교 밖에서는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歷史的事實)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정상적인 학습을 통해 4·3을 배우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자칫 또 다른 불행의 싹을 키우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이들이 공개적으로 접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4·3 교육은 외면되어 온 측면이 있다. 이제는 아이들에게 역사적 사실 접근의 차원에서라도 4·3을 말해 주어야 한다. 4·3 교육은 이런 소박한 욕심만으로도 그 필요성이 매우 인정된다.

역사적 측면에서도 4·3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먼저, 광복 공간에서 한국전쟁의 종식에 이르는 현대사의 서막을 관통하는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데 4·3이 주는 단서는 매우 의미 있다. 반탁(反託)과 신탁(信託), 단독정부수립론(單獨政府樹立論)과 통일정부수립론(統一政府樹立論)의 대립, 미국과 소련의 의도-특히 남한에서의 미군정의 정책, 친일파의 척결의 실패, 한국전쟁의 발발 등 현대사의 주요 사건-를 이해하는 데 4·3은 의미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우리가 앞선 시기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후세들에 대한 바른 역사 교육은 필수적이다. 설령 그것이 부끄러운 역사라 할지라도 앞 시기의 오류와 과오를 밝히고 후세에 교육을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세대의 몫이며 역사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역사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과거에 있었던 사실은 부끄럽다고 하여 은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자랑스럽다고 하여 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거짓으로 역사를 꾸밀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에 대한 역사적 흐름에 반하여 일어난 것이라 외면하지 말고 역사적 사실로 자리 매김 하여 가르쳐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제주도에서 자행된 그러한 반 인륜(人倫), 반 인권의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역사적 교훈을 위해서 4·3 교육은 필수적이다. 한국사에 유례를 찾기 어려운 양민학살의 역사가 바로 4·3이다. 무장대에 의한 테러든 토벌대에 의한 집단학살이든 다시는 이 땅에서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국가 공권력(公權力)의 무모함에 대한 반성이 4·3 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광복 후 분단과정(分斷過程)에서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사태들에 대해 이성적으로 반성하지 않고, 그 일을 후세에 전하여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통일과정에서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게 될지도 모른다. 나치의 폐해를 일깨워

다시는 자신들의 역사에서 그러한 홀로코스트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하는 독일인의 지혜를 배울 것인가 아니면 역사 왜곡을 통하여 자신들의 행위에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일본의 오만과 파렴치함을 배울 것인가?

다음으로 그간의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아 4·3을 한국 현대사에 바로 세우고 제주도민의 한을 씻어 내기 위해서 4·3 교육은 지금 바로 시작되어야 한다.

특히 4·3은 한 쪽의 시각을 일방적으로 주입 당해왔던 그 간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제 더 이상 늦추거나 미룰 수 없다. 교과서를 집필한 학자들조차 현재의 연구 성과를 외면하려고⁷⁴⁾ 한 쪽의 시각으로 교과서를 기술하였다.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는 ‘공산주의자들은 5·10 총선거를 전후해서 단독 정부를 반대한다는 구실로 남한 각지에서 유혈사태를 일으켰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발생한 제주 4·3 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의 5·10 총선거를 교란시키기 위하여 일으킨 무장 폭동으로서, 진압과정에서 무고한 주민들까지도 희생되었으며,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는 총선거도 실시되지 못하였다.’⁷⁵⁾고만 쓰여 있다. 교사용 지도서에는 이와 관련하여 한 마디 부연 설명도 없다. 이렇게 잘못된 역사 인식으로 인해 숨죽이고 안으로 삭여 왔던 도민들의 응어리를 풀기 위해서도 4·3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다.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학자들의 몫이라면 이를 바탕으로 후세에 전하는 것은 교육자들의 몫이다.

특히 초등학교에는 향토사(郷土史) 단원이 설정되어 4·3을 다루기가 어렵지 않음에도 외면되었다. 공교육에서는 중·고등학교에 가서야 간략히 기술되었고, 초등학교의 경우는 한국사 단원은 물론 향토사 관련 단원에도 일절 언급이 없다. 불과 반세기 전에 이 땅에서 벌어진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임에도 이 땅의 아이들에게는 접근할 기회조차 없었다. 현대사(現代史)가 고대(古代)·중세(中世)·근

74) 제민일보 취재반(1998), 앞의 책 2권, pp. 409~413.

놀라운 사실은 국사교과서 집필자들이 한결같이 오류투성이의 관련 자료를 주로 인용, 교과서의 글을 쓰고 있으며 최근의 4·3 연구 동향과 성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점이다. 여기에 4·3 교육의 심각한 문제가 내재한다.

75) 국사편찬위원회(2000), 『고등학교 국사』, 교육부, pp. 196-197.

한국방송교육원(2000), 『EBS TV 국사』, (주) 교평, p. 199에는 공산폭동으로 제주도 4·3을 기술하고 있고, 주경식, 이경삼, 이정환(2000), 『수능 국사』 교사용, (주) 교평, p.208에는 공산주의자들의 남한 교란으로 제주도 4·3 사건을 기술하고 있다.

대사(近代史)에 비해 소홀히 취급되어 온 그간 역사 교육의 경향으로 치부될 수도 있으나 불과 반세기 전, 그것도 역사의 현장을 겪은 당사자들이 살아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죄악이다.

이제 4·3은 초등학생들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드러난 역사이다. 따라서 다시는 그러한 테러와 학살, 반 인륜, 반 인권적인 상황이 그 어떤 경우에도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豫防的) 차원에서,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많은 인명의 피해가 있었음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것에 대한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그동안 말뚱하고 숨 죽여 있던 도민들의 한과 응어리를 풀어 주는 인도주의적(人道主義的) 차원에서, 화해와 용서를 바탕으로 한 도민화합(道民和合)을 위해서도 이제 4·3 교육은 시작되어야 한다.



Ⅲ. 관련 단위에서의 4·3 학습

초등학교 사회과 역사 단위에서 4·3 관련 학습은 통사학습(通史學習)을 하는 과정에서 본시 학습내용과 관련이 있는 유적이거나 내용을 적절히 배치하여 본시 학습의 목표와 일관성을 유지하며 전개해 나가는 분산적(分散的) 접근과 4·3을 하나의 주제로 특설단위(特設單元)을 설정하여 탐구하도록 하는 주제접근법(主題接近法) 등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중 관련 단위 학습과정에서 시도할 수 있는 분산적 접근법에 의한 4·3 교육은 한국사 통사학습이 이루어지는 6학년, 지역화 단원이 설정된 3~4학년 향토사 교육과정에서 10~20분 정도로 학습내용을 보충, 심화시키고 학습의 흥미를 향상시키는 데 매우 용이하다.

분산적 접근에 의한 관련 단위에서의 학습은 초등학교의 경우 향토사 관련 단위에서 3회, 한국사 통사학습 과정에서 2회 등 5회 정도 실시할 수 있다. 이 중 3~4학년 향토사 관련단위에서의 학습은 4·3 연구소와 유적(遺蹟) 소개가 이루어지고 6학년 통사학습 과정에서는 4·3의 개요(概要)와 대규모 학살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 분절투입(分節投入)인 점을 고려하여 교수-학습 과정안이 필요한 경우는 교사용 지도서를 인용하여 소개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학습내용 주안점과 학습할 내용만을 참고 자료로 자세히 소개하였다.

1. 초등학교 사회과 4·3 관련 단위

표3. 초등학교에서 4·3 자료 활용 단위⁷⁶⁾

학년	교과	단원	소단원	차시	학습주제	투입내용
3	사회	3. 살기 좋은 우리 고장	1. 우리 고장의 여러 기관과 단체	5/14	고장의 단체	제주 4·3 연구소

76) 교육부(2001), 『초등학교 교사용지도서 사회』, 3-6학년(6학년인 경우는 실험본) 내용을 분석하여 필자가 정리함.

4	사회	1. 문화재와 박물관	2. 박물관 견학과 문화재 답사	12/18	고장의 문화재	4·3 위령탑
4	사회	1. 문화재와 박물관	2. 박물관 견학과 문화재 답사	16/18	문화재 홍보자료 만들기	백조일손지묘
6	사회	3. 대한민국 발전	2. 대한민국의 성립과 발전	7/14	정부수립 과정의 한 사건	4·3의 개요
6	사회	3. 대한민국 발전	2. 대한민국의 성립과 발전	8/14	한국 전쟁의 영향	예비검속과 첫알오름 학살

2. 분산적 접근에 의한 4·3 학습

1) 3학년 2학기 : 3-1-(2) 고장의 단체(5/14차시)-제주 4·3 연구소

(1) 학습목표 : 고장의 발전을 위해 힘쓰는 단체와 단체에서 하는 일을 예를 들어 말할 수 있다.

(2) 본시 지도 계획⁷⁷⁾

단계	학습주제	교수 - 학습 활동		자료,시간
		주요 학습 내용 및 활동	학습 방법	
도입	고장의 여러 단체	*전시학습 -고장의 여러 단체 알아보기 -단체에서 하는 일 -부모님이 가입한 단체 *학습목표 확인 - 고장의 발전을 위한 단체에서 하는 일과 내가 커서 가입하고 싶은 단체를 말할 수 있다.	일제 학습	학습CD 전시 학습 결과물 자료제시 (5분)

77) 교육인적자원부(2001), 전계서, 사회 3-2, p.179의 내용에 제주 4·3 연구소 관련 내용을 첨가함.

전개	고장 발 전을 위 한 단체 내가 가입하고 싶은 단체	* 고장의 발전을 위한 단체 알아보기 - 봉사단체, 시민단체, 연구소 - 여러 단체 사례 모으기 * 여러 단체들이 하는 일 - 봉사단체에서 하는 일 - 시민단체에서 하는 일 - 연구소에서 하는 일 (제주 4·3연구소) * 내가 가입하고 싶은 단체 - 단체의 성격과 하는 일 - 가입하고 싶은 이유	조별 조사 학습 개별 학습 선택 학습	사진, NIE 자료 예화 제주 4·3 연구소 읽기 자료 투입 (20분) 심화조사 (10분)
정리	단체의 활동 평가	*단체활동의 이로운 점 *고장을 위해 할 일 *가입하고 싶은 단체를 이유를 들어 말할 수 있는가?	전체 학습	(5분)

3) 참고자료 : 제주 4·3 연구소

제주 4·3 연구소는 4·3 문제를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통하여 우리 역사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모임으로 1989년 5월 10일 문을 열었습니다.

4·3을 오늘의 제주도에 국한시키지 않고 우리나라 전체의 민주화, 민족자주화, 조국통일의 문제로 접근하여 총체적으로 풀어 나가는 실마리로 다루고자 하는 이 연구소는 전반적인 조사와 자료 수집, 연구, 교육, 추모사업, 자료발간 등을 그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목적에 공감하고 규약을 성실히 준수할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연구소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각종 연구와 이와 관련한 행사, 연구소에서 나오는 자료와 정보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회원이 되면 일정한 재정적 부담(회비)을 가져야 하나 액수는 많지 않아서 4·3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면 가입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연구는 주로 대학교수나 4·3 연구자들이 맡고 있으며 일반 회원은 연구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고 자료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 간 4·3의 연구 성과가 현재에 이르게 된 바탕에는 4·3 연구소의 노력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증언 채록과 유적발굴 및 답사, 자료발굴, 문제의 제기 등이 연구소의 연구 성과가 없었으면 4·3의 논의가 현재와 같이 진행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4·3 당시의 1차 자료의 발굴과 재정리에서부터 증언 모음집, 학술연구지 발표, 4·3 관련 논문집 발간 등 어려운 시기에 많은 고통을 감내하며 4·3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4·3 연구자들에게 의미 있는 자료를 많이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92년 제민일보를 통해 충격적으로 발표된 다랑쉬 굴의 유골 발굴은 이 연구소의 오랜 추적과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제주 4·3 연구의 업적 뒤에는 제민일보 취재반의 『4·3은 말한다』의 발간과 그에 따른 자료의 공개가 큰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나 4·3 연구소의 업적도 이에 못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 4학년 2학기 : 1-2-(2) 고장의 문화재(4·3 위령탑)

1) 단원 소개

이 차시는 문화재 현장학습 단원의 답사를 다녀오는 차시이다. 교육과정상의 편성은 40분으로 되어 있어 답사가 불가능함으로(인터넷을 통한 접속은 가능하다) 사전에 개별로 현장학습을 다녀 온 후 이를 바탕으로 조사 발표하는 수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개인별로 진행되는 문화재 현장학습은 교사가 계획적으로 의도하여 다양한 사례가 발표될 수 있도록 진행됨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4·3 관련 기념 조형물이나 유적을 답사하게 하여 발표를 유도하는 것은 4·3을 접해보지 못한 아이들에게 많은 흥미를 유발하게 할 것이다. 4·3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하거나 뒷 절에서 다룬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으나 4학년인 점을 고려하면 제주시권 학습자는 4·3 위령탑(慰靈塔), 안덕면 대정읍권 학습자는 백조일손지묘(百祖一孫之墓), 남원읍권 학습자는 의귀 현의합장묘(玄義合葬墓), 성산읍 구좌읍권은 다랑쉬 마을 유적, 조천읍은 낙선동 성터가 가장 무난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잃어버린 마을 터나 전략촌 성터가 그 주변에 있으면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뒷 절의 4·3 유적과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참조하고, 소개되지 않은 4·3 위령탑에 대해서만 정리한다.

2) 학습자료 : 4·3 위령탑

4·3 위령탑(慰靈塔)이라 말하나 엄밀히 말하면 4·3 해원 방사탑(防邪塔)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방사탑은 원래 말 그대로 사악한 것을 막는 탑인데 제주도에서는 마을의 경계나 허한 부분에 세워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액과 사악함을 막는 의도에서 세웠습니다. 마을에 부정한 일이 생기면 방사탑을 쌓아 나쁜 기운을 막는 풍습이 우리 고장에서는 예로부터 내려왔습니다.

현재 제주시 신산공원 입구에 4·3 해원 방사탑이 세워져 있는데 이 탑은 ‘제주 50주년 제주 4·3 학술·문화사업 추진위원회’가 4·3으로 인한 제주공동체의 파괴와 도민들의 갈등을 치유하고자 4·3 50주기 첫날인 1998년 4월 3일 ‘한 사람 한 돌 쌓기’로 시작하여, 4월 18일 밑바닥 가로 4m, 높이 6m 50cm 2단 크기로 쌓고 맨 꼭대기에는 해원의 의미를 살려 원형석을 올려놓아(원래 방사탑 꼭대기에는 거옥대를 올려놓습니다.) 완성하였습니다. 또한 이 탑의 내부에는 도의회 4·3 피해 신고센터에 등록된 피해자 명단과 50주년 행사 자료를 높이 40cm 폭 30cm 크기의 단지에 밀봉하여 마치 타임캡슐처럼 보관하였습니다.

도(道) 차원에서 세운 4·3 관련 탑은 이것이 유일하고, 지역별로 세운 위령탑이 몇 군데 있으나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백조일손지묘에 세운 탑은 4·3 위령탑이라기보다 백조일손 위령탑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4학년 2학기 : 1-2-(3) 우리고장 유적 소개(백조일손지묘)

(1) 단원소개

이 차시는 문화재 답사 단원의 마지막 차시로 우리 고장의 문화재를 선택하고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자료를 제작하는 단원이다. 개인별로 문화재를 선택하여 홍보자료를 만드는 개인별 학습과정으로 진행된다. 4·3과 관련한 유적을 선택하여 다루기에 용이하다. 4·3 관련 답사 경험이 있는 학습자를 유도하여 자료를 제작하게 함으로서 학급내의 다른 학습자들에게 전이(轉移)가 가능하다. 그 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문화재를 소개할 때 개인별 선택이라 하더라도 4·3 관련 유적이거나 기념물이 선택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교사가 사전에 의도적으로 조직함이 바람직하다. 어찌되었던 현 상황에서는 교사의 의지가

4·3 교육의 성패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홍보 유적으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백조일손지묘를 예로 들었다. 그 이유는 4·3의 비극적 상황을 단적으로 표현 할 수 있는 유적이기 때문이다.

2) 학습자료 : 백조일손지묘

백조일손지묘는 첫알오름에서 예비검속으로 학살당한 132명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죽은 지 6년이 넘어서야 시신을 수습함으로써 시신을 구별할 수 없어 무덤에 비석을 세우지 못하고 중앙에 큰 위령탑으로 비를 대신하고 뒤에 132명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원래 비석이 있었으나 5·16 후 파괴되었고, 지금의 비석은 최근에야 다시 세운 것입니다. 4·3의 참혹함을 느낄 수 있는 유적으로 위령탑을 중심으로 유적소개 그림이나 첫알오름 학살과 이곳을 함께 묶어 관련 홍보자료를 만들면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뒷 절의 유적 소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4) 6학년 1학기 : 3-2-(1) (7/14차시)정부수립과정의 한 사건⁷⁸⁾

1) 학습목표: 대한민국 정부수립과정에서 발생한 중요한 사건과 역사적 인물에 대해 말할 수 있다.

2) 본시 지도 계획

단계	학습주제	교 수 - 학 습 활 동		시간,자료
		주요 학습 내용과 활동	학습방법	
도입	광 복 의 모습 학습문 제 인식	*우리 나라가 광복하게 된 이유 -내부의 독립운동 -연합군의 승리와 일본의 패망 *해방정국의 모습 -임시정부 요인들의 귀국 - 민족교육의 시작 * 정부수립과정에서 중요한 사건에 대해 알아보자.	설명 강의	OHP 학습 CD (10분)

78) 교육인적자원부(2001), 전계서, 사회 6-1, p. 222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함.

전개	대한민국 정부수립 과정 심층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정부수립과정 - 8·15 광복, 신탁통치 결정 - 5·10 총선거, 정부 수립 - 통일정부수립론과 단독정부수립론의 대결과 갈등 ☞ 4·3 관련 내용 투입 * 정부수립과정에서의 한 사건 - 제주도 4·3 * 김구와 이승만에 대한 시각 차 이해 - 5·10 선거에 대한 차이 - 단독정부수립에 대한 차이 * 김구와 이승만에 대한 토론 	설명 강의 분단별 조사 조사학습 토론학습	역사신문 학습CD 읽기자료 조사 과제물 (25분)
정리 평가	소감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감발표하기 - 해방정국, - 4·3에 대한 소감 * 정부수립과정에서 통일정부수립론(김구)과 단독정부수립론(이승만)의 차이를 말할 수 있는가? 		OHP (5분)

3) 읽기 자료 : 제주 4·3은 무엇인가요?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광복을 맞은 후 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을 거쳐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으로 남북이 분단되는 과정에서 우리 제주도에겐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1948년 4월 3일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냥 4·3이라 부르겠습니다.

일제로부터의 광복 후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이였을까요? 당연히 친일세력을 몰아내어 진정한 광복을 맞이하고, 한반도 전역과 우리 민족 모두가 하나로 뭉친 통일정부의 수립이었겠지요. 그런데 상황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38선 이남에는 미국이, 북쪽에는 소련이 2차 대전 승전국으로 진주하게 됩니다. 소련과 미국은 각자의 이해를 앞세워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일이 우리 민족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일정부의 수립도 쉽지 않게 됩니

다. 이런 틈바구니에서 민족지도자와 국민들의 생각도 여러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크게 김구를 중심으로 어떻게든 통일정부를 세우자는 사람들과 이승만을 중심으로 현실을 인정하고 남한만으로 단독정부를 세우자는 세력으로 나뉩니다. 이때 남한에 진주한 미국은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을 지원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려는 정책을 펠니다. 당연히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지요. 미국은 이런 세력들을 탄압합니다. 그래서 사회는 혼란스럽고 어지러웠고 남한을 신탁통치하는 미군정과 한국민 사이에는 잦은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런 와중에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가 1948년 5월 10일에 실시되게 됩니다.

한편 제주도민들은 광복이 되자 도민들 스스로 인민위원회를 조직하여 일본의 패망으로 인한 행정조직을 대신하려 합니다. 이런 와중에 뒤늦게 제주도에 들어온 미군은 처음에는 인민위원회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점차 그들의 뜻대로 정책을 펴 육지와 마찬가지로 제주도민들과 충돌이 생깁니다. 그러던 중 1947년 3월 1일 미군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3·1절 집회가 열립니다. 제주도에서도 많은 도민들이 모여 3·1절 기념식을 갖습니다. 이를 막으려는 경찰과 도민과의 충돌 중에 경찰의 쏜 총에 사람들이 죽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 날을 계기로 상황은 더 악화되고 충돌이 더 심해집니다. 이 후로 미군정에 저항하는 도민들을 경찰이 검거하려 하자 많은 도민들이 이를 피해 산으로 숨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경찰은 물론 미국과 이승만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제주도민에게 나쁜 짓도 종종 저질러 도민들의 반감을 사기도 합니다. 이 와중에 단독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5월 10일 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집니다. 통일정부를 원하는 제주도민들은 이를 지지하고 그 동안 못살게 굴었던 경찰에 보복하기 위해 산에 올라갔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경찰 지서와 그동안 도민들을 못살게 군 단체를 제주도 전역에 걸쳐 습격합니다. 그 날이 1948년 4월 3일입니다. 그래서 이를 4·3이라 합니다. 4월 3일 밤에 제주도 여러 오름에 불을 피우고 이를 신호로 동시에 습격한 것이지요.

처음에는 성공을 거두는 듯 했으나 미군정과 경찰, 이승만을 지지하는 단체, 심지어는 군인들까지도 이 사람들을 토벌하는데 참여함으로써 산에 올라갔던 사람들은 점점 어려움에 닥치게 됩니다. 또한 마을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고통이 가해져 사람들은 이를 피해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간 사람들은 본부를 만들고 훈련을 하다가 밤이 되면 무기를 가지고 내려와 공격을 합니다. 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산사람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일으킨 폭동이라 생각한 이승만 정부(8월 15일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는 도민들을 향해 강하게 탄압합니다. 산에 올라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봐 중산간 마을을 불태우고, 산과 들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쏘아 죽이고, 산사람에게 음식이나 옷가지들을 주었다고 한 마을 사람들 대부분을 처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공포스러운 날이 계속되니까 어린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은 동굴 속이나 숲 속에 숨어 두려움에 떨게 되지요. 마을에 남아 있는 사람들도 고생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에는 산에 올라간 사람들이 내려와 뭘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낮에는 군인과 경찰들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억울하게 죽기도 합니다. 제주도민들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생활을 겪습니다. 캄캄한 동굴 속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몇 달을 살고, 언제 끌려가 죽을지도 모르는 공포 속을 헤매게 됩니다. 심지어는 재판을 받고 풀려난 수 백 명의 사람들을 산사람에게 협조할 우려가 있다고 구덩이에 끌고가 죽이고 시신조차 못 거두게 합니다. 바닷가에서 총살했기 때문에 시체가 바다로 떠내려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연속됩니다.

당시 수 만 명의 도민들이 죽어 가는데 이 중에는 산사람에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도 있었으나 80% 이상이 경찰이나 군인들에게 죽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참혹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지금부터 50년 전의 일이지만 제주도민들은 그 동안 말도 못하고 마음 속에 묻어 두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많은 학자들도 이 일을 연구하고 정부에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법을 제정하여 도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 일과 어떻게든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모두 피해자라 할 수 있지요.

이 일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금 여러분처럼 어린 시절에 겪은 일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 여쭙어 보고, 매년 4월이 되면 4·3과 관련한 행사가 있으니까 참여도 하고, 그 당시 모습을 알 수 있는 유적 답사도 떠나보세요.

5) 6학년 1학기 : 3-2-(1)(8/14차시) 6·25 전쟁과 그 영향⁷⁹⁾

(첫알오름 학살)

(1) 학습목표 : 6·25 전쟁 과정과 그 과정에서 우리 민족이 당한 고통을 예를 들어 말할 수 있다.

(2) 본시 지도 계획

단계	학습주제	교수 - 학습 활동		자료,시간
		주요 학습 내용과 활동	학습방법	
도입	전시 학습 학습문제	* 대한민국의 정부수립과정 * 6·25 전쟁의 과정과 우리 민족이 당한 고통에 대하여 알아보자.	문답	사진,화보 (7분)
전개	6·25전쟁의 원인 6·25 전쟁의 과정 민족의 고통과 수난	* 6·25 전쟁의 원인 - 광복 후의 남북 분단 - 북한의 무력 침략 * 6·25 전쟁의 과정 - 분단별 조사 발표하기 * 민족의 고통 - 전쟁으로 인한 물질 피해 - 인명의 피해와 이산 가족의 문제 ☞ 4·3 관련 내용 투입 - 예비 검측과 첫알오름 학살 사건	문답 조사학습 시청각 학습 강의	역사신문 6·25 관련자료 VTR 자료 예화자료 (25분)
정리	소감발표 평가	* VTR 시청소감 발표 * 제주도민이 당한 고통 * 6·25 전쟁의 원인과 우리 민족이 당한 고통을 말할 수 있는가?	전체학습	OHP (8분)

3) 이야기 학습 자료 : 첫알오름 학살

전 시간에 4·3이 무엇인지 공부했지요? 이 이야기는 그 때의 이야기입니다. 6·25가 일어나자 정부에서는 북한군에게 협조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처형

79) 교육인적자원부(2001), 전계서, 사회 6-1, p. 222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함.

하게 됩니다. 이를 예비 검속이라 하는데 보도연맹 사건으로도 불리지요.

1948년에 4·3이 일어났지만 6·25 한국전쟁이 일어날 때까지도 제주도에는 산에 올라간 유격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들이 북한 공산군의 남침으로 다시 힘을 얻어 경찰서나 군부대 또는 마을을 기습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4·3 당시에 산사람에게 협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감옥에 갔던 사람이나 무죄로 풀려난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 처형을 합니다. 혹시 산에 있는 유격대를 지원할지도 모른다는 의심 때문이었지만 이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들도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것이지요. 이 사람들이 처형당한 곳이 첫알오름 근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첫알오름 학살이라 합니다.

송악산 근처에 첫알오름이 있는데 송악산 서쪽 아래 있는 오름이라 하여 첫알오름으로 불립니다. 그 입구에는 시신을 발굴했던 구덩이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첫알오름으로 오르는 낮은 언덕을 일본군이 굴을 파서 탄약고로 이용했습니다. 이 곳에 오르면 일본군이 만든 비행기 격납고가 여러 개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1950년 음력 7월 7일(건우와 직녀가 만나는 칠석날이죠) 밤에 두 차례에 걸쳐 사람들을 처형하는데 두 번째에 처형된 132명은 시신도 못 찾아가게 하여 약 7년 동안 그 자리에 그냥 두었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후손들이 시신을 찾았을 때는 시신이 썩고 뒤엉켜서 누가 누군지 분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은 이들은 한 곳에 모아 시신 수만큼 무덤을 만들고 함께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무덤은 따로 있지만 누구의 무덤인지는 알 수 없지요. 그 곳이 언덕면 사계리에 있는 백조일손지묘입니다. 백조일손지묘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억울하게 죽지 않았겠지요? 6·25 한국전쟁 때는 이처럼 전투와 관계 없이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이 근처에는 한국전쟁 때 국군훈련소가 있었던 곳과 당시 유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유적답사를 떠나 보세요.

제주도도 한국전쟁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이지요.

IV. 4·3을 주제로 한 특설단원 학습

4·3을 주제로 특설단원을 설정하여 4·3을 한국현대사의 발전과정에서 파악하게 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폭 넓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다.

초등학생에게 4·3은 용이(容易)한 주제가 아니다. 그 동안 교육과정을 통해서 4·3의 내용에 접근할 기회가 거의 전무했고 관련 유적을 답사한 경우도 극히 극소수이다. 4·3은 5·18보다 더 낯설은 주제이다.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이를 학습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나 4·3을 제대로 이해시키려는 목표보다 상급 학교에서 보충 심화를 통해 전반적 이해가 가능함을 염두에 두고 4·3에 접근하는 차원에서 목표를 설정한다면 기초 수준에서의 학습은 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설단원을 설정하여 주제학습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시수를 확보하는 문제, 학습 자료를 제작, 확보, 배급하는 문제 등 어려움이 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시수를 확보하는 일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시수는 교육과정의 최종 편성자인 교사의 재량의 범위 내에서 확보가 가능한 2시간으로 편성하였다. 2차시의 확보는 교사의 의지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현재 초등학생을 위한 4·3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고 기존의 자료도 각색하여 제시해야 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교수-학습 방법은 일제 학습을 기조로 하고 다음 절에서 제시되는 현장체험 학습과 연계하여 조별 협동학습을 적절히 조직하였다. 또한 특설단원은 주제접근법에 의한 주제학습으로 조직하였으며 한국사의 기초적 학습이 이루어진 6학년을 대상으로 마련하였다.

특히 7차 교육과정에서는 6학년 2학기가 되면 광복에서 정부수립에 이르는 한국현대사의 학습이 이미 이루어진다. 학습자들은 당시의 민족의 염원, 통일정부수립론과 단독정부수립론의 대립, 신탁과 반탁의 움직임, 미국과 소련의 의도 등에 대해 개략적으로 이해가 되어 있다. 이 때 4·3 주제 학습을 실시하면 소기의 교육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1. 주제접근법에 의한 4·3 학습⁸⁰⁾

1) 주제 : 제주 4·3

2) 소 주제별 지도내용 및 주안점

(1) 4·3의 개요(1/2차시)

4·3의 원인, 4·3의 발발 과정과 당시 주민들이 생각, 4·3의 피해 등을 살펴 4·3이 무엇인지 대략적 이해를 하고, 4·3이 오늘날에 와서야 새롭게 조명되는 이유에 초점을 두고 학습한다. 또한 광복을 맞이한 당시 한반도 상황과 대립되는 세력 중에서 도민들이 선택하는데 바탕이 된 요인은 무엇인지 이해한다. 대한민국 정부수립과정에서 일어난 제주 4·3을 지나치게 이념의 대립이나 갈등으로 가르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역사적 사실로서의 의미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화해와 용서, 화합의 차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4·3의 유적(2/2차시)

4·3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주요 유적들을 사진자료를 통해 학습하여 전시에 학습한 4·3의 개요를 확인하고 내면화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유적학습을 통하여 당시의 힘든 상황을 어렵게 극복하려 했던 우리 조상들의 노력과 삶의 모습을 이해한다. 4·3과 관련한 주요 유적의 이름과 그 의미를 알고 4·3의 이해와 관련시킨다. 또한 답사 가능한 유적을 따로 소개함으로써 가족 또는 지역 단위로 답사활동에 대한 의욕을 갖게 한다.

3) 단원의 학습목표

가. 제주 4·3이 대한민국 정부수립과정에서 남북한 통일정부수립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음을 말할 수 있다.

나. 당시 대부분의 제주도민들은 이념이나 사상보다 생존권 보호와 공동체적

80) 교육인적자원부(2001), 앞의 책, pp. 220-226의 교수-학습 과정안의 틀을 참고하여 구성하였고, 구체적인 지도 내용은 6학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조직함.

집단의식이 선택의 기준이 되었음을 말할 수 있다.

다. 4·3의 과정에서 제주도민이 당한 고통과 수난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할 수 있다.

라. 4·3과 관련한 유적을 두 가지 이상 설명할 수 있다.

4) 수업의 기본 방향

제주 4·3은 광복 후 대한민국 정부수립 과정에서 발생한 중요한 사건이다. 따라서 4·3을 주요 내용으로 가르치나 이를 통하여 광복 후 한반도와 제주도에서 벌어진 상황을 이해하고, 통일정부수립을 염원했던 사람들의 의지를 알아본다. 또한 당시 제주도민들이 선택의 근거를 통하여 4·3의 정당성을 깨우치고 진행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당한 고통과 수난을 크게 부각한다. 이와 함께 잃어버린 마을, 수난과 관련한 유적의 사진 자료와 예화를 제시하고 역할극을 꾸며보게 한다. 이러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4·3 유적과 현장을 답사하려는 의지를 갖게 한다.

모든 활동이 끝나면 개인별 또는 조별 탐구과제로 4·3 역사신문을 제작하게 하여 4·3 관련 학습을 마무리한다. 4·3 역사신문 제작은 관련단원 학습, 특설단원 학습, 현장답사 학습을 총 망라한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모든 활동을 경험하지 못한 학습자들도 그들의 수준에서 정리할 수 있다.

5) 학습전개과정

(1) 4·3의 개요(1/2차시)

가. 학습목표

가) 4·3은 광복 후 남한 단독정부수립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을 말할 수 있다.

나) 당시 제주도민들 선택은 사상이나 이념보다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저항이었음을 이해한다.

다) 4·3 기간 동안에 겪은 도민들의 고통과 수난을 예를 들어 말할 수 있다.

나. 본시 학습과정

단계	학습주제	교수 - 학습 활동		자료,시간
		주요 학습 내용과 활동	학습 방법	
도입	학습문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학습 내용 숙지 - 현대사 관련 단원에서 숙지한 내용 확인 - 4·3에 대해 들어 본 경험 발표 * 학습문제 인식 - 정부수립과정 중 우리 고장에서 일어난 4·3에 대해 알아보자. 	문답 개별발표	OHP (10분)
전개	4·3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3의 발발 원인 - 광복 후 우리 민족의 염원 - 통일정부 수립론과 단독정부 수립론의 대립과 갈등 - 당시 제주도의 상황 - 제주도민의 선택과 선택의 근거 * 4·3의 경과와 결과 - 4·3의 진행과정 요약 - 4·3의 결과 	역할극 설명 강의	역할극 자료 읽기자료 예화자료 OHP 실물화상기
	도민의 수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3으로 인한 피해 - 인명과 재산의 피해 - 잃어버린 마을 이야기 - 도민이 겪은 수난과 고통 - 많은 피해가 생긴 원인 	역할극	역할극 자료 (30분)
정리	소감발표 평가 차시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감 발표(3~4 명) * 4·3으로 인해 제주도민이 당한 고통을 예를 들어 말할 수 있는가? * 4·3관련 유적학습 안내 - 과제 : 4·3관련 유적 조사 (인터넷 사이트 소개) 		OHP (10분)

다. 학습보조자료

* 역할극 자료 1. 무장 봉기하는 이유와 대원들의 각오

- 때 : 1948. 4. 3 새벽 1시
- 곳 : 봉화가 오르는 어느 오름
- 등장인물 : 대원 1, 2, 3, 4
- 장면 : 대원 1, 2는 불 피울 준비하고 대원 3, 4는 무기를 챙기고 하산할 준비를 하고 있다.

대원 3 : 자 내려갑시다. 이번 선거를 저지해야 통일정부를 세울 수 있소. 이 한 몸 뚝뚝이 바칩시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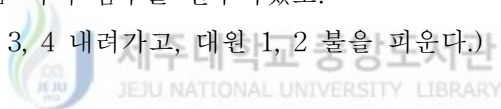
대원 4 : 그럼시다. 그 동안 우리를 괴롭힌 경찰과 서북청년단원들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 줍시다. 그동안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대원 1 : 잘 다녀오시오. 우리도 힘으로 맞설 수밖에 없소. 저항의 불을 힘차게 피우고 따라 내려가겠소.

대원 2 : 우리를 믿고 의지하는 동네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꼭 성공하고 돌아오길 바라오. 힘 모아 통일조국을 만들고 우리 스스로 지켜 나갑시다.

대원 3, 4 : 목숨 바쳐 임무를 완수하겠소.

(대원 3, 4 내려가고, 대원 1, 2 불을 피운다.)



*** 역할극 자료 2. 주민들의 수난**

- 때 : 1948. 10. 어느 날
- 곳 : 어느 시골 마을 민가
- 등장인물 : 토벌대원 1, 2 무장대원 1, 어머니, 아들
- 장면 1 : 밤. 무장대가 식량을 구하러 들어왔다

무장대원 : 집안에 있는 식량을 모두 내 놓으시오. 감자, 고구마도 좋소.(집을 뒤진다.)

어머니 : 우리도 먹을 것이 없어요.

무장대원 : (고구마를 찾아내고는) 이걸 뭐요? 다 내놓으시오.

어머니 : (다리를 붙잡고) 그건 우리 아이들 내일 하루동안의 식량ियो. 그건 안됩니다. 제발 그건 두고 가세요.

무장대원 : (어머니를 밀치며)우리가 누굴 위해 싸우는데 이걸 아까워한단 말ियो. 다시 올 테니까 식량을 준비해 두시오.(밖으로 나간다)

- 장면 2 : 낮. 토벌대가 들어온다.

토벌대원 1 : 어제 무장대에게 식량을 준 집이 여기지? 사상이 불손한 집이로

군.(총을 들이댄다.)

어머니 : 어린 준 적 없어요. 억지로 빼앗아 갔어요. 산사람에게 줄 식량이 어디 있던 말입니까?

토벌대 2 : 말이 필요 없소. 잡아 가두시오. 이거 빨갱이들 아냐.

(토벌대원 어머니를 끌고 간다.)

아들 : 살려주세요. 어머니는 잘못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억지로 빼앗아 갔단 말입니다.

토벌대원 1,2 : 이 놈은 뭐야. 이놈도 잡아 가둬.

(어머니와 아들의 울음소리)

(2) 4·3의 유적(2/2차시)

가. 학습목표

가) 4·3과 관련된 유적을 4 가지 이상 알고 2 가지 이상은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나) 4·3 유적을 답사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는다.

다) 4·3 유적 중 하나를 골라 홍보물을 만들 수 있다.

나. 본시 학습 계획

단계	학습주제	교수 - 학습 활동		자료,시간
		주요학습 내용과 활동	학습 방법	
도입	전시학습 학습문제	* 전시학습 확인 - 제주도 4·3은 어떤 사건인가요? * 학습문제 인식 - 제주 4·3과 관련한 유적을 2 가지 이상 알고 이를 설명해 봅시다.	문답	OHP 사진 (10분)
전개	4·3 관련유적 조사 유적설명	* 과제물 확인 * 4·3 관련 유적 알아보기(조별) - 유적의 이름과 의미 알기 - 유적의 성격별로 분류하기 - 지도에 위치 표시하기 * 조별 유적 설명회 - 조원 협의하에 2 가지 골라 설명	역할극 조사학습 발표학습	사진 역할극대본 읽기자료 제주도지도 OHP 실물화상기 (30분)

정리	소감발표 평가 과제	* 4·3 유적 답사 의지 확인 * 4·3 유적 2개를 설명할 수 있는가? * 4·3관련 역사신문 만들기		(10분)
----	------------------	--	--	-------

다. 학습보조자료

* 역할극 자료(백조일손지묘)

- 때 : 1957. 4월 어느 날
- 곳 : 사계리 공동묘지
- 등장인물 : 마을 사람 1, 2, 3, 마을 유지
- 장면 : 첫알오름에서 죽은 사람들의 장례식장

마을사람 1 : 아이고, 우리 아버지 뼈는 다 어디로 가시고.

마을사람 2 : 아이고 게매, 우리 삼촌 것도 어디 붙어신디 모르키여.

마을사람 3 : 이 노릇을 어떻힐거니? 경 마랑 영 허게. 누구 누구꺼 구분하지 마랑 머리하고 팔다리만 맞춰지걸랑 물어 불주게. 할 수 없지 않허여.

마을유지 : 맞아. 누게가 누군지 모르논디 팔 다리만 맞춰져도 다행이난 똑같이 물어 불게. 어떻허여?

마을사람 1, 2 : 알아수다. 홀 수 어십주. 경헌디 비석도 못세우고~. 아이고, 아이고.

마을유지 : 또르 비석 세우젠 마랑 죽은 사람은 백 명이 넘논디 누게가 누겐 줄 모르난 자손은 똑 고뜬거 아니라. 게난 백 조상에 한 자손이란 뜻으로 '백조일손지묘'로 이름 정허곡 각자 이름이랑 비석 호나에 다 고찌 쓰민 되컹게.

마을사람들 : 좋은 생각이우다. 경허면 되쿠다.

(‘백조일손지묘’라고 쓴 큰 리본이 퍼진다. 뒷면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다.)

* 이야기 예화 자료(잃어버린 마을: 무등이왓)

4·3과 관련하여 들려줄 예화 자료는 잃어버린 마을에 대해서 들려주는 것이 초등학생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그런 사례가 있

으면 이를 이야기 자료로 각색하여 들려줌이 매우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중산간 지역 마을이 소개되었고 재건 마을은 그 자리에 다시 들어서는 경우가 흔치 않아 자료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동광 무등이왓 마을의 사례를 들었다.

잃어버린 마을을 들어 보셨나요? 서부산업 도로 동광 검문소에서 산록도로 쪽으로 가다보면 옛날 무등이왓이란 마을이 있었던 터가 나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살지 않지만 4·3 전에는 200여 가구가 넘는 큰 마을을 이루고 살았지요. 이 마을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공부하는 4·3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중산간 마을은 산에 올라간 무장대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식량이나 여러 가지 물품을 구하는 보급처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토벌하는 사람들은 중산간 마을에 사람들이 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중산간 마을 사람들에게 마을을 버리고 해안 마을로 내려와서 살라고 하고는 그 마을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래야 산에 숨어 있는 무장대들이 필요한 물품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요. 이런 명령을 당시에는 소개령이라 했습니다.

무등이왓도 예외는 아니어서 소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니다. 왜냐하면 가족 중에는 산으로 올라가 무장대가 된 사람도 있었고 해안 마을로 내려가도 마땅히 먹고 살 일이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토벌대는 내려오지 않는 사람들도 무장대와 같은 편으로 여겨 토벌의 대상으로 삼고 잡히면 죽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토벌대를 피해 마을을 버리고 숲속이나 동굴 속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날이 추워지자 사람들은 토벌대들이 발견하기 어려운 작은 동굴(이것을 ‘퀘’라고 합니다.)에서 추위를 피하며 지내게 됩니다. 무등이왓 사람들은 큰넓케란 작은 굴속에 들어가서 겨울을 지내려고 했습니다. 큰넓케는 입구가 겨우 한 사람이 기어서 들어갈 만큼 좁습니다. 또 한 참을 기어가면 다시 어른 키보다도 깊은 벼랑이 나오고 그 벼랑을 무사히 지나도 다시 기어서 들어가야 비로소 사람들이 거쳐할 만한 공간이 나옵니다. 그러니 생활하기는 참 힘들지만 피신해 있기는 좋은 곳이지요.

굴속에서의 생활은 어떠했을까요? 대소변도 굴속에서 해결해야 했고 속에서는 밥을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토벌대가 없을 때 몰래 굴을 나와서 여러 날 먹을 것을 한꺼번에 만들었습니다. 다 된 밥이나 감자, 고구마 등은 대나무를 엮어서 만든 바구니(이것을 ‘차룽’이라 합니다.)에 담고 다시 굴속으로 한참을 기어 들어 왔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루에 한끼 정도 밖에 먹을 수 없었습니다. 남자 어른들은 보초를 서거나 식량을 구하기 위해 가끔 밖으로 나갈 수 있었으나 아이들은 약 두 달 동안 굴속에서 지냈습니다. 상상이 되나요? 캄캄한 굴속에서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잠자리도 없는데 두 달을 지내다니요. 그 고통과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생활은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잡힐 염려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굴속에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안 토벌대가 쳐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연기를 피워 굴속으로 불어넣고 밖으로 못나오게 입구를 돌로 막아 버렸습니다. 밖에 나가서 망을 보던 어른들이 토벌대가 어두워서 내려가자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치워 굴속의 사람들은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굴 밖에 나와 생활하기란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산으로 피해 다니고 숲 속에 숨었으나 굴속에 있던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잡히고 맙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을로 돌아갔을까요? 해안 마을로 내려와 살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무등이wat 마을은 오늘 날 남아 있었겠지요. 그 사람들은 서귀포 정방폭포 아시죠? 바다로 직접 떨어지는 폭포로서 제주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 열 가지(이를 영주십경이라 합니다.)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곳에 끌려가서 총살당하게 됩니다. 총살당하고 난 후 시신들은 금방 거두지 못했습니다. 무서워서 그랬지요. 그러다 보니 시체들은 바다로 떠내려가 찾을 수 없게 된 것이 많았어요. 후에 친척들이 무덤을 만들려고 해도 시체를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척들은 정방폭포 바닷가에서 영혼들을 불러다가 시체가 없는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편안히 저승길로 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헛묘’라 합니다. 시체가 없으니 진짜 무덤이 아니란 뜻이지요. 지금 동광 마을 근처에 가면 이런 무덤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어른들이 죽고 아이들만 살아 남았으니 다시 마을로 돌아가 불타버

린 집을 짓고 살기가 어려웠겠지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의 동광리 마을에 터전을 잡고 살게됩니다. 무등이왓 마을은 정말로 잃어버린 마을이 된 것이지요. 제주도에는 이런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4·3으로 인하여 마을이 없어진 것이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도 이런 마을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른들께 여쭙어 한 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죠?

2. 4·3 관련 인물 학습 자료

인물학습 자료는 부분적 접근으로 관련 단원에 분절 투입하거나 특설단원을 통한 주제접근법으로 4·3 학습 할 때, 인물학습으로 지도안을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이 인물탐구(人物探究) 또는 선택학습나 이야기 자료로 참고할 수 있다.

여기서는 강경 토벌정책으로 대규모 인명 피해를 가져오게 한 정책 결정과 관련한 인물로 미군정 장관이었던 딘, 정부수립 후 대통령 이승만, 미군정 경무부장(警務部長)이었던 조병옥을, 초기 강경 진압을 시행한 박진경 연대장, 1948년 하반기 초토화작전을 실질적으로 전개했던 송요찬 연대장을 대량 학살과 관련한 토벌대의 주요 인물로 선정하였고⁸¹⁾, 이들과 달리 평화적 해결을 모색했던 김익렬 연대장을 소개하여 대비함으로써 대규모 인명 피해의 원인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하였다. 이어 항쟁의 지도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무장대 지도자로 김달삼과 이덕구를 설정하였다.⁸²⁾ 또한 수난사적 의미를 보여 줄 수 있는 인물로 강계봉 순경과 이름 없는 할머니 한 분을 소개하였다. 이외에도 더 소개할 수 있으나 이 정도면 인물학습을 위한 자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81) 선정 기준은 정책 결정에서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딘, 이승만, 조병옥 순으로 넣었고, 현지 지휘관으로서 대규모 학살을 직접 지휘한 주요 인물로 박진경, 송요찬을 꼽았다. 이들 5인은 4·3을 민간인 학살이라는 수난사적 입장에서 정리한다면 4·3 5적이라 할 만하다.

82) 필자의 생각으로는 4·3 전 기간을 통틀어 무장대 측 인물로는 이 두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 여겨진다.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 무력 항쟁이란 측면에서 볼 때도 그러하고, 치열하게 살다가 4·3의 종식과 함께 생을 마감한 점에서도 그러하다.

1) 딘(W.F.Dean) 소장

딘 소장은 4·3 당시 미군정 군정장관이였다. 미군정 당시 한반도에서 일어난 제반 사건의 처리와 정책 결정에 미군정 장관의 역할이 매우 큰데 그가 재직할 때 4·3이 발발했기 때문에 4·3과 관련한 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평화적 사태 수습의 단초를 열었던 4·28 평화 회담 이후 보여준 일련의 행위는 그가 평화적으로 수습될 수도 있었던 4·3을 강경 토벌 작전으로 선회하게 한 장본인임을 짐작하게 한다.

4·28 회담이 성사된 바로 다음 날 극비리에 제주도를 방문한다. 그의 방문 직후 5월 1일 이른바 ‘오라리 방화사건’이 일어나고, 3일에는 귀순자에 대한 발포 사건이 일어나 평화회담이 무산된다. 다시 5월 5일 제주를 방문하여 9인 수뇌회의를 주재하여 9연대장 김익렬을 해임하고 박진경을 임명함으로써 강경 토벌 작전을 전개한다.

4·28 회담에서 5·5 수뇌회의에 이르는 동안에 긴박하게 돌아갔던 여러 정황들은 4·3 강경 진압 정책이 이시기에 결정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 중심에 딘 소장이 자리하고 있었다.

2) 이승만(李承晩)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평가는 상반되어 있다. 독립운동가이자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되기도 하고, 권력욕에 눈이 멀어 민족의 분단을 초래한 책임자로 또는 4·19 혁명에 의해 쫓겨 난 독재자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현재 국회의사당에는 어찌되었든 그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독립운동과 관련해서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으나⁸³⁾ 평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한 것만은 사실이다. 일단 그것은 논외로 하고, 4·3과 관련해서 그가 주목되는 이유는 4·3이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고 일어난 것인 반면 그는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일찌감치 주장하고 다녔기 때문이다. 그는 그의 의도대로 단독정부가 수립되고 대통령직에 오른 후에도 자신의 정통성에 거슬리는 4·3을 철저히 진압

83) 그가 했다는 독립운동도 따지고 보면 아무런 실효도 거두지 못한 외교독립론에 불과한 것이고, 주도권 문제로 독립운동 진영 내에서 자주 분란을 일으켰으며, 독립운동 자금 횡령 혐의로 상해임시정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적도 있다.

하기에 이른다. 그는 자신의 통치 권력과 극우 반공체제의 강화를 위해 4·3 진압과정에서 대량학살을 방조하였고,⁸⁴⁾ 불법적인 계엄령(戒嚴令)을 선포하기도 했다. 따라서 그의 취임 후 일어난 대규모 양민 학살에 대한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다. 1948년 10월 이후 벌어진 강경 진압과 이에 따른 양민의 대규모 학살에 대한 총체적 책임이 그에게 있다.

3) 조병옥(趙炳玉)

조병옥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이승만에 대한 반독재(反獨裁) 운동에 앞장섰던 야당의 거목으로 내려져 있다. 하지만 제주도민들과 민족적 양심으로 현대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평가가 매우 불만스럽게 들릴 지도 모른다.

조병옥은 4·3 당시 최고의 물리력을 휘둘렀던 미군정의 경무부장이었다. 당시 경찰은 군보다도 조직적으로 훈련되고 무기도 우수했다. 그 경찰의 맨 위에 그가 있었다. 4·3 전개과정에서 그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는데 5월 5일 9인 수녀회의에서는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는 김익렬 연대장을 빨갱이 청년으로 몰아⁸⁵⁾ 붙여 해임으로 몰고 간다. 또한 당시 주민들의 공포의 대상이었던 서북청년단을 제주도에 투입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는 이승만과의 권력분배 과정에서 대립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야당의 길을 가게 되었지만, 4·3과 관련해서는 강경 토벌 작전으로 끌고 간 주역이었다.

당시 9연대장이었던 김익렬은 생전에 남긴 유고에서 ‘당시 도 감찰청정이나 도 군정장관, 경무부장 조병옥 씨나 미군정 장관 딘 중 단 한 사람만이라도 사건을 바르게 파악하고 초기에 현명하게 처리했다라면 극소수의 인명피해로 해결될 수 있는 사건’이라며 ‘경무부장 조병옥과 경찰은 사건의 평화적 해결보다 그들의 죄상이 노출되어 모가지가 달아날까 봐 진상을 은폐하기에 급급하였다.’⁸⁶⁾고 비판하였다.

84) 서중석(1999), “제주 4·3의 역사적 의미”: 역사연구소의 앞의 책. p. 140

85) 5·5 9인 수녀회의에서 제주의 상황을 놓고 조병옥과 김익렬 사이에 설전을 벌이다 급기야 육탄전까지 벌어지는데 조병옥은 어찌되었든 제주도를 빨갱이 섬으로 몰아 강경 진압 방식으로 사태 해결을 주장한다.

86) 김익렬 유고집 “4·3의 진실”은 제민일보 취재반의 『4·3은 말한다』 2권 p.p 271~356에 실려 있다.

철저히 미국의 정책을 대변한 그는 친일경찰의 횡포와 부정을 조장한 책임을 물어 김규식, 안재홍 등이 그의 해임을 요구했으나 미군정에 의해 묵살되기도 했다.⁸⁷⁾ 4·3을 유혈사태로 몰고 간 1차 책임은 물론 미군정에 있으나 그들의 정책을 가장 충실히 받들어 강경 토벌 작전을 지휘한 주요 인물이다.

4) 박진경(朴珍景)

박진경은 5·5 수뇌회의에서 김익렬과 조병옥의 대립 후 5월 6일 제 9연대장에 임명되었다. 그는 일본군 소위로 제주도에서 근무하기도 했으며 그것인 9연대장으로 부임하게 된 중요한 이유였다⁸⁸⁾. 그의 부친은 친일파 집단인 대정익찬회의 중요 간부였다.

그는 취임인사에서 ‘우리나라 독립을 방해하는 제주도 폭동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30만을 모두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⁸⁹⁾고 할 만큼 미군정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였다. 부임 후 한 달만에 토벌작전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령으로 고속 승진하는데 그의 강경 토벌은 내부에서도 반발을 불러와 진급 축하연이 열린 날 숙소에서 부하들의 손에 의해 살해된다.

그에 대한 평가도 둘로 나뉘는데 그의 고향에서조차도 빨치산 토벌에 공이 많은 창군영웅으로 동상을 세우는 한편 양민 학살자 박진경 동상 철거 운동⁹⁰⁾이 벌어지는 등 상반되고 있다.

4·3연구가 박명림은 ‘박진경의 강경 작전은 경비대의 힘을 과시함으로써 일반 민중들에게 두려움을 심어 주고 유격대와 분리시켜 유격대를 산으로 몰아 넣었다는 점에서는 성공이었으나 주민들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갖고 있던 경비대에

87) 서중석(1999), 앞의 책, P. 133

88) J. Merrill(1980), *op. cit.*, p. 175

89) 김익렬 유고, “4·3의 진실”; 제민일보 취재부(1998), 앞의 책 2권, p. 345에서 재인용

90) 제민일보, 2001.10.17-18 22면 2단 박스기사에서 재 정리함

4·3 당시 강경토벌 작전을 진두지휘했던 박진경 제 11연대장의 동상 철거 운동에 도내 사회단체가 가세, 관심을 끌고 있다. 남해군에서는 여러 사회단체들이 동상철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도내 사회단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박진경 연대장이 일본군 출신으로 4·3 당시 무차별 토벌작전으로 수많은 제주도민을 희생시킨 장본인’이라고 전제,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동상은 반드시 철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의 동상철거는 4·3과 무관하게 그의 가족들이 이런 논란을 잠재우고자 스스로 한 일이라는 설을 제기하기도 한다.

대한 상대적 호감을 반감으로 전환시켜 더 큰 갈등과 대립을 불러 일으켰으며 그들은 깊은 산 속에 몰아 넣음으로서 사태를 오히려 장기화했다는 점에서 실패였다.⁹¹⁾고 평가하고 있다.

5) 송요찬(宋堯讚)

송요찬은 4·3 진행 시기인 1948년 7월부터 12월 29일까지 무장대 토벌 임무를 맡았던 9연대장이었다. 일본군 지원병 출신인 그는 1948년 10월 17일 ‘제주섬의 해안에서 5km 이상의 지역을 통행하는 자는 이유불문하고 총살한다’는 포고문을 발포했고 4·3 기간 중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낳게 한 소위 초토화 작전을 전개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중산간 마을이 소거되어 파괴되었으며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전시에 행하기 어려운 즉결심판권을 토벌대에게 내릴 때 그의 나이는 불과 30세였다. 그가 9연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가장 강경한 토벌 작전이 벌어졌다. 그가 지휘하던 9연대는 해안선에서 4-5km 이상 떨어진 중산간 지대를 ‘적성지역’으로 간주 민가를 모두 불태웠으며⁹²⁾, 49년 초 9연대와 교체된 2연대가 와 보니 ‘해안에서 한라산으로 이르는 4km 이내의 마을은 대부분 군경의 토벌작전에서 초토화되어 주민들의 대부분은 산중으로 피난하여 반도들과 야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약 1만 5천명을 하산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었다.⁹³⁾고 기록하고 있다.

6) 김익렬(金益烈)

김익렬은 4·3 당시 9연대장으로서 사태를 조기에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유일한 사람이다. 죽음을 무릅쓰고 김달삼과의 4·28 평화 회담을 성사시켰고 토벌에 나섰던 미군정, 경찰, 경비대 책임자 가운데 비교적 냉철하게 이 사건을 평가하고 희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군정의 초토화 작전 지시를 거부하다 끝내는 딘 소장에 의해 9연대장에서 물러났고, 박진

91) 박명립(1988), 앞의 논문, p. 123

92) 제민일보취재부(1998), 앞의 책, 2권, p. 35.

93)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1967), 『한국전쟁사 : 해방과 건군』, 동위원회, p.445.

제민일보취재부(1998), 앞의 책 2권, p. 35에서 재인용

경 암살사건의 배후 세력으로 재판에 회부되기도 한다.

경남 하동 출신으로서 1947년 9월 제 9연대 부연대장으로 제주에 와 그 해 12월 연대장이 되면서 중령으로 승진되었으나 5·5 수뇌회의에서 조병옥과 충돌이 있는 후 다음 날 좌파로 몰려 연대장에서 해임된다⁹⁴⁾.

그는 유고⁹⁵⁾에서 엄청난 희생자를 내게 된 토벌대의 무차별 학살을 비판했다. 당시 군의 최고 책임자였던 그의 증언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나는 제주도 4·3 사건을 미군정의 감독 부족과 실정으로 인해 도민과 경찰이 충돌한 사건이며 관의 극도의 압정에 견디다 못한 민이 최후에 들고 일어난 민중폭동이라 본다.’⁹⁶⁾

‘실사 공산주의자가 선동하여 폭동을 일으켰다고 치자. 그러나 제주도민 30만 전부가 공산주의자일 수는 없다. 그럼에도 폭동진압 책임자들은 동족인 제주도민을 이민족이나 식민지 국민에게도 감히 할 수 없는 토벌살상에만 주력을 한 것이다.’⁹⁷⁾

7) 김달삼(金達三)



김달삼은 4·3 당시 무장대 측의 군사 총책임자 남로당 제주도 당책임이었다. 그의 본명은 이승진(李承晉)이며 김달삼은 장인이 쓰던 가명을 이어 받아 사용한 것이다. 그는 유년 시절 대구에서 장사를 하는 부모 밑에서 비교적 넉넉한 생활을 하였다. 일본 동경에 있는 중앙대학에서 1년 공부한 그는 1945년 강문석(姜文錫)의 딸 강영애(姜英愛)와 결혼하였다. 그의 장인 강문석은 항일운동가이며 끝까지 변절하지 않은 공산주의자로 남로당 선전부장을 맡기도 하였다.

94) 그는 조병옥과의 난투극 후 조병옥과 단 소장이 그를 공산주의자로 몰아 해임했는데 곧 다시 군에 복귀하여 육군 중장까지 진급하였다가 1969년에 가서야 예편하였다. 이런 그가 공산주의자일 리가 없다. 그의 해임은 그 후 4·3 토벌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명백하게 밝혀 주는 단서이다.

95) 그의 유고는 4·3의 진상규명과 4·3 초기 미군정의 토벌정책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료이다. 1988년에 세상을 떠난 그는 유고가 또 다시 왜곡될까봐 가족들에게 ‘이 원고가 가필되지 않는 그대로 세상에 알릴 수 있을 때 역사 앞에 밝히라.’고 유언으로 남긴다.

96) 김익렬 유고집, 제민일보취재부(1998), 앞의 책, p. 355에서 재인용

97) 김익렬 유고집, 제민일보취재부(1998), 앞의 책, p. 356에서 재인용

해방 후 대구에서 살다가 1946년 대정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남로당 대정면 조직부장을 맡았으며 4·3 발발기에는 남로당 제주도 당책임자 군사부 책임자가 되었고, 4월 28일에는 9연대장 김익렬과 구억초등학교에서 평화회담을 성사시켰다. 남한이 단독으로 정부수립을 한 후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황해도 해주에서 인민대표자 회의가 열렸는데 그는 4·3이 한창 진행되는 와중에 섬을 빠져나가 여기에 참여하여 ‘제주 4·3에 대한 투쟁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 해주대회에서 그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⁹⁸⁾, 이후 북한으로부터 국기훈장 2급을 받았다.⁹⁹⁾

한국 전쟁 발발 이전에 유격대를 이끌고 태백산 지구에서 전투를 벌이다 전사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확실하지는 않다.

8) 이덕구(李德九)

이덕구는 4·3 당시 무장대 군사 총책임이었던 김달삼이 48년 8월 해주 인민대표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도를 떠나자 그의 후임으로 활동하다 최후를 맞은 무장대 총사령관이었다.

그는 조천읍 신촌리 출신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대학에 재학 중 학병으로 입대했다가 일본의 패망과 더불어 제주도로 돌아왔다. 조천중학원에서 역사와 체육을 가르치기도 했으며 3·1절 발포사건 후 미군정 경찰에 잡혀가 고문당하는 과정에서 귀가 멀게 되었고 그 후 입산하여 무장대가 되었다. 무장대가 토벌대에 의해 쫓기는 거의 전 기간을 함께 했으며 궤멸 상태까지 저항하다 49년 6월 7일 토벌대에 의해 사살 또는 자살했다고 전해진다. 그가 죽음으로서 실질적인 4·3 항쟁은 종식을 고했다고 볼 수 있다.

1949년 6월 8일 제주시 관덕정에는 그의 시신이 전시되었다. 십자형의 형틀에 묶여 있는 모습의 사진이 지금도 남아 있다. 뒷 절의 4·3 유적에 나오는 이덕구 산전은 그가 최후까지 토벌대에게 저항하면서 비박했던 곳이다.

98) 제민일보 취재부(1998), 앞의 책 3권, p. 261

김남식(1984), 『남로당 연구』, 돌베개, p. 364.

99) 박명림(1988), 앞의 논문, p. 141.

9) 강계봉(康桂奉)

강계봉은 남원읍 위미리 사람으로 4·3 당시에 표선지서에 근무하던 순경이었다. 초토화 작전이 진행되던 1948년 가을과 겨울에 그는 표선초등학교에 설치된 수용소 담당이었는데 억울하게 죽을 위기에 놓인 많은 사람들을 살렸다고 알려졌다. 당시 살벌했던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용기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선행을 증언하고 있고, 공덕비라도 세워야 한다고 칭송한다. 당시 표선초등학교에 수용되어 있던 가시리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때문에 살아나 ‘그 후에 그가 가시리에 나타나면 서로 앞다투어 맞이했기 때문에 술 한잔 대접하는 것도 순서를 정해야 할 정도였다.’¹⁰⁰⁾니 그에 대한 고마움의 정도를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당시 군인과 경찰, 우익단체 대원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일부러라도 도민들에게 못되게 대하는 분위기였지만 강순경과 같은 미담의 사례¹⁰¹⁾들도 많이 전해져 온다.



10) 이름 없는 할머니(송군옥의 아내)

토벌대나 무장대는 어찌되었던 자신의 신념에 충실하다 희생을 당했으니 일단 차치하고, 이 와중에 아무것도 모르고 희생된 수많은 민초(民草)들의 억울함을 어떻게 달랠 것인가? 이는 극히 작은 사례이다.

송군옥(宋君玉)은 대정읍 영락리 사람으로 1948년 1월 27일 정방폭포¹⁰²⁾에서 희생되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죽은 후 눈이 멀었는데, 사연인 즉 이렇다.

당국에서는 희생자들이 죽은 지 몇 달이 지나서야 시신을 찾으려 했다. 송군옥의 아내도 다른 유족들과 시신을 찾으러 갔으나 이미 여름이라 시신이 썩어 문드러져 자기 남편의 시신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결국 남편의 시신은 간수하지도 못한 채 여러 시신들을 만진 손으로 울고 불며 눈물로 얼룩진 눈을

100) 吳國晚(70세, 표선면 가시리)의 증언, 제민일보 취재부, 앞의 책, p.22에서 정리.

101) 일부 선량한 토벌대들은 노약자나 부녀자를 발견하면 다른 토벌대원에게 발각되지 말라고 숨겨주기도 하고 토벌대가 오는 경로를 알려 미리 피할 수 있게 하기도 했다.

102) 정방폭포는 토벌대가 자주 처형 장소로 이용하던 곳이었다. 동광 큰 냇골에서 지냈던 사람들도 이 곳에서 처형당했다. 뒷 절의 유적 내용을 참고.

땀은 바람에 눈에 독이 올라 그 후 40여 년을 장님으로 살았다.

아들이 고향을 떠나 사는 바람에 어린 손녀의 손을 잡고서 돌아다녔고, 그 손녀는 할머니의 아픔을 고스란히 떠 안고 지금도 고향에 오면 반드시 할머니의 무덤을 찾는다고 한다.¹⁰³⁾

* 이런 경우는 제주도 어디에서건 찾을 수 있다. 만약에 4·3 수업에서 인물 학습이나 이런 사례 중심 학습을 하게 된다면 학습자의 가족에게서 사례를 찾거나, 교사가 그 지역의 사례를 모아 들려 줄 수도 있다. 현기영의 소설 ‘순이 삼촌’에 나오는 주인공을 예로 들려주어도 무방할 것이다.



103) 宋在祐(64세, 대정읍 영락리, 송군옥의 아들)의 증언, 제민일보취재부, 앞의 책, p. 346에서 정리.

V. 4·3 유적과 현장학습

교과시간의 4·3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교과시간을 통한 4·3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장답사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초등학교 역사학습에 있어서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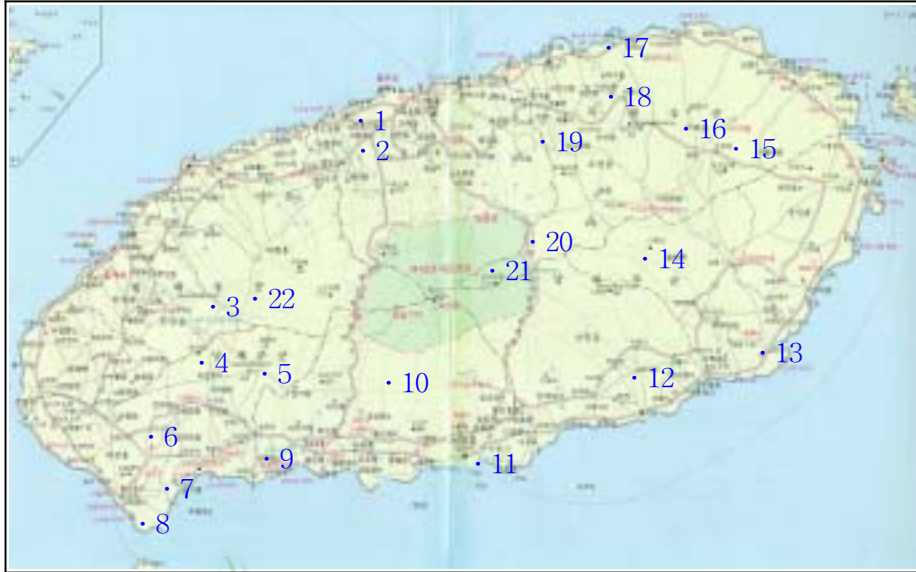
학교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본 고에서는 제주도 지역 초등학생들을 기준으로 답사코스 등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뒤에 소개되는 유적 안내서를 참고하면 학교별,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현장학습 계획을 세우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도 6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현장학습, 재량활동 등 체험학습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는 현장학습이 관광지 중심에서 벗어나 교과 학습과 관련한 곳으로 대상을 선택하는 경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아직도 역사유적 답사가 소홀한 편이고 특히 4·3과 관련한 유적답사는 학교의 현장학습으로는 거의 예를 찾기가 힘들다. 현장학습을 통해 관련 유적을 답사하는 것은 4·3의 이해를 위해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방법임에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일반 시민단체 주관의 역사탐방이나 향토기행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가끔 시행되기도 하였으나 이를 통하여 4·3의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기는 미흡하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주제접근법에 의한 4·3 학습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재량활동이나 현장체험학습의 일환으로도 유용한 답사코스를 구성하였다. 주제별로 유적을 묶어 답사하는 테마 기행이 바람직하나 시간과 경비,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최단 시간, 최단거리의 이동으로 답사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역적으로 묶어 구성하였다. 의미 있는 답사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하나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2회의 코스로 구성하였다. 또한 큰넓케처럼 답사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이 답사하기에는 지형적으로 어렵고 학교 학급 단위의 대규모 인원이 함께 가기에 어려운 곳은 제외하였다. 이런 곳은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가족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따로 상세히 안내하였다.

1. 4·3과 관련한 유적

지도1. 4·3 관련 유적 지도



- | | | | |
|--------------|-------------|--------------|-------------|
| 1. 정뜨르비행장 | 7. 백조일손지묘 | 13. 표선백사장 | 19. 고평동마을 |
| 2. 노형동(함박이굴) | 8. 첫알오름학살터 | 14. 녹산장훈런터 | 20. 이덕구산전 |
| 3. 새별오름훈런터 | 9. 천제연폭포 | 15. 다랑쉬마을과 굴 | 21. 물장오리격전지 |
| 4. 동광큰넓깨 | 10. 영남마을 | 16. 덕천검홀굴 | 22. 원동마을 |
| 5. 무등이왓 | 11. 정방폭포 | 17. 북촌학살터 | |
| 6. 구역리 | 12. 의귀현의합장묘 | 18. 낙선동성터 | |

4·3과 관련한 유적은 제주도 전역에 널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눈여겨보면 마을에 있는 돌담 하나 하나에, 들판에, 밭에, 동굴 마다에 4·3의 흔적은 남아 있다. 그 모든 유적을 소개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다. 여기에서는 대규모 학살과 관련한 유적, 유격대의 활동과 관련한 유적, 소개령과 대토벌 작전으로 인해 잃어버린 마을 유적, 도민의 수난과 관련한 유적 등 네 가지로 분류하여 주요 유적을 정리한다. 소개되는 내용은 제주 4·3 연구소의 『4·3 장정』 1~6 권, 제민일보 취재반의 『4·3은 말한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가 현장 답사하여 정리하였고, 현장학습 프로그램에 포함된 것은 다음 절에서 소개하고 이 절에서는 현장학습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하였다.

1) 대규모 학살과 관련한 유적

4·3 기간 중 수난기에 대규모 학살이 이루어지고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예비 검속의 미명 하에 학살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정뜨르 비행장, 첫알오름 학살터, 정방폭포, 천제연폭포, 표선 백사장, 북촌리 옴팡밭, 다랑쉬굴 등 여러 곳에서 집단학살이 이루어지나 여기에서는 정뜨르 비행장, 정방폭포, 천제연폭포를 소개하고 나머지는 현장학습 프로그램으로 안내하였다.

(1) 정뜨르 비행장

지금 제주 국제공항은 원래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시작하면서 군사적인 목적에 의해 도두봉 남쪽에 군용기가 이착륙 할 수 있는 작은 규모로 만들었는데 1957년 민간항공기가 취항하면서 규모가 커졌다. 현재 제주국제공항 자리는 4·3 당시 미군정과 군경토벌대가 북제주군 관내의 무수한 양민을 재판한다는 구실로 끌고 와 학살한 후 매장한 학살터였다.

실지로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활주로 밑에는 수많은 원혼이 잠들어 있다. 당시 군경토벌대는 한림, 애월, 제주시 주민들을 무장대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정뜨르 비행장에 끌어들여 그들에게 직접 구덩이를 파게 하고 그 앞에 몰아 세워두고 기관총으로 사격을 가하여 집단 학살 또는 생매장했다. 애월리 주민 80여 명이 호리 및 인근 마을 주민 300여 명 등도 이곳에서 처형되었다.

(2) 정방폭포

정방폭포는 바다로 직접 떨어지는 동양 유일의 폭포로 유명할 뿐 아니라 영주십경의 하나로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 이 곳은 4·3 당시 남제주군 지역에서는 가장 큰 학살터 중 하나였다.

토벌대는 폭포수와 부근 절벽의 소낭 머리에서 손발이 묶인 양민들을 상대로 사격연습을 하거나 장검 돌격 연습을 했다.

이곳에서 동광리 큰 넓케에 숨어살다가 잡혀온 100여 명의 주민들이 1948년 12월 24일 처형되었다. 시체들이 바다로 떠내려가는 바람에 시신을 찾지 못한 유

죽들은 1년이 지난 후 원혼들을 불러다가 마을 근처에 봉분만 만들어 놓았는데 이를 헛묘라 부른다.

(3) 천제연폭포

천제연폭포 선임교 동쪽에 소나무 밭이 있는데 이곳이 4·3 당시 중문면 일대의 좌익분자들은 학살한 곳이다.

2) 유격대의 활동과 관련한 유적

유격대의 활동과 관련한 유적은 주로 군사 훈련을 했거나 지휘소가 있던 곳, 비밀 트를 틀고 있던 곳들이 있다.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 없고 항상 토벌대의 추적을 피해야 했으므로 해안과 멀리 떨어진 중산간의 오름이나 동굴 험한 산속에 있다. 물장오리, 이덕구 산전, 새별오름, 녹산장, 덕천 김홀굴 등이 있으나 새별오름은 현장학습 프로그램으로 안내 하였다.

(1) 물장오리

산정(山頂) 호수가 있고 설문대 할망의 신화가 숨쉬는 이곳은 요즘 입산이 통제되어 있어 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허가를 얻고 가야 한다. 4·3 당시 도당본부와 무장대 유격학교가 물장오리의 불칸디오름 쪽 능선에 있었다. 진압 경찰과 일대 격전을 벌였던 무장대의 주둔소였다. 1948년 6월 24일 임영관 경위가 이끄는 경찰토벌대 28명이 무장대에 의해 이 근처에서 전원 몰사한다. 임영관 경위는 3·1절 시위 사태를 유발시킨 장본인이었다. 이 곳은 땅속을 파고 돌을 쌓았던 무장대의 아지트 흔적들을 찾을 수 있다. 직사각형 모양의 작은 아지트도 있고 10여 평은 뒹진 것도 있다.

(2) 이덕구 산전

제1횡단도로 수장교에서 조금 더 가면 동쪽으로 난 숲길이 보이는데 한 시간 정도 들어가면 Y자 형의 두 내(안새왓, 밧새왓)가 합수 되는 지점이 있다. 바로

이곳이 이덕구가 이끄는 무장대가 최후에 주둔했던 곳이라 하여 ‘이덕구 산전’이라 부른다. 초행자는 찾기가 쉽지 않아 경험자와 함께 하는 것이 좋다.

지금은 숲이 울창하나 당시에는 나무가 없는 평지였다고 한다. 이곳이 무장대가 살았던 아지트의 흔적이라는 것은 숲 단지 부서진 것, 향아리 깨어진 것을 등을 통해 알 수 있고 비박했던 트의 흔적도 남아 있다. 산중에 있는 분지에다가 주변에 물이 풍부하고 뒤편의 높은 봉우리, 계곡의 깊은 절벽은 천연적인 성의 역할을 하고 있어 토벌대를 피하기에는 천혜의 요새였다.

이덕구는 조천읍 신촌리 출신으로서 1946년 3월에 개원한 조천 중학원에서 1947년 3월 총파업 이전까지 역사와 체육을 가르치다가 입산하였다. 김달삼 등 지도부가 해주대회에 참가하게 되자 2대 무장대장으로 군사부 총책임자가 된다. 1949년 6월 화북지서에서 출동한 토벌대에 의해 포위되어 격전 끝에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의 목은 관덕정에 걸려 있었다.(앞 절의 인물 자료 참조)

(3) 녹산장

교래리에서 표선으로 난 길로도 갈 수 있고 동부산업도로를 가다가 성읍 2리에 도착하기 전 오른 쪽 남양목장 진입로로도 갈 수 있다. 큰 사슴이오름(대록산)과 작은 사슴이오름(소록산)을 끼고 넓은 벌이 있는데 이곳이 녹산장이다.

4·3 발발 전에 표선면 면당 본부가 있었고 4·3 기간동안 유격대가 군사 훈련을 했던 곳이기도 하다. 이 곳을 살피고 근처의 큰 사슴이오름에 오르는 것이 좋다. 오름의 멋으로야 바로 코앞에 있는 따라비오름이 그만이지만 무장대가 산을 타는 훈련을 했고 4·3 당시 봉화가 올랐던 오름 중 하나가 대록산이니 이곳을 오르는 것이 좋겠다.

(4) 덕천 검흔굴

상덕천과 하덕천 중간 썸 지점에 있는 굴인데 이곳 사람들은 큰 곳 검흔굴이라 부른다. 초행자는 경험자와 함께 가는 것이 좋다. 찾기도 힘들고 찾더라도 내부 답사는 엄두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4·3 당시 구좌면 면당 본부가 있었고, 1949년 여름 토벌대에 의해 발각되어

굴속에 있던 20~30명 정도가 생포되었던 곳이다. 현재는 굴속에 사람이 거처하기 위해 다듬어 놓은 흔적만 있을 뿐 당시의 생활 용기는 남아 있지 않다. 먼저 답사한 사람들이 가져가지는 않았을 것이라 여겨 기록을 찾아보니 일본 답사 팀이 발 빠르게 이를 수거해 갔다고 한다.

3) 잃어버린 마을 유적

1948년 10월 17일 발효된 소개령으로 중산간 마을 사람들이 해안으로 내려오고 그 마을은 유격대의 근거지와 군수보급품이 된다는 이유로 소위 3진 작전 중의 하나인 태워 없애기 위해 모두 불질러진다. 또한 토벌대의 진압을 피해 스스로 마을을 버리고 마을 사람들 모두 산으로 올라가기도 했다. 당시 중산간에서 자연부락을 이루고 살았던 대부분 마을이 4·3 당시 사라졌거나 그 후에 복원되었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중산간 들녘을 지나다가 대나무 숲이 보이는 곳은 자연부락이 있었던 곳이라 여겨도 무방하다. 여기에서는 지금은 마을이 없지만 당시의 마을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 여섯 개의 마을 유적을 소개하고 동광 무등이왓과 다랑쉬 마을은 현장학습 프로그램에서 안내하였다.

(1) 원동 마을

행정구역으로는 애월읍 남읍리 지경이나 서부산업도로를 20여 분 달리면 운전면허 시험장이 나오는데 여기서 1km 더 가면 원지(院址)라는 표지석이 산 쪽에 보인다. 이곳이 원동 마을이 있던 자리이다.

제주목과 대정현 중간지점에 있는 원동마을은 조선시대에 설촌(設村)된 곳으로 제주목과 대정현을 오가는 관리들이 쉬어 가던 곳이었다. 1948년 11월 13일 원동마을과 인근 마을 주민 60여 명이 속칭 ‘주막번데기’란 곳에서 군인들에 의해 집단학살 당했는데 당시 살아 남은 늙은이들과 부모를 잃은 10세 미만의 어린아이들 30여 명이 하귀, 광지, 고내리 등지로 소개되어 40여 년을 고향을 등진 채 살다가 1990년도에 와서야 자신들이 살았던 땅과 잃어버린 40년의 삶을 찾으려 애쓰고 있다.

(2) 고평동 마을(케뜨르)

고평동의 옛 이름은 케뜨르이다. 행정구역상 북제주군 조천읍 와흘리 고평동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크고 작은 케가 주변에 많이 있다. 4·3 당시 80여 호 정도 살았던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10여 호도 안 되는 가구가 살고 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 이주한 사람들이고 원래의 주민은 남아 있지 않다.

당시에 보초를 섰던 상딧동산과 맹당모루가 있고 식수원이었던 버드리 못도 볼 수 있다.

(3) 노형 마을(함박이굴, 방이리, 개진이, 드르구릉)

노형동에는 크고 작은 부락들이 많이 산재해 있었다. 지금 아파트가 들어선 서부 산업도로 북쪽보다는 한라전문대학이 있는 곳에 있었던 함박이굴, 산 쪽으로 방이리, 개진이, 드르구릉 등 다섯 개 정도의 자연부락들이 있었다.

지금은 도로, 건축, 과수원 개발로 당시의 모습이 많이 사라졌으나 함박이굴 부락터, 방이리 마을터 대나무 숲과 돌담, 당시 봉화가 올랐던 방이리 동산을 볼 수 있다. 원래 월랑, 정존, 광평, 월산 부락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남쪽으로 올라가 살면서 마을을 형성하여 살았는데 이들 마을은 서로 성이 다르고 조금씩 떨어져 있어도 친인척 관계로 맺어져 있어 유대가 돈독한 혈연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

4·3 당시 소개령에 의해 마을이 불에 타고 주민들은 연고에 따라 산으로 올라가거나 해안마을로 내려온다. 산에 오른 사람들은 돌과 나뭇가지로 임시 거처를 마련하여 긴 겨울을 보냈다.

1948년 11월 5일 오도룡 집단학살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다. 무장대에 의해 파괴된 전신주를 세워야 한다고 마을 사람들을 모아 놓고 그대로 학살한다.

(4) 구역리

구역리는 4·28 회담과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마을이다. 원래 마을은 4·3 당시 소개로 잃어버리고 지금은 그보다 밑에 돌성을 쌓고 마을을 재건하였고 성벽

의 흔적을 지금도 볼 수 있다.

구억리도 여느 중산간 마을과 마찬가지로 당시 많은 인명의 피해를 보았는데 무장대에 의해 3명, 군경 토벌대에 의해 16명 등 19명의 희생되었다. 김익렬(金益烈) 9연대장, 연대 정보참모 이윤락(李允洛) 중위와 김달삼(金達三) 무장대 군사 총책(總責)간에 4·28 평화회담이 열렸던 구억초등학교(대정북공립국민학교) 건물은 토벌대에 의해 전소되었다가 후에 같은 자리에 복구되었으나 지금은 민가가 들어 서 있고 ‘배움의 옛 터’ 라는 비가 학교였음을 말해준다. 당시는 마을의 중심에 있었으나 재건촌(再建村)이 아래로 내려와 건설됨으로서 멀리 떨어져 있게 되었다.

(5) 영남 마을

영남마을은 현재 행정구역상 서귀포시 강정동에 속한다. 제2횡단도로를 가다 회수를 거쳐 신시가지 위쪽으로 난 중산간 도로를 따라가다 신시가지 가기 전 궁산동과 월산동 위에 영남마을 터가 있다. 회수 위쪽의 산록도로를 통해서도 갈 수 있다.

확실치는 않으나 조선 중엽에 설촌이 되었다고 하며 영주산 남쪽의 첫 마을이란 의미에서 영남이라 마을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조선 후기 방성칠 난과 이 채수 난에도 이 마을이 연관이 있으며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에도 이 마을 사람들이 참여할 만큼 저항의 역사를 간직하였다.

4·3 전에는 약 20여 호가 있었다고 하나 4·3을 거치면서 마을이 전소되고 대부분 토벌대에 의해 희생당하고 살아 남은 몇 안 되는 주민들이 인근의 마을로 흩어져 살고 있다. 지금도 마을 터에는 당시의 집 울타리 무너진 것, 대나무 밭, 깨어진 항아리 등 질그릇 조각을 발견할 수 있다.

4) 도민의 수난과 관련한 유적

도민들이 토벌대의 진압이나 유격대의 테러를 피해 숨었던 곳이나 억울하게

죽은 이들을 함께 묻은 무덤 유적, 토벌대에 의해 만들어진 전략촌 유적이 이에 속한다. 동광 큰넓케, 백조일손지묘, 현의합장묘, 낙선동 성터 등이 있으나 초등학생이 단체로 답사가 어려운 동광 큰 넓케를 소개하고 나머지는 현장학습 프로그램으로 안내하였다.

(1) 동광 큰넓케

동광 마을에서 도너리오름 쪽으로 목장지대가 있는데 목장 안에 시멘트 포장 도로가 있다. 승용차가 진입할 수 있으나 걸어서도 갈 수 있다. 걸어서 약 30분 정도 가면 도로 양쪽에 큰 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서남서 쪽으로 잡목지대를 5분 정도 들어가 삼나무 경계를 넘으면 큰 잡목이 나오는데 그 밑에 굴 입구가 있다. 초행자가 이를 찾기란 불가능하고 설령 운 좋게 찾는다 할지라도 내부 답사는 어려우므로 반드시 경험자와 동행해야 한다.

4·3 당시 해안마을로 내려가지 못한 주민들은 토벌대를 피해 잡목이 우거진 숲이나 동굴로 숨었다. 한 순간만 피하면 다시 마을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그러나 소개령과 이어지는 대 토벌작전으로 남아있던 주민들은 무장대에 협조적인 분자로 인식되어 무차별 희생을 당했다.

11월 이후 날이 추워지자 인근의 무등이왓 사람들이 큰넓케로 모여들었다. 일제시대 폭탄에도 끄덕 없었고 입구 발견이 어려워 토벌대를 피하기에는 안전한 곳이었다. 한 사람이 겨우 기어서 수십 m를 가야하고 중간에 깊은 벼랑이 있어 생활에는 불편하나 피신처로는 그만이었다. 주로 노인이나 부녀자, 어린아이들은 굴속에서 살았고 청장년들은 주변 야산이나 숲, 작은 굴속에 살면서 식량과 식수를 공급하고 망을 보면서 습격에 대비하였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많은 수의 주민들이 살아야 했기 때문에 굴속에서는 엄한 규율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결국 발각되어 영실 근처 불래오름까지 피신하나 대부분 잡혀 12월 24일 정방폭포에서 사살 당한다. 동광리의 헛묘는 이 사람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한 것이다.

4·3 진압과정에서 마을을 떠났던 사람들이 대부분 죽고 살아 남은 10여 호의 사람들이 1956년 마을을 재건하러 왔다가 무등이왓을 버리고 현재의 동광 하

동으로 옮겨와 살고 있다. 4·3 관련 유적이 많지만 이 곳만큼 당시의 주민들의 고통과 공포, 참혹한 피난 생활을 느낄 수 있는 유적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4·3 유적 답사자가 꼭 들러봐야 할 곳이다.

당시 굴속에서 생활했던 주민은 이렇게 회상한다.

‘굴 속 생활이 하도 엄격해 똥도 밖에 나가 누지 못했어요. 굴 한 쪽 가지를 화장실로 사용했어요. 또 굴속에서 밥을 하면 연기가 새어 나가니까 작은 켄나 숲에서 밥을 지어다가 먹었는데 여러 날 먹을 밥을 차롱에 담아다가 먹었습니다. 지금도 어머니가 밥 차롱을 손으로 밀면서 굴속을 기어가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2. 제주 서부지역 4·3 관련 현장학습

제주 서부지역 코스지만 실지로는 제주시에서 서부산업도로를 경유하는 대정읍 일대의 유적이다. 실지로 답사할 유적도 있지만 경유하면서 의미를 설명할 곳도 있다.

1) 답사 순서

제주시-노형동 잃어버린 마을(경유)-원동마을(경유)-첫알오름(답사)-백조일손지묘(답사 및 참배)-동광 무등이왓(답사)-새별오름(답사)-도착

2) 답사 코스 안내

제 1코스는 제주시에서 출발하여 모두 답사하고 돌아오는데 휴식시간 포함하여 총 8 시간정도 소요된다. 노형동 잃어버린 마을(함박이 굴, 방이리 등)은 노형동을 지나면서 산 쪽으로 시선을 돌려 차 속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원동 마을은 서부산업도로 변에 있어 갈 때는 경유하며 차 속에서 설명하고 돌아올 때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직접 답사도 가능하다. 마을 터였음을 알리는 비석이 서 있어

찾기에도 용이하다.

(1) 첫알오름

지도2. 첫알오름 지도



처음으로 직접 답사할 곳은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예비 검속의 미명하에 4·3과 관련하여 200여 무고한 주민이 죽어간 첫알오름 학살터이다.

송악산 서북쪽에 낮은 언덕이 있는데 이곳이 첫알오름이다. 대정읍 하모리에서 산이

수동(송악산)으로 가다가 알뜨르 비행장으로 난 시멘트 포장도로로 꺾어 들어가면 비행장의 흔적인 격납고들을 볼 수 있는데 이곳에서 동남쪽으로 보이는 오름이 첫알오름이다. 학살터 표지판이 세워져 있어 이곳까지만 들어오면 찾기 쉽고 승용차로는 현장까지 진입할 수 있다. 1950년 음력 7월 7일 이곳에서 200여 명의 양민이 군경토벌대에 의해 학살되었다. 끝난 줄 알았던 4·3의 피바람이 한국전쟁의 발발과 더불어 예비 검속의 명분 하에 다시 자행된 것이다. 좌익분자를 사전에 격리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죄 없는 주민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날 1차로 처형된 이들은 유족들에 의해 시신이 수습되었으나 새벽 5시에 2차로 처형된 149명의 시신은 당국의 방해로 약 7년 간 방치되었다가 1957년에야 비로소 수습되었다. 무고한 주민을 학살한 만행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한 정권의 압력 때문이었다. 학살터는 일제가 탄약고로 쓰던 곳이라 바닥이 시멘트로 되어 있어 물이 잘 빠지지 않아 시신이 썩어 마치 늪처럼 변해 갔다고 한다. 따라서 후에 시신을 수습했을 때는 누가 누군지 구분을 할 수 없어 한데 모아 사계리 공동묘지에 안장했는데 이것이 백조일손지묘이다. 이 곳은 주변에 일제시대 전투기 격납고, 대공포 진지, 탄약고 자리 등 여러 유적이 함께 있어 여러모로 답사 할 만하다. 답사하는데는 30분 정도면 되나 주변의 유적까지 보려면 한 시간 정도로 여유 있

게 잡으면 좋다.

(2) 백조일손지묘

지도3. 백조일손지묘 지도



섯알오름에서 두 번째 답사지 백조일손지묘까지는 20여 분이면 족하다. 셋알오름 학살터에서 죽은 시신들이 대부분이 곳에 묻혀 있어 연결학습이 가능하다.

사계리에서 모슬포 쪽으로 일주도로를 타고 가다보면 삼

거리가 나오는데 송악산 방향으로 200여 m 더 들어가면 공동묘지 입구가 나온다. 공동묘지 안쪽에 백조일손지묘와 위령탑이 서 있다. 표지판이 있어 찾기 쉬우며 주민들에게 물어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전쟁 당시 모슬포 경찰서에는 예비검속으로 붙잡혀 온 347명의 무고한 양민들이 수용되어 있었는데 1950년 8월 20일(칠석날) 이들 중 200여 명을 끌어내어 군경 합동으로 셋알오름에서 1차 61명 2차 149명을 총살하였다. 1차에 희생된 시신은 바로 수습되었다가 3년 후에 한림읍 갯거리오름 공동묘지에 안장되었지만 2차에 희생된 시신은 약 7년이 지나서야 수습되어 그 중 132구를 이 곳 사계리 공동묘역에 안장한다. 1960년에 묘비(墓碑)를 세워 ‘백조일손지묘(百祖一孫之墓)’라 칭하고 뒷면에 희생자들의 이름을 써넣었다. 시신을 구별할 수 없어서 ‘백 할아버지의 한 자손(子孫)’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붙였던 것이다. 1961년 5·16 쿠데타 세력에 의해 비가 박살났으나 1993년에 위령비(慰靈碑)를 다시 제작하여 세웠고 그 옆에 부서진 비 조각을 모아 보존하고 있다. 답사할 때는 위령탑에 헌화하고 분향(焚香), 참배(參拜)하는 것이 도리이니 이 점 유의하고 제주(祭酒)와 제과(祭果)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 곳에서의 소요시간은 30여 분이면 충분하다. 대형버스는 진입이 어려워 입구에서 5분 정도 걸어 들어가야 한다. 이 곳

승용차 주차장에서 점심을 먹는 것이 좋겠다.

(3) 동광 무등이왓

지도4. 무등이왓 지도



백조일손지묘에서 무등이왓으로 이동하는데는 30분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때 차 안에서 송악산 일대의 유적과 동광 큰넓궤에 대한 소개가 곁들여지면 답사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

서부산업도로 동광 검문소에서 주유소를 끼고 동쪽으로 난 길을 가면 굴다리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1km 정도 더 가면 무등이왓이다. 지금도 당시의 마을 흔적을 볼 수 있다. 무등이왓 사람들은 관의 침탈을 피해 17세기부터 마을을 이루고 화전과 목축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조선말 수 차례 관의 침탈에 항거하여 봉기를 일으킨 진원지이기도 한 이 마을은 한 때 200여 호가 넘는 큰 부락을 이루고 있었다. 1947년 미군정의 곡물(穀物) 수집 정책에 반대하여 ‘보리 공출 반대 운동’을 벌이기도 했으며 이후 군경의 탄압이 거세어지자 대부분 산으로 피신하였다. 중산간 마을이어서 무장대의 왕래가 빈번하여 1948년 11월 14일 마을 유지 9명이 학살된 것을 비롯하여 11월 21일 마을 소개시에는 무차별 학살과 방화로 주민의 상당수가 죽고 마을이 잿더미로 변했다. 48년 겨울 내내 오름과 굴을 전전하며 추위와 굶주림에 죽거나 토벌대에 희생되었다. 120여 명의 주민들은 동광리 큰넓궤에서 두 달 가량 숨어 지내다가 발각되어 정방폭포 근처에서 토벌대에 의해 총살당했다. 시체가 바다로 떠내려가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유족들은 마을 근처에 봉분(封墳)만 쌓은 ‘헛묘’를 만들었다.

무등이왓은 초등학생들은 자칫 흥미 없어 할 지도 모른다. 따라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이들 마을 주민들이 토벌을 피해 큰넓궤에서 약 두 달간이나 암울

한 고통의 세월을 보냈음을 강조하고 수난의 역사를 인식 시켜야 한다. 큰넓궤는 중고등 학생 정도면 답사가 가능하나 초등학생, 그것도 40 명이 넘는 대규모 답사는 아무래도 무리다. 무등이왓에서 대나무 밭과 집 울타리 자리를 직접 확인하게 하고 마을 길의 흔적을 답사하게 되면 스스로 많은 것을 느끼게 된다.

(4) 새별오름

무등이왓에서 20여 분이면 새별오름 입구까지 당도한다.

서부산업도로를 30여 분 달리다 보면 이시돌 목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서쪽에 부드러운 능선을 가진 새별오름과 어머니 젖가슴 같은 이달오름이 마주보고 서 있다. 새별오름에서 이달오름 쪽으로 완만한 능선을 이루고 밑에는 넓은 평지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곳이 4·3 당시 서부지역 유격대원들이 훈련을 하던 훈련터이고 지휘 본부가 있었다. 전망이 좋고 토벌대의 습격에 피신하기 좋은 여건이다. 고려말(高麗末) 최영 장군이 목호군(牧胡軍)을 토벌한 곳이기도 한 이곳은 현재 들불축제가 열리는 곳으로 더 알려져 있다. 제주 서부 지역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어 비단 4·3 당시 유격대의 훈련장이란 의미 없이도 답사 할 만하다. 이곳 정상에는 무덤이 하나 있는데 동자석(童子石), 선비석, 남근석(男根石)이 여럿 있어 아이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이 곳은 오름을 오르고 적당한 휴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1-2시간 정도면 답사가 가능하나 좀 더 여유를 가지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봄에는 고사리 꺾기, 들꽃 관찰, 가을이면 주변의 억새풀과 들꽃이 잘 어우러져 생태체험 학습이 가능하다.

돌아오는 길에 여러 가지 예화(例話) 자료를 준비하고 들려주면 효과가 있다. 또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출발할 때 들리지 않고 지나갔던 원동마을을 돌아보는 것도 좋겠다.

3. 제주 동부지역 4·3 관련 현장학습

제주 동부 지역에는 답사할 만한 곳이 산재해 있어 1일 코스로 이를 모두 소

화하기란 용이하지 않다. 북촌 움팡밭, 다랑쉬 마을, 덕천 검흙굴, 낙선동 성터 등을 답사하고 의귀 현의합장묘로 이동하는 것이 좋으나 이를 모두 답사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들 중 성격이 비슷하게 중복되는 유적을 생략하여 답사코스를 마련하였다.

1) 답사순서

제주시-낙선동 성터-의귀 현의합장묘-표선 백사장-다랑쉬 굴과 마을터-북촌 움팡밭(경유)- 도착

2) 답사코스 안내

제 2코스는 제주시에서 동일주도로를 가다가 함덕에서 중산간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동일주도로를 통해 돌아오는 코스인데 제 1코스에 비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여유 있게 답사하려면 아침 일찍 출발하는 것이 좋다. 총 9시간 정도는 예상해야 한다.



(1) 낙선동 성터

지도5. 낙선동 성터 지도



제주시에서 낙선동 성터까지는 30여 분이 소요된다. 차속에서 답사에 대한 전체적인 안내를 미리 해 두는 것이 효과적인 답사에 도움이 된다. 일주도로를 타고 동쪽으로 가다보면 삼양 끝자락에서 조천 함덕 뒷길에 나온다. 이 길을 쭉 가다 함덕초등학교를 지나면 선흘리로 빠지는 길이 나오는데 3km 쯤 가면 버스 정류소가 있다. 정류소 동쪽에 성터가 있다. 인가를 지나 과수원으로 들어가야 성벽을 만날 수 있다. 답사와 설명 등 소요시간이 20여 분이면 가능하다. 주

변의 민가나 과수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낙선동 성터는 무장대와의 연계를 차단하고 주민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만들었던 전략촌의 유적이다. 토벌대는 마을마다 외부와의 단절을 위해 주민들을 동원하여 성을 쌓았는데 낙선동 성터가 가장 잘 남아 있다. 석성을 쌓는 작업은 주민들에게는 또 하나의 고통이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 동원되었으며 함덕, 북촌 등 해안 마을에 있다가 아침에 올라와 쌓고 저녁에 내려가는 일을 한 달여 반복했다. 성이 완성되자 주민들은 일종의 수용소와 같은 생활을 했고 남자들이 없어 성인 여성들이 보초를 섰다. 가끔 산사람들이 성벽에 올라 연설을 하다 사라지기도 하고 더러는 토벌대에 의해 숨지기도 했다.

성의 규모는 대략 가로 150m, 세로 100m, 높이 3m, 폭 1m 정도로 직사각형 모양이었다. 낙선동 말고 다른 곳의 전략촌도 대체로 이런 규모였다. 성벽을 보면 중간에 안과 밖이 보이는 구멍이 나 있는데 바로 무장대의 습격에 대비하여 밖으로 총을 겨누던 총구이다. 이와 같은 전략촌의 성이나 마을 단위의 방어벽은 여러 마을에 있었으나 과수원, 도로 등 개발 과정에서 대부분 사라졌다.



(2) 의귀 현의합장묘

지도6. 의귀 현의합장묘 지도



낙선동 성터에서 의귀 현의합장묘까지는 시간이 꽤 걸린다. 40여 분 정도로 여유 있게 잡고 가는 것이 좋다. 남원을 의귀리 4거리에서 동쪽(신흥리 방면)으로 조금 가면 제3 의귀교가 나오는데 여기서 100m 지점 왼쪽 길가에 무덤

3기가 있다. 이곳이 현의합장묘이다.

의귀초등학교에는 9연대 소속 군인 2개 중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당시 먼소 재지였고 중산간 부락이어서 토벌군의 중심 캠프가 차려져 있었다. 이들은 매일

저녁 폭도를 소탕하러 간다고 나갔는데 어느 날 토벌대는 폭도 토벌을 위해 학교를 나간다고 거짓 정보를 흘리고 매복해 있었다. 정보를 접한 무장대는 학교를 습격했으나 매복해 있던 토벌대에 의해 큰 손실을 입었다. 무장대가 후퇴한 후 군인들은 무장대에게 토벌작전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는 혐의를 씌워 주민 20~30 명을 총살하였다. 이들은 남원으로 이송될 주민들이었는데 사살 후 한 곳에 가매장했다. 수개월이 지난 후 유족들이 찾아보게 되었으나 누구의 시신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몸에 신표가 있는 시신은 가족들이 찾아갔으나 나머지 10여 구의 시신은 제3 의귀교 동쪽에 봉분 세 개를 만들고 합장을 했다.

초등학교들은 흥미를 나타내지 않을지도 모른다. 보통 무덤과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낙선동에서 이동해 오는 동안 충분한 설명을 통해 그 의미를 알도록 해야 한다. 제1코스에 있는 백조일손지묘와 비슷한 성격의 유적이거나 규모나 학살 시기에 있어 조금 차이가 있다.

(3) 표선 백사장

지도7. 표선백사장 지도



의귀 현의합장묘에서 동쪽으로 향하면 표선백사장을 갈 수 있다. 20여 분이면 표선민속촌 입구에 도착하는데 이곳에서 내려 백사장을 돌아보는 것이 좋다.

표선 민속촌 입구에 위치한 표선 해수욕장 백사장은 썰물이면 100여 m 이상 모래 밭이 드러난다. 이 아름다운 백사장에서 4·3 당시 집단학살이 자행되었다. 4·3 당시 표선초등학교에 수용되었던 가시리 등 중산간 마을 주민들이 이곳에서 희생되었다. 17세 이상 40세까지 전원 집합하라는 군경의용대의 지시로 마을회관에 집합하였는데 표선리까지 가서 조사한다고 하여 전원 연행한 후 아무런 심문도 없이 이곳으로 끌고 와 총살하였다. 제2연대 소속

군인들에 의해 토산리 주민들이 48년 11월 17일, 18일, 19일, 22일, 27일에 집단적으로 희생된 곳이기도 하다.

표선민속촌 현장학습을 갔다오다가 잠시 차를 세우고 설명할 수도 있다. 점심을 이곳에서 하는 것이 좋다. 점심으로는 좀 늦은 시간이 될지도 모르나 시원한 바다 바람과 함께 하는 도시락 맛을 느낄 수 있다.

(4) 다랑쉬 마을과 다랑쉬 굴

지도8. 다랑쉬 지도



표선백사장에서 일주도로를 따라 제주시로 오다가 세화에서 송당으로 가는 중산간 도로로 들어서서 10여 분 가면 다랑쉬오름(월랑봉) 입구에 도착한다.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 있어 답사에는 어려움이 없다. 다른 길도 있

으나 표선에서 올 때는 세화로 진입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오름 밑에서 내려 2~3분 걸으면 다랑쉬 마을터를 답사할 수 있다. 정자나무, 정자터, 우물, 빨래터, 집이 들어서 있던 대나무 밭과 길의 흔적을 아이들 스스로 찾아보게 할 수도 있다. 지금은 방갈로가 들어서 당시 흔적을 많이 훼손되 버렸으나 이 또한 훌륭한 교육 자료이다. 동쪽으로 난 시멘트 도로를 따라 들어가 밭 하나를 넘으면 11기의 시신이 발견된 다랑쉬굴이 있지만 폐쇄되어 답사가 불가능하여 그 의미만 설명할 수 밖에 없다.

섬 동녘 벌에서 가장 높고 큰 자태를 뽐내는 다랑쉬오름은 4·3 때 무장대의 요충지로서 봉화를 올렸던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동남동 쪽으로 400여 m지점에 다랑쉬굴이 있다. 입구를 시멘트로 막아 봉쇄하고 흙을 덮어 버려서 초행자는 찾기 힘들어 경험자와 함께 가는 것이 좋다.

토벌대의 강경 진압 작전이 기승을 부리던 48년 12월 18일 9살 철부지 어린

아이서부터 50대의 아주머니까지 민간인 11명이 9연대 2대대에 의해 굴속에서 질식사했다. 당시 토벌에 참여했던 증언자는 처음에는 수류탄을 던졌고 그래도 나오지 않자 잡초로 불을 지핀 뒤 구멍에 넣어 죽게 만들었다고 한다. 또한 당시 무장대였던 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상부의 지시를 받아 시신을 정돈하려고 가보니 돌 구석이나 땅 속에 코를 파묻고 죽어 있었다고 한다. 발견 당시 이 굴의 입구는 직경 60~70cm로 좁고 낮아 한 사람이 겨우 엎드려 들어갈 수 있었다. 굴 안에는 물 허벅과 그릇, 비너, 허리띠, 고무신, 무쇠솥, 낫수저, 햇불 통 등 유물이 함께 있었다.

이 곳에서 발견된 시신들은 유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장하여 바다에 뿌려졌다. 시간 여유를 보면서 다랑쉬오름은 어려워도 아끈 다랑쉬오름을 올라 보는 것도 좋겠다. 주변의 멋진 경관들을 감상하는 것도 답사의 피로를 풀고 힘을 줄 것이다. 다랑쉬 마을의 답사는 한 시간 정도로 넉넉하게 잡는 것이 좋다.

(5) 북촌 읍광밭

지도9. 북촌리 읍광밭 지도



다랑쉬에서 북촌학살터인 읍광밭¹⁰⁴⁾까지는 30분이 소요된다. 한 마을 단위로는 가장 큰 희생을 낳은 북촌리 학살터가 북촌초등학교와 그 서쪽의 밭이다.

북촌리는 4·3 당시 완전히 불타 없어진 뒤 새로 건설

된 전형적인 해안마을이다. 북촌리의 비극은 1949년 1월 17일 토벌대 2명이 북촌리 마을 어귀에서 무장대의 습격으로 숨지면서 시작되었다. 후환이 두려운 유지들은 시체를 끌고 경비대 대대본부로 갔으나 군인들은 경찰 가족 1명을 뺀 나머지 8명을 서우봉으로 끌고 가 모두 사살했다. 뒤이어 군인들은 마을로 들어와

104) 읍광밭은 특정 지역의 지명이 아니고 읍광진 밭(주변보다 읍쪽 들어간 밭)을 말하는 일반적인 이름이다.

300여 가구에 이르는 마을을 완전히 불태워 없애고 주민들을 초등학교에 모이게 한 뒤 경찰과 군인가족을 분리시키고 나머지 주민들을 무차별 학살했다. 학교 운동장 뿐만 아니라 인근의 밭으로 수십 명씩 끌고 가 처형했다.(비록 소설이지만 현기영의 소설 '순이 삼촌'에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 학살극은 빨갱이 가족의 색출 명분으로 계속되다가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상급 지휘관의 중지 명령으로 끝났다. 이틀 동안 400여 명의 학살되었다. 이 사건 한 달 전인 28년 12월 16일에도 토벌대의 말을 듣고 자수한 주민 23명이 학살되기도 했다. 대학살 후 북촌리는 무남촌(無男村)이 되어 버렸다. 대부분이 남자들이 죽고 살아남은 자들은 산으로 올라갔기 때문이었다.

학살극이 일어난 지 5년 후인 1954년 이른바 '아이고 사건'이 발생했다. 학교를 재건하기 위해 주민들이 결궁놀이를 하면서 운동장에 모였는데 한 주민이 '이 곳은 4·3 때 우리 부모 형제들이 죽은 곳인데 억울한 영혼들에게 잔이라도 올립시다.'고 한 것이 본격적인 위령제가 되어 '아이고' 하면서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인근 마을까지 퍼졌다. 그러나 이 일이 경찰에 보고되어 주민 10여 명이 끌려가 고초를 겪고 난 뒤로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다.

1993년 마을 원로들의 모임인 북촌리 원로회가 진상 규명 의지를 모아 실태를 조사한 결과 희생자는 모두 412명이며 이 중 무장대에 희생된 주민은 3명이고 나머지 409명은 토벌대에 희생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북촌리는 4·3 진상규명의 의지를 일깨워준 제주 출신 소설가 현기영의 작품 '순이 삼촌'의 무대이기도 하다. 지금은 당시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 이곳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은 물론 북촌리의 수난과 무자비한 토벌에 대해서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평범하게 보이는 제주도 곳곳이 역사의 현장임을 일깨우는 일이다.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운동장과 주변의 밭에서 400명 정도가 학살 당했던 사실을 아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V. 요약 및 결론

4·3은 8·15 광복(光復)과 분단고착화(分斷固着化) 과정에서 일어난, 제주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4·3을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은 처절한 수난과 아비규환의 비명과 인간의 잔혹함과 만나는 길이며, 그 간의 억압에 굴복하여 말뚝하고 숨죽여 있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르치는 일이다. 그래서 4·3을 교육한다는 것은 정의를 살리는 길이며 인간성을 회복(回復)하는 길이다.

본 연구는 그간의 다양한 논의와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4·3에 대해 대략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통하여 초등학생을 위한 4·3 관련 교육방안(教育方案)을 마련하였다. 초등학생은 물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현대사(韓國現代史)의 인식 수준이 낮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자료의 개발이나 시수(時數)의 확보도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3 교육의 시급성 때문에 부족한대로 초등학생을 위한 4·3 교육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4·3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4·3의 개요(概要)를 정리하였다.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하나 ‘항쟁(抗爭)’이란 용어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이 시각으로 정리하였다. 4·3은 광복 후 정부수립과정에서 통일정부수립을 위한 노력의 일환(一環)이었으며, 광복 후 제주에 진주한 미군정(美軍政)과 경찰, 우익단체(右翼團體)들의 만행(蠻行)에 대한 저항(抵抗)이었다. 이런 도민의 저항을 미군정과 이승만(李承晩) 정부는 공산주의에 대한 방벽(防壁)을 구축한다는 구실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강경(強硬)진압 방식으로 일관함으로써 엄청난 인명의 희생을 불러왔다. 당시 희생자 가운데 80%가 넘는 인명 피해가 토벌과정(討伐過程)에서 이루어진다. 초기(初期)에는 무장대(武裝隊)에 의한 방화나 무분별한 테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것으로 인해 군과 경찰, 서북청년단을 위시한 우익단체들에 의한 무자비한 살상을 덮어두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4·3은 광복공간에서 통일운동의 시발점(始發點)이자 제주도에서 벌어

진 민의(民意)에 반하는 상황에 반기를 든 민중항쟁(民衆抗爭)의 역사이며 정부에 의한 수난(受難)의 역사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중심과제(中心課題)로 초등학생을 위한 교육 방안으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첫째, 초등학교 사회과 관련 단위에서의 부분적 접근을 통한 교육방안을 마련하였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3학년 2학기에 4·3 연구소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1회 투입이 가능하고, 4학년 2학기에 4·3 위령탑을 소개하는데 1회, 선택학습으로 4·3 유적지 홍보자료를 제작하는데 1회 등 2차례 투입이 가능하다. 또한 6학년 1학기에 정부수립과정에서의 사건으로 4·3의 개요를 1회 투입할 수 있으며 한국전쟁의 영향과 관련하여 첫알오름 학살의 모습을 투입하는 등 2회 투입이 가능하다. 초등학교 사회과 관련 단위에 총 5회에 걸쳐 투입이 가능한데 이 단위에 분절 투입할 자료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투입 시기도 제시하였다.

둘째, 4·3을 특설단원(特設單元)으로 설정하여 주제접근법(主題接近法)에 의한 교육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제접근법에 의한 학습은 4·3의 총체적 이해를 돕기 위한 방안으로 전반적인 영역을 고루 다루었으나 그 주안점은 4·3의 개요와 4·3 관련 유적학습에 두었다.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투입을 계획하였으며 시수 확보가 용이하도록 2차시 분량으로 조직하였다. 주제 접근 학습인 점을 고려하여 역할극, 예화, 인물학습을 위한 예시자료를 마련하였다. 특히 주제 학습을 통한 4·3 학습이 끝나면 이를 바탕으로 4·3 역사신문을 제작하는 과제를 개인별 또는 조별로 부여하여 가정에서의 후속학습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현장체험(現場體驗)학습을 통한 답사교육 방안을 마련하였다. 4·3 관련 유적 22곳을 소개하였는데, 대규모 학살과 관련한 유적, 유격대의 활동과 관련한 유적, 도민의 수난과 관련한 유적, 잃어버린 마을 유적 등 성격별로 4가지로 구분하여 묶어 놓았다. 그러나 초등학생들이 본 연구에 소개된 유적을 모두 답사하기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소개된 유적을 부분적 접근에 의한 분절투입(分節投入)과 주제접근법에 의한 주제학습(主題學習)의 자료로 활용 가능하고 비교적 답사가 용이하며 4·3의 전반적 이해를 돕는 유적을 지역적으로 묶어 2회 답사 코

스로 조직하였다.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으로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는데 서부는 노형 잃어버린 마을 유적에서 송악산 일대와 큰넓궤와 관련한 무등이왓 답사, 무장대의 활동과 관련한 새별오름까지 엮었으며, 동부는 낙선동 성터를 시작으로 의귀 현의합장묘, 표선 백사장, 다량쉬 마을유적, 북촌 움팡밭을 돌아오는 과정을 엮었다.

그러나 4·3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여기서 제시한 것 외에 더 다양한 방법과 자료가 마련되고, 현장 교사들의 의지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論文)은 4·3 교육의 단초(端初)를 마련하기 위한 작은 노력이다.



參 考 文 獻

<單行本 資料>

- 고문승 편저(1989), 『박헌영과 4·3 폭동』, 산아문화사.
- 교육부(2001), 『초등학교 사회 : 사회과탐구 3~2』,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부(2001), 『초등학교 사회 : 사회과탐구 4~2』,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부(2001), 『초등학교 사회 : 사회과탐구 6~1』,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부(2001), 『초등학교 교사용지도서 사회 4~2』,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부(2001), 『초등학교 교사용지도서 사회 6~1』,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부(2001), 『초등학교 교사용지도서 사회 3~2』,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1988), 『對 非正規戰史』, 동위원회.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1967), 『韓國戰爭史 : 解放과 建軍』, 동 위원회.
- 국사편찬위원회(2000), 『고등학교 국사』 하, 교육부.
- 국사편찬위원회(2000), 『고등학교 국사』 교사용 지도서, 교육부.
- 김남식(1984), 『南勞黨 研究』, 돌베개.
- 김봉현(1978), 『濟州道 血の 歴史; 4·3 武裝鬪爭 記錄』, 대판 국서 간행회.
- 김봉현, 김민주(1963), 『濟州道 人民の 4·3 武裝鬪爭史』, 대판, 문우사.
- 김점곤(1983), 『韓國戰爭과 勞動黨 戰略』, 박영사.
- 김정원(1985), 『分斷 韓國史』, 동녘.
- 내무부 치안국(1972), 『韓國警察史』 1~2권, 내무부 치안국.
- 노민영(1988), 『잠들지 않는 남도』, 온누리.
- 대검찰청 수사국(1965), 『左翼事件 實錄』 제 1권, 동 수사국.
- 박세길(1988),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1, 돌베개.
- 박일원(1984), 『南勞黨의 조직과 전술』, 세계.
- 송춘영(2000), 『역사교육의 이론과 실제』, 형설출판사.
- 아라리연구원(1988), 『제주 민중항쟁』 전 3권, 소나무.
- 역사문제연구소 외(1999), 『제주 4·3 연구』, 역사비평사.

오성찬(1988), 『한라의 통곡 소리』, 소나무.

유엔 조선위원단(1949), 『유엔 위원단 보고서』, 임명삼 역, 국제신문사.

육군대학(1967), 『군사평론 : 제주도 공비토벌 작전』, 제 99호.

육군본부(1954), 『共匪討伐史』, 육군본부 전사감실.

이원순, 이정인(1985), 『역사교육 : 이론과 실제』, 정음문화사.

자유수호협의회(1997), 제주 4·3 사건 자료집, 선진인쇄사.

제민일보 4·3 취재부(1998), 『4·3은 말한다』 전5권, 전예원.

제주 4·3연구소(1991), 『제주항쟁』, 실천문학사.

제주 4·3연구소(1989), 4·3 자료집, 동 연구소.

제주 4·3 연구소(1986), 『4·3 자료집』, 동연구소.

제주 4·3 연구소(1999),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역사비평사.

제주 4·3 제 50주년 학술·문화 사업추진위원회(1998),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학민사.

제주 4·3연구소(1990), 『4·3 長征』 전 1~6권.

제주 4·3연구소(1994), 『이제사 말함수다』 1~2권, 도서출판 한울.

제주 4·3연구소(1986), 『연구화보』, 동연구소.

제주도(2001), 『제주 4·3 평화공원 조성 기본 계획』,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도교육연구원(1996), 『郷土史 教育資料』, 태명 인쇄사.

제주도교육청(2000), 『제주체험학습프로그램』, 삼화 인쇄소.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1997), 『4·3 피해 조사보고서』 수정 보완판.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2000), 『4·3 피해 조사보고서』 수정 보완판.

제주도의회(2000), 『제주 4·3 자료집 : 미군정보고서』.

조남수(1988), 『4·3의 진상』, 월간 관광제주.

조남현(1993), 『제주 4·3 사건의 쟁점과 진실』, 돌담.

조병옥(1959), 『나의 회고록』, 민교사.

주경식, 한재호(1999), 『국사: 사회과 탐구』 교사용, 도서출판 디딤돌.

주경식, 김계삼, 이정한(2000), 『수능 국사』, (주) 교평.

한국교육방송원(2000), 『EBS TV 고교 교사용 국사』, (주) 교평.

<學位 論文>

- 고효숙(2000), “향토사 학습의 내용 조직과 학습 방법 : 제주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석사학위.
- 김대근(1996), “제주도 4·3 사건의 정치적 배경에 관한 연구”, 동의대, 석사학위.
- 김지수(2000), “4·3과 중산간 마을의 거주공간 변모 : 무등이왓을 사례로”, 제주대, 석사학위.
- 김혜숙(1991), “국사교육에서 자료 활용 방안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
- 배성대(2000), “초등학교 역사교육에 있어서 효율적인 사료학습 방안 연구”, 전주대, 석사학위.
- 박명림(1988), “제주도 4·3 민중항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
- 박진순(1996), “제주도 4·3 항쟁연구 : 배경 및 성격 중심으로”, 성신여대, 석사학위.
- 신성기(1991), “국사교육에서 주제접근법에 의한 향토사 학습방안”, 경상대, 석사학위.
- 신용중(1987), “미.소의 대 한반도 정책 1943 - 1948”, 한양대 정의과, 박사학위.
- 양도필(2001), “초등학교 향토사 교육에서 인터넷 활용방안”, 제주대, 석사학위.
- 양정심(1995), “제주 4·3 항쟁에 관한 연구 : 남로당 제주도 위원회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학위.
- 양한권(1988), “제주도 4·3 폭동 배경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 유상영(1987), “초창기 한국 경찰의 성장 과정과 그 성격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
- 윤석찬(2001), “4·3이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 : 교육시설의 피해를 중심으로”, 제주대 역사교육과, 석사학위.
- 이영권(1999), “제주도 유력자 집단의 정치사회적 성격 : 1945~1960”, 제주대 사회학과, 석사학위.
- 이정주(1999), “제주 호미마을 여성들의 생애사에 대한 여성학적 고찰 : 4·3 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학위.
- 이제실(1995), “국사수업에 있어서 향토사 자료의 활용방안 : 수원의 정조관련 유적을 중심으로”, 공주대 역사교육과, 석사학위.

정민혜(1985), “남로당의 적화 전략에 대한 연구 : 4·3 사건과 관련하여”, 제주대 윤리교육과, 석사학위.

한상희(2001), “중학교 국사교육의 사료학습 연구”, 제주대 역사교육과, 석사학위,

John Merrill(1980), “The Chejudo Rebellion”, Journal of Korea studies, No.2
Vol 3.

<一般研究 論文>

고창훈(1989) “4·3 민중항쟁의 전개와 성격”, 『해방전후사의 인식』 4, 한길사.

고창훈(1989), “4·3 민중운동을 보는 시각과 과제”, 『실천문학』 봄호.

김남식(1990), “전쟁 전후 남한에서의 무장유격투쟁의 성격”, 『한국전쟁 연구; 한국현대사의 이해』 1, 태양.

김동만(1991), “제주지방 건국준비위원회 인민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역사비평』 봄호.

김민주(1988), “제주도 4·3 사건”, 『아사이 저널』, 4. 15.

김인화(1963), “4·3 사건 이재민 원주지 복귀 현황; 2차년도 사업 계획”, 『제주도』 제 18호.

김종민(1998), “제주 4·3항쟁 : 대규모 학살의 진상”, 『역사비평』, 서울.

김창후(1993), “4·3 항쟁 봉기와 학살의 전모”, 『역사비평』, 서울.

박명립(1989), “제주도 4·3 민중항쟁의 전개과정에 대한 약술”, 『제주도 현대사 재조명 심포지엄』 발표문.

부만근(1983), “4·3 사건의 상처는 다 아물었나?”, 『뿌리 깊은 나무』, 5월호.

사학회(1988), “해방공간에서의 무장 투쟁에 관한 연구”, 『건대』 제 41호.

송건호(1986), “해방 직후 사회 운동의 분출과 그 양상”, 『한국사회 연구』 4, 한길사.

송춘영(1990), “국사교육에 있어서 향토사 교재의 지도 방안”, 『역사교육논집』, 제13, 14집, 역사교육학회.

- 양조훈(1999), “제주 4·3 양민학살사건”,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역사비평사.
- 양조훈(1998), “제주 4·3의 역사적 조명”, 『제주도 연구』 15집.
- 역사연구회(1987), “제주도 4·3 봉기의 원인과 결과”, 『연세』 제 25호.
- 오금숙(1999), “4·3을 통해 바라본 여성인권 피해사례”,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역사비평사.
- 임건언(1986), “제주 사태와 여수-순천 사건”, 『한국현대사』, 삼민사.
- 임대식(1999), “제주 4·3 항쟁과 우익청년단”, 『제주 4·3 연구』, 역사비평.
- 정석표(1988), “제주도 폭동과 토벌 작전”, 『軍史』,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其他 資料>

- 강성건, ‘내가 살아온 길’, 제주신문 1979. 9. 26~11. 8 35회 연재.
- 김양학, ‘4·3 사건 실상기 : 우리의 한’ 필사본, 토산리 4·3 피해 진정서.
- 김익렬, ‘遺言, 4·3의 진실’, 제주신문 1989. 8. 15 ~ 89. 9. 23 .
- 박서동(1990), ‘영원한 우리들의 아픔 4·3’, 월간 관광제주 12월호.
- 박희라(1989), ‘한 맺힌 4·3, 일어서는 제주’, 『말』 제 32호.
- 서재권(1949), ‘평란 제주도 기행’, 『신천지』 .
- 오성찬(1988), ‘40년 제주의恨 4·3 사건의 진상’, 『신동아』 4월호.
- 임두홍, ‘내가 겪은 사건; 4·3 폭동’, 경향신문 1964. 1. 3~ 1. 16.
- 장창국,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육사 졸업생들’, 중앙일보 83. 1. 14 ~ 1.21 .
- 정동웅(1948), ‘亂動 濟州의 새 悲劇 : 박대령 살해범 재판기’, 새한민보 2~6호.
제민일보 연재물 자료.
- 제주신보 기사집 1947년 1월 1일 ~ 1948년 4월 20일.
- 조덕송(1948), ‘流血의 濟州道’, 『신천지』 7월호.

<文學作品>

- 김명식(1989), 『유채꽃 한아름 안아 들고』, 동광출판사.
- 김석범(1988), 『까마귀의 죽음』, 김석희 역, 소나무.
- 김석범(1988), 『火山島』 전 5권, 이호철, 김석희 역, 실천문학사.
- 김석희(1988), “땅울림”, 『실천문학』 여름호.
- 김용해(1989), 『民衆日記: 4·3을 노래한 詩集』, 동진문화사.
- 오성찬(1989),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 실천문학사.
- 이산하(1986), “한라산”, 『녹두서평』 1, 녹두 6.
- 조정래(1989), 『太白山脈』 전 10권, 한길사.
- 한림화(1991), 『한라산의 노을』, 한길사.
- 현기영(1979), 『순이 삼촌』, 창작과 비평사.
- 현기영(1986), 『아스팔트』, 창작사.
- 현길언 외(1988), 『4·3도 유채꽃』, 전예원.
- 현길언(1985), 『우리들의 스승님』, 문학과 지성사.

부 록

4·3 관련 연표



* 이 연표는 제민일보 취재부(1998), 『4·3은 말한다』(전 5권)의 “4·3일지”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가 첨삭하여 정리한 것임.

4·3 관련 연표

☞ 1945년

- 45.08.15 일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
제주에 일본군 제58군 병력 66,780명 잔존.
- 45.09.02 맥아더, 북위 38도선을 미·소 양군의 군사 경계선으로 포고 .
- 45.09.08 하지 중장이 이끄는 미 24군단, 인천을 통해 한국에 진주.
- 45.09.22 제주도 인민위원회(위원장 오대진) 결성(제주농업학교).
- 45.09.28 일본군 제58군의 항복 조인을 위해 미군 제주 상륙,
제주농업학교에서 항복 조인식을 가짐.
- 45.10.10 군정장관 아놀드 소장, 북위 38도선 이남의 유일한 정부는
미군정이라며 인공의 존재 거부 성명 발표.
- 45.11.05 인민위원회 산하 보안대에 한라단 단원 피습 사건 발생.
- 45.11.10 군정 업무팀인 미군 20연대 59군정 중대 입도.
- 45.12.09 조선공산당 제주도위원회 결성.
- 45.12.12 중문면 주민들, 면장 집에 몰려가 “공출 쌀 내놓으라”고 시위 하다가 이를 거절하는 면장을 집단 구타. 신고 받고 출동한 미군이 시위 군중에 발포하여 민간인 1명 사망, 1명 중상.

☞ 1946년

- 46.01.05 신탁통치반대 군중대회.
- 46.02.14 미군정의 자문기관으로 '민주의원'(의장 이승만)발족.
- 46.02.15 민주주의민족전선(약칭 '민전') 결성.
- 46.03.20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개막.
- 46.05.15 미군정, '정관사 위조지폐 사건' 진상 발표.
- 46.06.03 이승만, 정읍에서 남한 단독정부 수립 시사 발언.
- 46.07.14 김구, 한독당 제주도당부(위원장 홍순용)대회 참석차 내도 제주 북교에서 시국 강연.
- 46.08.01 제주도제 실시-2군 1읍 12면 행정체제(지사 박경훈, 북제주군수 박명효, 남제주군수 김영진).
- 46.08.2 콜레라에 의한 제주도 사망자 360명(총 환자 수 708명).

- 46.09.11 제주감찰청(청장 김대봉) 발족.
- 46.10.01 '10월 대구사건' 발발.
- 46.10.18 추곡 수집량, 제주도 5천 석으로 결정(미곡 수집 반대 운동이 일어남).
- 46.10.29 과도입법의원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제주도에서만 유일하게 좌파 인물인 문도배·김시탁 선출.
- 46.11.16 조선경비대 제9연대(연대장 장창국 부위) 창설(제주도 모슬포).
- 46.11.23 남로당 결성(제주의 경우 8·15 직후에 조직된 조선공산당).

☞ 1947년

- 47.01.11 제일동포의 회사품을 신고 오던 복시환이 서귀포 근해에서 밀수 혐의로 나포.
- 47.01.12 제주도 민청(위원장 김택수) 결성.
- 47.02.01 광복청년회 제주도지회 (위원장 한효현 → 김인선) 결성.
- 47.02.10 제주읍내 중·고교생 1천여 명, '양과자 반대' 등 반미구호를 외치며 관덕정 광장서 시위.
- 47.02.17 제주도 3·1투쟁기념준비위원회(위원장 안세훈) 결성.
- 47.02.23 제주도 민전(공동의장 안세훈·이일선·현경호) 결성.
- 47.03.01 제28주년 3·1절 기념 제주도대회 제주북교에서 개최. 제주읍과 애월·조천면 주민 등 3만 명 참가.
- 47.03.05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제주도 3·1사건 대책 남로당 투쟁 위원회' (위원장 김용관) 결성. 대정면당의 건의로 전도 총파업 결의.
- 47.03.10 제주도청을 시발로 경찰 수뇌부 인책사임과 발포경관 처벌 등을 요구하며 민·관합동 총파업 돌입. 13일까지 166개 기관단체에 서 41,211명 파업에 가세.
- 47.03.14 조병옥 경무부장 내도.
- 47.03.15 전남경찰청 소속 122명, 전북경찰청 소속 100명 등 응원경찰대 222명 추가로 내도. 조병옥, 파업주모자 검거 명령.
- 47.3중순 미 CIC 제주사무소 설치.
- 47.03.17 응원경찰대, 중문 지서 앞에서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군중에 발포, 8명 중경상.

- 47.03.19 조병옥 경무부장, 관덕정 앞에서 벌어진 경찰 발포에 대해 “치안 유지의 대국(大局)에 입각한 정당 방위였다”고 주장하는 담화문 발표.
- 47.03.21 CIC, 제주도의 우익 정당·단체는 섬 전체적으로 겨우 1,000명의 단원을 확보한 불완전한 조직체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섬주민 60~80%의 성향이 좌익이라고 중앙에 보고.
- 47.03.22 남로당 지도 아래 전국적인 총파업.
- 47.03.24 민전 중앙본부, 제주사태 특별조사단(단장 오영 조사부장)을 제주에 파견했으나 경찰에 의해 서울로 압송.
- 47.04.03 3·1사건 연루자 군정 재판 첫 개정. 군정 재판 1호는 제주농업학교 영어교사 한병택으로 체형 6월 선고.
- 47.04.04 민관 수습 회의 개최.
- 47.04.10 경찰 당국, 파업 검속자는 500명에 이르며 이 중 260명을 군정재판에 회부했다고 발표.
- 47.04.30 제주도 민청위원장 김택수, 검거됐으나 미 CIC의 조사 받고 석방.
- 47.05.21 미소공동위원회 재개.
- 47.05.23 3·1사건과 관련 재판에 회부된 328명에 대해 공판 완결. 체형 52명, 집행유예 52명, 벌금형 56명, 나머지 168명은 기소유예 및 불기소 처분.
- 47.06.02 제주여중학생들, 과소교육 중단 등을 요구하며 동맹 휴학.
- 47.06.06 구좌면 종달리에서 민청 집회를 단속하던 경찰관 3명이 청년들로부터 집단폭행 당한 세칭 ‘종달리 6·6 사건 발생’. 이 사건으로 43명 기소돼 이 중 10명이 실형 선고.
- 47.07.03 제주농업학교 학생들, 뼈라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이 퇴학처분을 받자 이에 항의해 집단 퇴학원을 제출.
- 47.07.18 전 지사 박경훈, 제주민전 의장에 추대.
- 47.08.07 제주에서 ‘미군을 축출하자’는 반미 뼈라 돌아다님.
- 47.08.08 안덕면 동광리에서 마을 청년들이 곡물 수집 관리 3명에 집단 폭행.
- 47.08.12 미군정, ‘8·15 폭도 음모 사건’과 관련해 좌파 세력에 대한 대규모 검거 작전 전개(전국 검속자 13,769명).
- 47.08.13 경찰, 조천면 북촌리에서 뼈라 붙이던 소년을 추격하며 발포해 주민 3명 총상. 흥분한 주민 200여 명, 경찰관 3명을 붙잡아 못매를 가한

- 뒤 함덕 지사로 몰려가 항의 시위. 마을주민 40여 명 체포.
- 47.08.14 경찰, 제주민전 의장 박경훈을 비롯 도청 간부·사회인사 등 30여 명을 '8·15 폭동 음모'와 관련해 체포. 박 의장은 3일만에 석방.
 - 47.09.07 도 식량사무소장 박태훈, 자택에서 정체 불명 청년들로부터 테러 당함. 서청단원 소행으로 밝혀짐.
 - 47.09.17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미국, 한반도문제를 UN에 상정.
 - 47.09.26 제1구 경찰서장 김차봉 해임. 후임 서장에 문용채(평남출신) 발령.
 - 47.10.06 제주지법, 포고령 위반으로 기소된 남로당 제주도위원장 안세훈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천 원을 언도하고 석방.
 - 47.10.07 구좌면 행원리에서 우익 조직 확장 운동을 벌이던 대동청년단원과 마을청년 충돌. 경찰 16명 연행.
 - 47.10.19 미 CIC 제주사무소, 우익정당 당원확장 과정에서 테러가 자행되고 있다고 중앙에 보고.
 - 47.10.21 미 CIC 제주사무소의 개입으로 대동청년단 제주도 단부 결성.
 - 47.11.02 서북청년회 제주도본부(위원장 장동춘) 결성대회.
 - 47.11.18 서청단원들, 자금모금을 위한 광범위한 테러 행위로 인하여 미 CIC와 지방경찰로부터 경고 받음.
 - 47.11.25 CIC 제주사무소는 서북청년회 제주도단장이 '제주도는 조선의 작은 모스크바'라고 말해왔다고 상부에 보고.
 - 47.12.03 제3대 제주도 군정장관으로 맨스필드 중령 부임.

☞ 1948년

- 48.01.08 UN조선위원단 입국.
- 48.01.12 구좌면 김녕리에서 지서, 서북청년회, 대동청년단 등의 간판이 훼손되는 사건 발생.
- 48.01.22 군정경찰, 조천에서 있었던 남로당 집회장 덮쳐 106명 검거. 미군 정보팀, 압수한 문서에 의하면 '2월 중순과 3월 5일 사이에 폭동 계획이 있다'고 보고. 26일까지 남로당 관련자 115명 추가 체포.
- 48.01.23 미군 정보팀, '제주도의 좌익은 반미적이 아니며, 최근의 테러는 우익이 자행했다'고 상부에 보고.
- 48.02.01 9연대장 이치업 중령 후임으로 김익렬 소령 임명.

- 48.02.07 남한 단독 선거에 반대해 전국적으로 '2·7 구국 투쟁' 발생.
- 48.02.10 조병옥 경무부장, '2·7 폭동'으로 전국적으로 39명이 사망했으며 8,479명을 검거했다고 발표.
- 48.02.26 UN 임시총회에서 'UN 한국위원단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총선거를 실시하자'는 미국안이 채택. 단독선거 시행 현실로 나타남.
- 48.03.01 UN 한국위원단, 남한만의 단독 선거 결정 발표.
- 48.03.02 함덕지서가 공격을 받았으나 경찰이 공포를 쏘아 시위자들을 해산 시킴.
- 48.03.04 조천지서에서 취조받던 조천중학원 학생 김용철, 고문으로 사망.
- 48.03.10 조천중학원 학생들과 주민들, 지서에 몰려가 고문치사 사건 항의 시위.
- 48.03.11 김구·김규식·김창숙·조소앙·조성환·조완구·홍명희 등 7인 공동성명으로 5·10 선거 반대.
- 48.03.12 성산면 관내 청년 66명, 남로당을 탈퇴해 대동청년단에 가입한다는 성명 발표. 이후 남로당 탈퇴 성명 줄 이음.
- 48.03.14 모슬포지서에서 영락리 출신 청년 양은하가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
- 48.04.03 무장대, 무장 봉기.
- 48.04.04 미군정, 제주도 사태를 '치안상황'으로 간주해 각 도의 경찰청에서 1개 중대씩 차출, 8개 중대 1,700명의 본토 경찰 병력을 제주에 파견하는 것을 승인.
- 48.04.05 제주 감찰청 내에 '제주비상경비사령부' (사령관 김정호, 경무부 공안국장) 설치.
- 48.04.06 조병옥 경무부장, 서울에서 기자 회견 통해 제주도 사태의 인명 피해 상황 밝히고 응원경찰대 급파했다고 발표. 조병옥, 서청본부에 반공정신이 투철한 서청단원 500명을 제주에 파견해 줄 것을 요청.
- 48.04.10 타 지역과의 해상 교통망 일체 차단한다는 내용의 제주도 도령 공포. 제주경찰감찰청장, 9연대 방문해 경비대 병력 지원 요청했으나 김익렬 연대장 '치안 상황에 군이 개입할 수 없다'고 거절.
- 48.04.13 9연대, 미군 주둔지와 정부 시설 경비 목적으로 특별 경비 부대 제주 읍에 파견 미군 당국, 본토에서 제주에 미군 증파.
- 48.04.15 남로당 제주도당 대회에서 무장 봉기 추진. 기존의 자위대 해체해

인민 유격대 편성.

- 48.04.16 제주도 인민유격대 총책 김달삼의 명의로 미군정을 상대로 '5·10 망국 단선 반대를 위한 무장 봉기 성명' 발표.
- 48.04.17 미군정, 그 동안 관망 상태의 9연대에 진압 작전 출동 명령. 9연대 군사 고문으로 정보장교 출신 드루스 대위 부임.
- 48.04.19 미군정 경찰 고문관 레스터 코퍼닝, 제주 시찰한 뒤 '섬 북부의 주민 대부분이 산 속으로 들어갔으며 경찰관은 신경 과민 상태에 놓여 있다' 는 요지의 정보 보고. 김구·김규식 등 평양 남북 정당·사회 단체 연석 회의 참석.
- 48.04.24 미군 정보기관, 유격대의 집결지로 애월면 '새별오름', '바리악', 조천면 '거문오름' 등 세 곳을 지목.
- 48.04.25 평화 협상 추진 중이던 김익렬 연대장에게 딘 장군의 고문이 나타나 초토화작전 감행 종용. 김 연대장 이를 거부. 미군정, 부산 5연대 1개 대대(대대장 오일균 소령)를 제주에 파병 명령.
- 48.04.28 구역초등학교에서 김익렬·김달삼 간의 평화협상 성사.
- 48.04.29 딘 군정장관 극비 제주시찰.
- 48.04·30 UP통신, 선거 관련 무력 충돌로 154명 사망했다고 전 세계에 타전. 남북 정당·사회 단체 연석 회의에서 남한 단독 선거 반대와 미·소 주둔군의 동시 철수 결의 발표.
- 48.05.01 오라리 방화사건 발생. 이 사건을 둘러싸고 경비대는 '우익단체의 소행'으로, 경찰은 '폭도의 소행'으로 엇갈린 보고를 함. 미군 기록 영화 '제주도의 메이데이'는 이 사건을 폭도의 소행으로 편집.
- 48.05.03 제주읍 남서쪽 야외에서 미군과 경비대의 인솔 아래 산에서 내려 오던 귀순자 대열을 향해 경찰이 중기관총으로 난사. 이 사건을 놓고 경비대는 평화협상을 방해하는 경찰의 소행으로, 경찰 측은 폭도들이 경찰로 가장해서 저지른 소행으로 각각 주장.
- 48.05.04 경무부 공보실장 김대봉, 기자회견에서 "제주 폭동에 팔로군 참가, 기관총 소지 등의 풍설은 전연 낭설이고 폭도들은 주로 제주도민이고 그 수효는 300~400명으로 추측된다"고 발표.
- 48.05.05 딘 군정장관, 제주도 미군정청 회의실에서 제주도사태의 진압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9인 최고 수뇌 회의 소집. 이 회의에서 경비대측은

- 화평 정책을, 경찰측은 토벌정책을 주장. 조병옥 경무부장과 김익렬 연대장 사이에 육탄전이 벌어짐.
- 48.05.06 김익렬 연대장 전격 해임. 후임 연대장에 박진경 중령 부임.
미군정, 수원에서 창설된 11연대 제주에 파병 명령.
 - 48.05.08 조병옥 경무부장, '제주도 사건의 치안 수습대책' 발표.
 - 48.05.10 5·10 총선거, 도내 각지에서 투표 거부 사태 발생.
 - 48.05.11 전국 200개 선거구 가운데 제주도 북제주군 갑구(투표율 43%), 북제주 군 을구(투표율 46.5%)등 2개 선거구만 과반수 투표 미달 사태 초래. 전국 투표율 94.9%. 제주도 전체 투표율은 62.8%.
제주도 군정장관, 섬의 봉쇄를 위해 2척의 구축함과 전투기를 제주 상공에 보내줄 것을 요청. 미군함 '크레이크'호 등이 출동, 북부 해안 봉쇄.
 - 48.05.12 박진경 중령의 9연대, 본격적인 수색 작전 착수해 첫날 제주읍 오등리 와 애월면 광령 2리에서 218명 체포.
 - 48.05 미 20연대장 브라운 대령, 제주지역 미군사령관으로 부임. 현지 진압 작전 최고지휘권 행사.
 - 48.05.18 조병옥 경무부장, 제주도 폭동 진압 위해 정예 부대 파견.
 - 48.05.20 9연대 소속 군인 41명이 모슬포 부대에서 무기와 장비·탄약 5,600 발을 갖고 탈영, 무장대에 가담.
 - 48.05.24 딘 군정장관, 제주도 2개 선거구에 대해 선거 무효 선언. 오라리 방화 사건 혐의자로 모슬포 부대 영창에 구금됐던 대동청년단 단원을 박진경 연대장이 석방.
 - 48.05.25 제주경비사령부, 4월 3일 이후 5월 25일까지의 인명피해 상황 발표. 사망은 경찰관 23명, 경찰관 가족 13명, 양민 2명, 관공리 3 명, 폭도 119명.
 - 48.05.28 경비대, 한라산을 동에서 서쪽으로 관통하는 산악 소탕 작전 전개.
 - 48.5하순 미군정, 탈영 사건 일으킨 9연대 해체하고 제주도 토벌 부대로 11연대 재편.
 - 48.06.01 박진경, 진압 작전에 대한 공로로 대령 진급.
 - 48.06.10 딘 군정장관, 6월 23일 시행 예정인 북제주군 갑·을 선거구의 재선거를 무기 연기한다고 발표.

- 48.06.11 5월 31일의 공판에 참석했던 서울 법조인들 제주 떠남. 귀경 후 제주도 사태의 원인에 대해 경찰·서북청년회·관공리의 잘못도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함.
- 48.06.14 미군정 이인 검찰총장, 제주도 사태의 원인으로 관공리의 부패 지적.
- 48.06.17 제주감찰청장에 제주출신 김봉호 총경 발령.
- 48.06.18 제11연대장 박진경 대령, 숙소에서 피살.
- 48.06.21 미군정, 11연대장에 최경록 중령, 부연대장에 송요찬 소령 임명.
- 48.06.23 조병옥 경무부장, ‘제주도 치안 수습에 대하여’란 담화를 통해 각계의 경찰 파오 지적을 반박하면서 “근본 원인은 소련의 야심인 조선의 소련 연방화에 있다”고 강변.
- 48.07.10 경무부, 철도관구 경찰청 소속 경찰관 300명 차출해 제주에 증파.
- 48.07.12 박진경 암살사건의 혐의자로 문상길 중위 등 8명 서울로 압송.
- 48.07.14 최경록 연대장, 기자회견에서 “폭도 수효를 정확히 모르나 약 200명 될 것 같다. 팔로군이나 북조선 인민군 가담 사실은 없다”고 피력.
- 48.07.15 9연대 재편성. 9연대장에 제11연대 부연대장 송요찬 소령 발령.
- 48.07.21 3여단의 제5연대와 6연대에서 1개 대대씩 차출, 9연대에 배속.
- 48.07.24 최경록 연대장의 11연대, 수원으로 철수. 이후 제주도 토벌 작전은 송요찬 연대장의 9연대가 맡음.
- 48.08.14 박진경 암살사건 군법회의,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신상우·배경용 하사관에게 사형, 2명 징역형, 2명 무죄 선고.
- 48.08.15 대한민국 정부 수립.
- 48.08.21 해주에서 ‘남조선 인민 대표자회의’ 개최.
- 48.08.24 ‘한미군사안전잠정협정’ 체결, 이에 따라 정부 수립 이후에도 군작전 지휘권이 미군에 귀속.
- 48.08.25 비상경비사령부, “최대의 토벌전 있으리라”라는 포고문 발표.
- 48.08.28 수도권경찰청 소속 경찰관 800명이 제주로 출발. 9개 정당 사회단체가 참가한 ‘제주도사태 진상 조사단’이 목포에 도착했으나, 당국은 제주행 제지.
- 48.09.23 이종형 등 친일파 주도로 반민법에 반대하는 ‘반공구국총궐기대회’ 개최. 이승만이 참석해 축사.
- 48.09.말 9연대, 중산간 마을을 중심으로 토끼몰이식 수색작전 전개.

- 48.10.01 광주지법서 제주 4·3 연루자 첫 공판, 22명중 11명에 무죄 선고. 무장대 총공세 재개.
- 48.10.11 제주도경비사령부(사령관 김상겸 대령) 설치.
- 48.10.17 송요찬 9연대장, 제주 해안에서 5Km 이상 지역에 통행금지를 명령하는 포고문 발표.
- 48.10.18 제주해안 봉쇄, 여수주둔 제14연대 1개 대대 제주도에 증파 명령
- 48.10.19 여수 14연대 반란사건 발생(10·19 여순사건). 김상겸 대령 파면, 송요찬 9연대장이 제주도경비사령부 사령관 겸임.
- 48.10.24 무장대, 이덕구 명의로 정부에 선전 포고, 토벌대에는 호소문 발표
- 48.11.초순 9연대 장병 1백여 명 불법 처형. 수장·화장·굴속 암매장의 방법으로 흔적 없앴.
- 48.11.02 이승만, ‘국군’이라 불리는 5만 병력의 훈련과 장비지급을 요청. 미군은 ‘국군’의 존재 자체를 불인정.
- 48.11.09 김두현 제주도총무국장 고문 치사 사건 발생.
- 48.11. 초도화작전 시작. 2백 명의 서북청년회 경찰대 제주 도착.
- 48.11.17 이승만, 계엄법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국무회의 의결 거쳐 계엄 선포.
- 48.12.01 국가보안법 공포. “제주도 연대장이 11월 20일~27일 사이에 유격대 122명 체포, 576명 사살, 10월 1일~11월 20일 사이에 1,625명 사살, 1,383명 체포. 노획된 무기는 없다”고 보고.
- 48.12.06 「G-2보고서」, “이승만과 신성모의 합의에 따라 서청단원들 군에 6,500명, 경찰에 1,700명 공급예정”이라고 보고.
- 48.12.14 이범석 장관, “11월 16일 선포된 계엄령으로 상황이 급속히 양호한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고 보고.
- 48.12.19 대동청년단·서북청년회 등이 통합해 ‘대한청년단’ 결성.
- 48.12.29 2연대(연대장 함병선 중령), 9연대와 교체해 제주에 진주.
- 48.12.31 제주도지구 계엄령 해제.

☞ 1949년

- 49.01.03 함병선 연대장 “소련 선박 제주 해안에서 발견” 보고.
- 49.01.04 함병선 연대장, 중앙에 계엄령 해제조치 철회 요구.

- 49.01.05 토벌대, 구좌면 동북리에서 무장대원으로 위장해 민가에 들어가 ‘숨겨달라’며 함정을 파 주민 학살.
- 49.03.02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 설치.
- 49.03.10 이범석 총리·신성모 내무장관 제주 시찰 때 ‘여러 차례 소련 선박이 출현해 한라산 폭도와 화광 신호를 교환했다.’고 보고.
- 49.04.09 이승만 내도, 약 250명에게 사면령.
- 49.04.29 소개령 해제.
- 49.05.10 1년 전 무효화됐던 북제주군 갑·을 선거구에 대한 재선거 실시.
- 49.05.15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 해산.
- 49.05.26 안덕면 화순리 주민 3명, 바닷가에서 은신생활을 하다 발각돼 1명은 현장에서 총살되고 2명은 육지 형무소로 보내짐.
- 49.05.30 무장대, 중문면 도순리 주민 1명을 살해.
- 49.06.06 친일파 경찰, 반민특위 습격.
- 49.06.07 이덕구 교전 중 사망.
- 49.06.26 백범 김구, 안두희에게 암살.
- 49.12.29 무장대, 중문면 하원리를 습격해 주민을 살해하고 식량을 탈취.

☞ 1950년대

- 50.04.24 안덕면 화순리에서 보초를 서던 주민, 술에 취한 채 이동하던 대정 지서 경찰토벌대에게 학살됨.
- 50.06.25 6·25 전쟁 발발.
- 50.07.15 예비 검속 당한 주민들, 서귀포 정방폭포와 범섬 앞에서 희생. 예비 검속자 학살은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50년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될 때까지 계속됨.
- 50.07.16 토벌대, 서귀면장 강성모 등 20여 명을 제주읍 앞 바다에서 몸에 돌을 매달아 수장시킴.
- 50.07.17 조병옥, 내무장관에 임명.
- 50.07.27 제주읍 주정공장에 갇혀있던 대정면 신평리 주민, 사라봉 앞 바다에서 수장됨.
- 50.07.29 토벌대, 6·25발발 직후 예비검속한 사람들을 서귀포 앞바다에서 집단 수장시킴.

- 50.08.20 백조일손지묘 희생 발생(섯알오름 학살). 애월면 금성리 주민들, 예비 검속돼 애월지서에 갇혔다가 제주읍으로 끌려가 처형됨.
- 50.09.15 인천상륙작전. 무장대, 들녘에서 풀 베던 서귀면 서호리 주민을 살해하고 소를 빼앗아감. 무장대를 추격하던 경찰 2명도 희생.
- 50.09.22 제주읍내 주정공장에 갇혀 있던 사람들, 제주읍 도두리로 끌려가 집단 총살.
- 51.03.22 무장대, 서귀면 법환리를 습격해 지서주임 조수길과 보초 서던 주민 1명을 사살. 가옥 수십 채를 방화.
- 54.04 해안 부락에 소개된 주민에게 산간 마을로 입주 허가.
- 54.09.21 한라산 금족 지역 전면 개방.
- 57.04.02 최후의 빨치산 오원권, 구좌면 송당리에서 생포됨.

☞ 1960년 이후

- 1978년 현기영 소설 '순이 삼촌' 발표.
- 1988년 양한권, '제주도 4·3 폭동의 배경에 관한 연구', 박명립, '제주도 4·3 민중항쟁에 관한 연구' 발표.
- 1989년 '제주 4·3 연구소' 발족(회장 현기영).
- 1993년 도의회 4·3특위 구성.
- 1995년 제주도의회, '4·3 피해조사 1차 보고서' 발간.
- 1996년 제주도, 4·3 진상규명에 참여.
- 1997년 '제주 4·3 제50주년 기념사업 추진 범국민위원회' 발족.
- 2000년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
- 2000년 '4·3 위원회' 출범. 정부 공식 활동 돌입(8월).

<ABSTRACT>

**The 4·3 teaching device in historical
education at elementary school**

kang soon moon

Jeju univ. education graduate school historical education course
academic advise professor kim dong jun

4·3 is the term that generally names the incidents occurred in adherence of separation from in the era of independence, establishment of government to korean war in jeju.

The study revealed that there had been casualties number in 30,000 through 80000. so we need to alleviate the people in jeju still suffer hardships.

Albeit this situation, 4·3 had been neglected consequently in this study, 4·3 will be summarized and prepared for teaching device in elementary school.

Education device for elementary students, main topic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 prepared a method of partial approach regarding chapters of social study. As a result of curriculum study I found that It can be cut in 5 times. In the chapters regarding social study. There are introduction of 4·3 research institute in 3th grade, in 4th grade, 4·3 relics such as 4·3 cenotaph and backjoilson's tomb are introduced, 5 times in total also there are 2 more cut in, one as a accident in the course of establishing government in 6th grade, casualties of preliminary arrested people in sertalorum under the influence of korea war the other.

Second, by setting 4·3 special chapter I prepare the method of topic approaching. students at their 2nd term in 6th grade had selected who were taught korean history. 4·3 was organized taking circumstances account,

mainly focusing on in a historic way and forgiveness and harmonization, in this paper, various materials were enclosed to support study.

3rd, there is a field investigation through visiting the relics. to begin with I arranged the relics by 4 categories according to topics. These are 7 places of massive slaughter, 4 places of hardship that jeju people suffered 6places at lost village, 5 places of rangers activity, 22 places in all. In mind that elementary students study this, two places for separated inputs by divided approach and study by main subject approach were selected for field study. Beside 5 places in west jeju region and relics neighboring daejungup is the one and relics in the east 5 places including nacsundong castle. the other each can be a one-day-trip course, taking the filed study account that more explanations are shown that's for the students.

More various ways and material should be put into, in parallel with the will among teachers. I wish this paper could be a small aid on the way to correct understanding of 4 · 3.



This thesis is for the master's degree presented to committee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 in February 2002.